

제 1 교시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분석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끝날 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고구마 수능국어

끝날 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분석서 목록

영역	순번	제목	EBS	EBS 페이지	책 페이지	중요도
고전 시가	01	정석가 (작자 미상)	수능특강	12	6	☆☆☆☆☆
	02	홍망이 유수하니 (원천석)	수능특강	38	7	☆☆☆☆☆
	03	오백 년 도읍지를 (길재)	수능특강	38	7	☆☆☆☆☆
	04	선인교 나린 물이 (정도전)	수능특강	38	8	☆☆☆☆☆
	05	구지가 (작자 미상)	수능특강	42	8	☆☆☆☆☆
	06	꽃샘바람 (이규보)	수능특강	42	9	☆☆☆☆☆
	07	동동 (작자 미상)	수능특강	45	10	☆☆☆☆☆
	08	만흥 (윤선도)	수능특강	49	11	☆☆☆☆☆
	09	이화에 월백하고 (이조년)	수능특강	47	12	☆☆☆☆☆
	10	시니 흐르는 골에 (신희문)	수능특강	47	12	☆☆☆☆☆
	11	뫼버들 갈히 것거 (홍량)	수능특강	47	13	☆☆☆☆☆
	12	님이 오마 헝거늘 (작자 미상)	수능특강	52	13	☆☆☆☆☆
	13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작자 미상)	수능특강	52	14	☆☆☆☆☆
	14	사미인곡 (정철)	수능특강	54	14	☆☆☆☆☆
	15	만언사 (안조환)	수능특강	57	16	☆☆☆☆☆
	16	갑민가 (작자 미상)	수능특강	61	18	☆☆☆☆☆
	17	집장가 (작자 미상)	수능특강	65	20	☆☆☆☆☆
	18	형장가 (작자 미상)	수능특강	65	21	☆☆☆☆☆
	19	정선 아리랑 (작자 미상)	수능특강	68	22	☆☆☆☆☆
	20	제가야산독서당 (최치원)	수능특강	71	22	☆☆☆☆☆
	21	야청도의성 (양태사)	수능특강	71	23	☆☆☆☆☆
	22	보리타작 (정약용)	수능특강	220	24	☆☆☆☆☆
	23	저곡전가팔곡 (이휘일)	수능특강	220	25	☆☆☆☆☆
	24	논매기 노래 (작자 미상)	수능특강	220	26	☆☆☆☆☆
	25	어이 못 오던다 (작자 미상)	수능특강	224	27	☆☆☆☆☆
	26	정읍사 (작자 미상)	수능특강	228	28	☆☆☆☆☆
	27	용비어천가 (정인지)	수능특강	232	29	☆☆☆☆☆
	28	가마귀 싸호는 골에 (작자 미상)	수능특강	235	38	☆☆☆☆☆
	29	가마귀 겹다 헝고 (작자 미상)	수능특강	235	38	☆☆☆☆☆
	30	뉘라셔 가마귀를 (박효관)	수능특강	235	38	☆☆☆☆☆
	31	가마귀 가마귀를 좇춘 (작자 미상)	수능특강	235	38	☆☆☆☆☆
	32	백사장 홍료변에 (작자 미상)	수능특강	235	38	☆☆☆☆☆
	33	헌화가 (견우노옹)	수능특강	276	39	☆☆☆☆☆
	34	해가 (작자 미상)	수능특강	276	39	☆☆☆☆☆
	35	훈계자손가 (김상용)	수능특강	289	40	☆☆☆☆☆
	36	노처녀가 (작자 미상)	수능특강	305	41	☆☆☆☆☆
	37	상녀 (작자 미상)	수능특강	305	42	☆☆☆☆☆
현대시	01	춘설 (정지용)	수능특강	9	43	☆☆☆☆☆
	02	눈물 (김현승)	수능특강	31	44	☆☆☆☆☆

현대시	03	배꼽을 위한 연가 5 (김승희)	수능특강	35	45	☆☆☆☆☆	
	04	님의 노래 (김소월)	수능특강	74	46	☆☆☆☆☆	
	05	수의 비밀 (한용운)	수능특강	74	46	☆☆☆☆☆	
	06	윤사월 (박목월)	수능특강	76	47	☆☆☆☆☆	
	07	자화상 (윤동주)	수능특강	76	47	☆☆☆☆☆	
	08	두보나 이백같이 (백석)	수능특강	78	48	☆☆☆☆☆	
	09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고정희)	수능특강	78	49	☆☆☆☆☆	
	10	꽃 (이육사)	수능특강	82	50	☆☆☆☆☆	
	11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수능특강	82	51	☆☆☆☆☆	
	12	산상의 노래 (조지훈)	수능특강	85	52	☆☆☆☆☆	
	13	꽃덤불 (신석정)	수능특강	85	53	☆☆☆☆☆	
	14	사령 (김수영)	수능특강	88	54	☆☆☆☆☆	
	15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정호승)	수능특강	88	55	☆☆☆☆☆	
	16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수능특강	91	56	☆☆☆☆☆	
	17	홀린 사람 (기형도)	수능특강	91	57	☆☆☆☆☆	
	18	종소리 (박남수)	수능특강	95	58	☆☆☆☆☆	
	19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황인숙)	수능특강	95	59	☆☆☆☆☆	
	20	풍장 1 (황동규)	수능특강	98	60	☆☆☆☆☆	
	21	빠빠용-영화 사회학 (유하)	수능특강	98	61	☆☆☆☆☆	
	22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신경림)	수능특강	101	62	☆☆☆☆☆	
	23	들길에서 마을로 (고재중)	수능특강	101	62	☆☆☆☆☆	
	24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희덕)	수능특강	104	63	☆☆☆☆☆	
	25	등꽃 아래서 (송수권)	수능특강	104	63	☆☆☆☆☆	
	26	무등을 보며 (서정주)	수능특강	242	64	☆☆☆☆☆	
	27	상행 (김광규)	수능특강	247	65	☆☆☆☆☆	
	28	나비와 철조망 (박봉우)	수능특강	282	66	☆☆☆☆☆	
	29	초토의 시 8-적군 묘지 앞에서 (구상)	수능특강	282	67	☆☆☆☆☆	
	30	오랑캐꽃 (이용악)	수능특강	298	68	☆☆☆☆☆	
	31	섬진강 1 (김용택)	수능특강	298	68	☆☆☆☆☆	
	32	성탄제 (오장환)	수능특강	313	69	☆☆☆☆☆	
	33	깨끗한 식사 (김선우)	수능특강	313	70	☆☆☆☆☆	
	고전 산문	01	이춘풍전 (작자 미상)	수능특강	19	71	☆☆☆☆☆
		02	심청가 (작자 미상)	수능특강	35	79	☆☆☆☆☆
03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작자 미상)	수능특강	108	99	☆☆☆☆☆	
04		김현감호 (작자 미상)	수능특강	111	100	☆☆☆☆☆	
05		공방전 (임춘)	수능특강	114	102	☆☆☆☆☆	
06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수능특강	117	105	☆☆☆☆☆	
07		창선감의록 (작자 미상)	수능특강	120	112	☆☆☆☆☆	
08		옥루몽 (남영로)	수능특강	123	149	☆☆☆☆☆	
09		유우춘전 (유득공)	수능특강	127	151	☆☆☆☆☆	
10		숙향전 (작자 미상)	수능특강	131	155	☆☆☆☆☆	
11		전우치전 (작자 미상)	수능특강	136	193	☆☆☆☆☆	
12		흥보가 (작자 미상)	수능특강	140	206	☆☆☆☆☆	
13		성조풀이 (작자 미상)	수능특강	145	217	☆☆☆☆☆	

고전 산문	14	공쥐팔쥐전 (작자 미상)	수능특강	224	219	☆☆☆☆☆
	15	주생전 (권필)	수능특강	238	225	☆☆☆☆☆
	16	최척전 (작자 미상)	수능특강	238	235	☆☆☆☆☆
	17	바리데기 (작자 미상)	수능특강	258	245	☆☆☆☆☆
	18	임진록 (작자 미상)	수능특강	263	251	☆☆☆☆☆
	19	수로 부인 (일연)	수능특강	276	294	☆☆☆☆☆
	20	육미당기 (서유영)	수능특강	279	294	☆☆☆☆☆
	21	예덕선생전 (박지원)	수능특강	292	296	☆☆☆☆☆
	22	금방울전 (작자 미상)	수능특강	309	299	☆☆☆☆☆
현대 소설	01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수능특강	15	314	☆☆☆☆☆
	02	도시와 유령 (이효석)	수능특강	148	324	☆☆☆☆☆
	03	고향 (이기영)	수능특강	151	330	☆☆☆☆☆
	04	김 강사와 T 교수 (유진오)	수능특강	154	332	☆☆☆☆☆
	05	미스터 방 (채만식)	수능특강	157	343	☆☆☆☆☆
	06	임종 (염상섭)	수능특강	161	349	☆☆☆☆☆
	07	동행 (전상국)	수능특강	165	356	☆☆☆☆☆
	08	모래톱 이야기(김정한)	수능특강	169	366	☆☆☆☆☆
	09	사막을 건너는 법(서영은)	수능특강	173	377	☆☆☆☆☆
	10	우리 동네 이 씨(이문구)	수능특강	178	380	☆☆☆☆☆
	11	목마른 뿌리 (김소진)	수능특강	182	383	☆☆☆☆☆
	12	원숭이는 없다 (윤후명)	수능특강	187	385	☆☆☆☆☆
	13	정읍사 - 그 천년의 기다림 (문순태)	수능특강	228	388	☆☆☆☆☆
	14	동행 (임철우)	수능특강	247	390	☆☆☆☆☆
	15	변방에 우짖는 새 (현기영)	수능특강	253	400	☆☆☆☆☆
	16	해산바가지 (박완서)	수능특강	258	402	☆☆☆☆☆
	17	칼의 노래 (김훈)	수능특강	263	412	☆☆☆☆☆
	18	탈출기 (최서해)	수능특강	269	413	☆☆☆☆☆
	19	아우를 위하여 (황석영)	수능특강	269	419	☆☆☆☆☆
	20	누이와 늑대 (한승원)	수능특강	285	426	☆☆☆☆☆
	21	완장 (윤홍길)	수능특강	301	455	☆☆☆☆☆
	22	만무방 (김유정)	수능특강	317	542	☆☆☆☆☆
극문학	01	산돼지 (김우진)	수능특강	23	553	☆☆☆☆☆
	02	꼭두각시놀음 (작자 미상)	수능특강	190	574	☆☆☆☆☆
	03	봉산 탈춤 (작자 미상)	수능특강	194	585	☆☆☆☆☆
	04	호신술 (송영)	수능특강	205	600	☆☆☆☆☆
	05	소 (유치진)	수능특강	210	609	☆☆☆☆☆
	06	8월의 크리스마스 (오승욱 외)	수능특강	215	627	☆☆☆☆☆
	07	결혼 (이강백)	수능특강	242	637	☆☆☆☆☆
	08	이재수의 난 (현기영 원작/박광수 외 각색)	수능특강	253	644	☆☆☆☆☆
수필	01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신영복)	수능특강	27	646	☆☆☆☆☆
	02	유관악산기 (채제공)	수능특강	198	648	☆☆☆☆☆
	03	일야구도하기 (박지원)	수능특강	201	650	☆☆☆☆☆
	04	측상락 (윤오영)	수능특강	213	652	☆☆☆☆☆
	05	할계전 (이익)	수능특강	292	653	☆☆☆☆☆

[고전시가 01]

정석가 (작자 미상)

- 수능특강 12쪽 -

딩아 들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들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대(先王聖代)에 노니^ㄴ와지이다.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는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는
구은 밤 닻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호신 님물 여히^ㄴ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회 접두(接柱)호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유덕(有德)호신 님 여히^ㄴ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는
털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호신 님 여히^ㄴ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호신 님 여히^ㄴ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해제]

이 작품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고려 가요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시상을 전 개하고 있다. 이 노래의 본사에 해당하는 2~5연은 각각 구운 밤, 옥 연꽃, 무쇠 옷, 무쇠 소를 소재로 하여,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연은 「서경별곡」의 2연과 유사한데, 이는 6연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구절로서 구전되는 과정에서 두 노래에 삽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구성]

- 1연: 태평성대를 소망함.
- 2~5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함.
- 6연: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다짐함.

[고전시가 02]
 흥망이 유수하니 (원천석)
 - 수능특강 38쪽 -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흐노라

- 원천석

*만월대: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는 고려의 왕궁 터 이름.

[해제]

이 작품은 황폐화된 고려의 옛 궁궐터를 보며 지은 시조로, 고려 멸망에 대한 무상감이 잘 드러나 있다. 뚜렷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병치하여 무상감을 표현했으며, 화자가 스스로를 ‘객’으로 객관화하여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고려 왕조의 몰락에 대한 탄식과 무상감

[구성]

- 초장: 황폐해진 고려 왕조의 옛 궁궐터의 모습
- 중장: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긴 고려 왕조의 업적
- 종장: 고려 왕조의 몰락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고전시가 03]
 오백 년 도읍지를 (길재)
 - 수능특강 38쪽 -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 흐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흐노라

- 길재

[해제]

이 작품은 고려의 옛 도읍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감회를 노래한 시조로, 망국의 한과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 있다.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탄적 어조를 통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망국의 한과 태평했던 시절에 대한 무상감

[구성]

- 초장: 말을 타고 고려의 옛 도읍지에 들어간 화자
- 중장: 자연은 그대로이나, 인걸은 없는 옛 도읍지의 모습
- 종장: 고려의 태평했던 시절에 대한 무상감.

[고전시가 04]
선인교 나린 물이 (정도전)
- 수능특강 38쪽 -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이 자하동(紫霞洞)*에 흘러드러
반천 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희야 고국 흥망(故國興亡)을 물어 무슨 흐리오
- 정도전

*선인교: 개성의 자하동에 있는 다리 이름.
*자하동: 개성 송악산 기슭에 있는 고을 이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개국 공신이 지은 시조로, 고려 왕업의 무상함이 드러나지만, 애상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태도도 드러난다. 청자를 설정하고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고려 왕조의 흥망에 대한 무상감

[구성]

- 초장: 흥성했던 고려 왕조의 모습
- 중장: 과거와 달리 몰락한 고려 왕조의 모습과 그에 대한 무상감
- 종장: 나라의 흥망에 대한 무상감을 극복하고자 함

[고전시가 05]
구지가 (작자 미상)
- 수능특강 42쪽 -

거북아 거북아 龜何龜何
머리를 내밀어라 首其現也
내밀지 않으면 若不現也
구워서 먹으리 燔灼而喫也
- 작자 미상, 「구지가(龜旨歌)」

[해제]

이 작품은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탄생 신화에 삽입된 노래로, 4구체의 한역가(漢譯歌)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임금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부른 노래로, 신에게 소원을 비는 주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땅을 두드리며 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요로 보기도 한다.

[주제]

새로운 임금의 출현 기원

[구성]

- 1~2행: 임금의 강림 기원
- 3~4행: 소원 성취를 위한 위협

[고전시가 06]
꽃샘바람 (이규보)
- 수능특강 42쪽 -

꽃 필 땐 미친바람도 많으니	花時多顛風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라 하네	人導是妬花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天工放紅紫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如剪綺與羅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	既自費功力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愛惜固應多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豈反妬其
도리어 미친바람 보냈겠는가	而遣顛風加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風若矯天令
하늘이 어찌 죄주지 않으랴	天豈不罪耶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此理必不爾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我導人言訛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鼓舞風所職
만물에 은택 입히니 사사로움 없으리라	被物無私阿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惜花若停簸
그 꽃 영원히 성장할 수 있으랴	其奈生長何
꽃 피는 것도 좋지만	花開雖可賞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花落亦何嗟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인데	開落揚自然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有實必代華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묻지 말고	莫問天機密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把杯且高歌

- 이규보, 「꽃샘바람(妬花風)」

[해제]
이 작품의 제목인 ‘꽃샘바람’은 보통 꽃을 시기해서 부는바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화자는 이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이라고 말한다. 바람의 본분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으로, 바람이꽃을 지게 하는 것 또한 자연의 순리라는 것이다. 하나의 자연 현상에서 우주의 이치를 끌어내는 이규보의 예리한 통찰력을 확인할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생장 소멸의 오묘한 이치

[구성]
•1~12행: 꽃샘바람이 잘못 붙인 이름임을 주장함.
•13~22행: 우주의 오묘한 이치에 대한 통찰

[고전시가 07]
 동동 (작자 미상)
 - 수능특강 42쪽 -

덕(德)일랑 곰배에 반잡고 / 복(福)일랑 님배에 반잡고
 덕이여 복이라 호날 / 나아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다리

정월 나릿물은 / 아으 어저 녹저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 몸하, 호올로 녀셔
 아으 동동다리

이월 보름에 / 아으 높이 현* 등(燈)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좃*이샷다
 아으 동동다리

삼월 나며 개(開)한 / 아으 만춘(滿春) 달래꽃이여
 남이 부롤* 좃을 지너 나샷다
 아으 동동다리

사월 아니 잊어 / 아으 오실셔, 피꼬리 새여
 무슴다* 녹사(錄事)님은 / 옛 나를 잊고 계신가?
 아으 동동다리

오월 오일에 / 아으 수릿날 아침 약(藥)은
 즈른 해를 장존(長存)하실 / 약이라 반잡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유월 보름에 / 아으 별헤 버린 빗 다호라
 돌아보실 님을 / 조금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칠월 보름에 / 아으 백중(百種)* 배(排)하여 두고*
 님을 한테 너고자 / 원(願)을 비옵나이다
 아으 동동다리

팔월 보름은 / 아으 가배(嘉俳) 날이마란
 님을 피셔 너곤 / 오늘이 가배(嘉俳)샷다
 아으 동동다리

구월 구일에 / 아으 약(藥)이라 먹는
 황화(黃花) 꽃이 안에 드니 / 새서 가만하여라*
 아으 동동다리

시월에 / 아으 저미연 바랏* 다호라
 꺾어 버리신 후에 / 지니실 한 분이 없으샷다
 아으 동동다리

십일월 봉당 자리에 / 아으 한삼(汗衫) 덮어 누워
 슬할 살아온저* / 고운 님 스스옴* 녀셔
 아으 동동다리

십이월 분디나무로 깎은 / 아으 나알* 반(盤)에 저* 다호라
 님의 앞에 들어 얼이노니* / 손이 가져다 무르압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 작자 미상, 「동동(動動)」

*현: 권, 매달린.
 *좃: 모습.
 *부롤: 부러워할.
 *무슴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백중: '백중날'을 달리 이르는 말. 여기서는 백중날 차리는 온갖 음식을 말함.
 *배하여 두고: 벌여 두고.
 *새서 가만하여라: 갈수록 아득하구나,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향기가 퍼져 은은하여라.
 *바랏: 보리수나무.
 *슬할 살아온저: 슬픔이 되살아나네, 슬픔을 사르고 있네.
 *스스옴: 여의고.
 *나알: 진상할, 차려 올릴.
 *저: 젓가락.
 *얼이노니: 가지런히 놓으니, 올리노니.
 *무르압노이다: 무읍니다.

[해제]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고려 가요로 『악학궤범』에 기록되어 있다. 현전하는 국문학 작품 중 가장 오래된 달거리 노래로, 총 13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1연은 임 혹은 임금에 대한 송축(頌祝)의 성격을 띠고 있고 나머지 연은 달거리 형식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시상의 흐름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다.

[주제]
 임 혹은 임금에 대한 송축과 임에 대한 연모의 정

[구성]
 • 서사: 임 혹은 임금에 대한 송축
 • 정월 노래: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 2월 노래: 임의 빼어난 인품 찬양
 • 3월 노래: 임의 아름다운 모습 찬양
 • 4월 노래: 무심한 임에 대한 원망
 • 5월 노래: 임의 장수에 대한 기원
 • 6월 노래: 임에게 버림받은 슬픔
 • 7월 노래: 임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
 • 8월 노래: 임 없는 한가위의 쓸쓸함
 • 9월 노래: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 10월 노래: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 11월 노래: 외로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
 • 12월 노래: 임과 인연을 맺지 못한 한(恨)

[고전시가 08]
만흥 (윤선도)
- 수능특강 49쪽 -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윤논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늬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 곳 몫⁷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웁도 아녀도 몰내 묘하호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냅뎡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호시도다
〈제5수〉

강산(江山)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호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하얌: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냅뎡더라: 약았더라.
*님천 한흥: 자연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즐거움

[해제]
이 작품은 총 6수의 연시조로, 세속과 멀어져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도 한가로운 생활을 하면서 만족감과 흥취를 느끼고 있다.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구성]
•제1수: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지향
•제2수: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
•제3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제4수: 자연을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
•제5수: 세속과 멀어져 자연에서 지내는 만족감
•제6수: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고전시가 09]
이화에 월백하고 (이조년)
- 수능특강 47쪽 -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 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나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드러 호노라
- 이조년

*은한: '은하'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은하수.
*자규: 두견과의 새. 두견.

[해제]

이 작품은 봄날의 깊은 밤, 하얀 달빛 아래 배꽃이 피어 있는 곳에서 잠 못 드는 화자의 고독과 애상감을 노래하고 있는 평시조이다. 이에 '다정가(多情歌)'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백색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여 '자규'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형상화함으로써 '일지 춘심'의 애상적인 정취를 아름답게 그려 내고 있다.

[주제]

봄밤의 애상감

[구성]

- 초장: 봄밤의 정경
- 중장: 춘심(春心)의 심화
- 종장: 봄밤에 느끼는 다정(多情)

[고전시가 10]
시늬 흐르는 골에 (신희문)
- 수능특강 47쪽 -

시늬 흐르는 골에 바회 지혀 초당(草堂) 삼고
달 아리 밧출 갈고 구름 속에 누어시니
건곤(乾坤)이 날드려 널으기를 함과 늣즈 호더라
- 신희문

[해제]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평시조이다. '강호 한정가'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시조는 초장과 중장에서 자연의 정경을 대표할 만한 소재인 '시늬', '달', '구름'과 친화하며 조화를 이루는 화자의 여유로움을 보여 주고 있으며, 종장에서는 '건곤'을 의인화하여 화자 자신의 물아일체의 소망을 의탁하여 표현해 내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여유로움과 물아일체의 소망

[구성]

- 초장: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
- 중장: 전원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 종장: 자연 친화와 물아일체의 소망

[고전시가 11]
 뫏버들 갈히 것거 (홍량)
 - 수능특강 47쪽 -

뫏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는 창(窓)밧긔 심겨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량

[해제]
 이 작품은 기생 홍량이 지은 것으로, 임에게 온전히 바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뫏버들을 정성스럽게 골라 꺾어 멀리 있는 임에게 보내는 행위는 임을 향한 화자의 헌신을 의미한다. 이때 뫏버들은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생 신분으로서 화자가 임과 맺는 연인 관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창 안이 아닌 창밖이라는 공간적 제한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럼에도 뫏버들에 새잎이 나면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소망을 말하는 화자의 목소리는 처절하기만 하다.

[주제]
 임에게 바치는 순수한 사랑

[구성]
 •초장: 뫏버들을 선별하여 임에게 보냄.
 •중장: 임 계신 곳에 다가가고 싶은 바람
 •종장: 임이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

[고전시가 12]
 님이 오마 흐거늘 (작자 미상)
 - 수능특강 52쪽 -

님이 오마 흐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우회 치드라 안자 이수로 가액하고*
 오논가 가논가 건넌산 바라보니 거머뿔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
 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즈 디 믈른 디 굴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셔 정(情)엿 말 흐려 흐고 것눈을 흘긔 보니 상년칠월
 열사흔날 굴가 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만정 형여 낮이런들 늡 우일 변흐패라
 - 작자 미상

*이수로 가액하고: 손을 이마에 대고.
 *워령충창: 급히 달리는 말소리.
 *주추리 삼대: 씨를 받느라고 꺾질을 벗겨 세워 둔 삼의 줄기.

[해제]
 이 작품은 그리운 임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진솔한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 주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화자는 중문을 나서고 대문에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임이 오는지 바라본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임을 어서 빨리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 준다.

[주제]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

[구성]
 •초장: 임이 온다는 소식에 급해진 마음
 •중장: 임을 향한 애타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
 •종장: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겸연쩍음

[고전시가 13]
 나모도 바히 들도 업슨 (작자 미상)
 - 수능특강 52쪽 -

나모도 바히 들도 업슨 피헤 매게 췌친 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
 도 일코 농총*도 근코 뚫대도 짓고 치도 빠지고 브람 부러 물
 걸 치고 안개 뒤섯계 즈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나쁜디 사
 면이 거머어득 저못 천지 적막 가치노을 췌는디 수적(水賊) 만
 난 도사공(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훤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호리오
 - 작자 미상

*농총: 돛 줄.

[해제]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절박한 마음을 비교, 열
 거, 과장 등의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사실시조이다. 화
 자는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까투리와 바다 한가운
 데에서 위기에 처한 도사공의 절박한 심정에 견주어 임을 여인 참
 담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임을 여인 슬픔

[구성]
 •초장: 숨을 곳 없는 산에서 매에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
 •중장: 바다 한가운데에서 위기에 처한 도사공의 마음
 •종장: 임을 여의어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슬픈 마음

[고전시가 14]
 사미인곡 (정철)
 - 수능특강 54쪽 -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흐나 접어 잇고 님 흐나 날 괴시니
 이 므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니
 늣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피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디 삼 년(三年)일쇠
 연지분(胭脂粉) 잇너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므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혀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성(人生)은 유한(有限)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호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염양(炎涼)*이 췌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밭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黃昏)의 들이 조차 버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님 나니 녹음(綠陰)이 췌렸는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호고 슈막(繡幕)이 뷔여 잇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굿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뻛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희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크니와 제도(制度)도 ㄱ줄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희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브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홀시고
 천리만리(千里萬里) 길히 뉘라셔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 김의 기러기 우러 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렴(水晶簾)을 거든마리
 동산(東山)의 들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피니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피워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누(樓) 우희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낫ㄱ터 밍그쇼셔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호야 백설(白雪)이 혼 비친 제

사름은쿠니와 늘새도 곳쳐 있다
 쇼상(瀟湘) 남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닐너 모습허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췌 허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日暮) 슈독(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다른 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론 것티 던공후(鈿篋篋) 노하두고
 꿈이나 님을 보려 툇 밧고 비겨시니
 앙금(鴛鴦)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흐르도 열두 췌흔들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므옴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췌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트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츰려 호노라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삼기실 제: 태어날 때, 생겨날 때.
 *노여: 진혀.
 *염냥: 더위와 서늘함. 곧 계절의 순환.
 *벼마타: 벼갯머리에.
 *견화이셔: 재어서.
 *팔황: 온 세상.
 *쇼상 남반: 소상강의 남쪽. 여기서의 작가가 있는 전라도 창평.
 *일모 슈독: 해 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함.
 *편작: 중국 전국 시대의 명의(名醫)로, 뛰어난 의사의 대명사.

[해제]

이 작품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표현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의 대표적인 가사이다. 작가인 정철은 1585년(선조 18년)에 자신의 고향인 전남 창평에서 은거 생활을 하며 이 작품을 지었다. 계절이 변화해도 변함없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작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사미인곡」은 작가정철이 이 작품의 후편으로 지은 「속미인곡」과 더불어 뛰어난 가사문학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연군지정(戀君之情)

[구성]

- 서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
- 본사
 - 춘사: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 하사: 이별 후에 느끼는 외로움과 임을 향한 정성
 - 추사: 임금의 선정을 기원하는 마음
 - 동사: 외로운 자신의 처지와 임에 대한 염려
- 결사: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마음

[현대시 01]
 춘설 (정지용)
 - 수능특강 9쪽 -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뗏부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우수절: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경.
 *웅송그리고: 춥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움짓 아니 기던: 움직이지 않던.
 *핫웃: 안에 숨을 두어 지은 겨울웃.

[해제]
 이 작품은 춘설(봄눈)이 내린 우수절 초하루 아침을 배경으로 하여, 화자가 느낀 봄의 생동감을 담아내고 있다.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그리고 있으며, '~ 선뜻!', '~ 차라.', '~ 향기로워라.' 등의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춘설을 봄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소재로 활용한 시인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주제]
 춘설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동감

[구성]
 •1연: 문을 열자 보이는 먼 산
 •2연: 우수절 초하루의 아침
 •3연: 가깝게 느껴지는 눈 덮인 산
 •4연: 봄이 오는 모습
 •5연: 봄기운을 느낀 화자
 •6연: 생동감 있는 봄의 모습
 •7연: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소회

[현대시 02]

눈물 (김현승)

- 수능특강 31쪽 -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해제]

이 작품은 아들을 잃은 시인이 자신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쓴 시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눈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연에서는 작은 생명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2~4연에서는 '눈물'을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값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5~6연에서는 '열매'에 빗대어 '눈물'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눈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주어진 슬픔을 받아들이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주제]

순결하고 순수한 삶의 추구

[구성]

- 1연: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하는 소망
- 2연: 절대적으로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
- 3~4연: 가장 값지고 고귀한 존재로서의 눈물
- 5~6연: 영원하고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눈물

[현대시 03]
 배꼽을 위한 연가 5 (김승희)
 - 수능특강 35쪽 -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해제]
 이 작품은 「심청전」을 재구성한 시로,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소설 속의 '심청'을 비판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당수', '공양미 삼백 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심청전」을 소재로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
 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

[구성]
 • 1~2연: 부모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함.
 • 3연: 자신의 삶을 이룩하기 위해 부모의 지배적 힘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김.
 • 4연: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자식으로서 약자인 부모에게 해 줄 수 있는 배려를 제시함.
 • 5연: 각자 배워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과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함.

[현대시 04]

님의 노래 (김소월)

- 수능특강 74쪽 -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 김소월, 「님의 노래」

[해제]

이 작품은 현실 속에서 부재하는 임이 화자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3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님의노래'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임이 부재하는 현실과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구성]

- 1연: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임의 노래
- 2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임의 노래
- 3연: 임의 노래와 함께하면서 얻는 안정감
- 4연: 임이 부재하는 현실의 확인

[현대시 05]

수의 비밀 (한용운)

- 수능특강 74쪽 -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심의: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

[해제]

이 작품은 임이 부재하는 현실을 감당하며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임의 옷에 수를 놓으며, 임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아픔을 감내하고 임에 대한 사랑을 성숙시켜 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경어체를 바탕으로, 임의 옷을 짓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화자의 내면적 심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구성]

- 1연: 옷을 지어 놓았으나 주머니에 수놓는 것은 미루는 화자
- 2연: 주머니를 짓다가 놓아두는 까닭

[현대시 06]
윤사월 (박목월)
- 수능특강 76쪽 -

송홑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피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엳듣고 있다

- 박목월, 「윤사월」

[해제]

이 작품은 봄 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 고립되어 지내는 눈먼 처녀의 세상에 대한 애뜻한 동경과 그리움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그려 낸 시이다. 3음보를 기반으로 하는 민요조의 율격을 나타내고 있고, 절제된 표현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서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주제]

외딴 산중에 사는 눈먼 처녀의 애뜻한 동경과 그리움

[구성]

- 1연: 외딴 봉우리의 풍경
- 2연: 봄을 맞은 피꼬리의 울음
- 3연: 외딴집에 사는 눈먼 처녀
- 4연: 바깥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현대시 07]

윤사월 (박목월)
- 수능특강 76쪽 -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해제]

이 작품은 ‘우물’을 매개로 한 내적 갈등과 자기 성찰을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윤동주의 다른 시들처럼 이 시를 관통하는 정서는 ‘부끄러움’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불우한 시대에 지식인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치열하게 내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산문적인 문체로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

[구성]

- 1연: 우물을 찾아가 성찰을 시작함.
- 2연: 우물 속 평온한 풍경
- 3연: 풍경 속 자신에 대한 미움
- 4연: 자신에 대한 연민
- 5연: 자신에 대한 애증과 내적 갈등
- 6연: 추억 속 자신의 모습

[현대시 08]

두보나 이백같이 (백석)

- 수능특강 78쪽 -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
 로다
 옛날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련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
 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
 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
 어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뽕뽕 높
 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
 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
 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 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억병: 매우 많이.

*반관: 작은 중국 식당.

*원소: 중국에서 정월 대보름날 먹는 새알 모양의 전통 음식.

*느꾸어: '긴장이나 흥분을 풀어'라는 뜻의 평북 방언.

*오독독이: 오독도기. 불꽃놀이에 쓰는 딱총의 하나. 화약 심지에
 불을 붙이면 터지는 소리를 내면서 불꽃이 떨어진다.

*호궁: 중국의 전통 현악기의 하나.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슷하다.

[해제]

이 작품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먼 이국에서 명절을 보내며 느끼는
 정회를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고향을 떠난 자신의 처지를,
 두보나 이백 같은 옛 시인의 처지와 유사하게 느끼고 있다. 그들
 이 고향을 떠나 방랑과 은거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을 고독과 쓸
 쓸함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들의 시적 정신과 격조를 떠올리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주제]

타향에서 느끼는 쓸쓸함

[구성]

- 1~5행: 대보름 명절에 객지에서 쓸쓸함을 느낌.
- 6~10행: 고향 집에서 명절을 보냈던 과거 추억을 현재와 대비함.
- 11~25행: 두보나 이백 같은 시인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와연
 결함.
- 26~30행: 시인들과 자신의 쓸쓸한 마음을 떠올림.

[고전산문 01]
이춘풍전 (작자 미상)
- 수능특강 19쪽 -

[앞부분 줄거리] 평양 기생 추월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그 집에서 사환*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찾기 위해, 춘풍의 아내는 평양 감사로 부임하는 김 승지를 따라 비장* 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춘풍의 아내를 추월을 잡아들여 매를 치고 추월에게 춘풍의 돈을 물어내게 한다.

비장이 사또 전에 여짜오되,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다 고하고 조용히 여짜오되,
“내일 하직하고 경성으로 가려 하오니 사또님 덕택으로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례*로 오천 냥을 몰 수(沒數)이 수쇄하여 춘풍에게로 보내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사또 허락하고, 이튿날 하직하고 상덕한* 돈 수만 냥을 환전으로 부쳐 놓고, 인하여 발행(發行)할새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환전 돈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평양 사또 본관이 분부하되, 추월을 잡아들여 돈 바치라 성화하되, 십 일 다 못 하여 오천 냥을 다 바치니, 춘풍이 돈을 싣고 경성으로 올라갈 제, 이때 춘풍의 아내 문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
“어이 그리 더디 온가? 장사에 사망* 많아 평안히 오시니잇가?”
춘풍이 반기면서,
“그사이에 잘 있었는가?”

하고, 열두 바리 실은 돈을 장사에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 들이거늘, 춘풍이 온 교태(驕態)를 다할 적에 기구하고 불만하다.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셔 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며 하는 말이,
“생치(生雉) 다리도 덜 구워졌으며,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黃肉)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 호조 돈 아니었더라면 올라오지 아니했지. 내일은 호조 돈을 다 바치고 평양으로 내려갈 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감영 소가(小家)* 집의 그 음식 먹어 보소.”

온갖 교만 다할 적에, 춘풍 아내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 놓고, 비장 의복 다시 입고 흐늘거리며 들어오니, 춘풍이 의아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하는지라. 비장이 호령하되,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 한들 그다지 거만하냐?”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즉,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 주던 회계 비장이라. 깜짝 놀라면서 문밖에 뛰어내려 문안을 여쭙오되,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았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춘풍이 여쭙오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상(賞)이로소이

다.”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에 문안하라 하였더니, 풍문 에 소식 들리기를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 승지 댁에 가 술을 먹고 대취하여 종일 놀다가 홀연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돌아왔으니 흰죽이나 썬어 달라.”
한대, 춘풍이 제 지어미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쏜가. 제가 손수 죽을 썬려 하고 죽 쌀을 내어 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네 지어미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를 하느냐?”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리되, ‘그립던 차에 가술을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 자 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데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무가내하*라.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 썬는 모양이 우습고도 볼만하다. 그제야 죽상을 들이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체하다가 춘풍에게 상재로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 감영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에 다 깨진 헌 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뜯아래 서서 되는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여 다 먹으라.”
하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면 얼른얼른 먹는지라. 그 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이런 거동 볼작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 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를 더 하자니 차마 그리 우스워라. 이런 꼴을 볼작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연후에, 회계 비장 의복 벗어 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춘풍의 등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에 자넌 줄 알았으나 의사(意思)를 보자 하고 그리하였노라.”
하고,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앙금침 펼쳐 덮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일세.

- 작자 미상, 「이춘풍전」

*사환: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비장: 지방 관리나 해외 사신을 따라다니던 관직.
*자모지례: 1년간의 이자를 원금의 2할 이내로 정한 이율.
*상덕한:윗사람한테 덕을 받은.
*사망: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
*소가: 작은집. 여기서는 평양의 추월을 가리킴.
*무가내하: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어 어찌할 수 없음.

[해제]

이 작품은 기생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인물인 춘풍을 주인공으로 하여, 조선 후기의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한 풍자 소설이다. 춘풍은 무능하고 방탕한 인물로,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집안 이 몰락할 위기에 처한다. 이때 남장을 하고 나타난 아내의 활약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남편 때문에 몰락한 가정이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재건되는 이야기를 통해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의 횡포와 배금주의 풍조를 풍자하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주제]

허위에 가득 찬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과 진취적인 여성상의 제시

[전체 줄거리]

서울 다락골에 사는 이춘풍은 밤낮으로 놀러 다니며 가산을 탕진하는 등 방탕한 삶을 살지만, 아내가 설 새 없이 품 팔이를 하며 돈을 모아 가세가 풍족해지게 된다. 그러자 춘풍은 집안 재물을 다 챙기고, 호조 돈 이천 냥을 빚내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몽땅 빼앗기고, 그 집에서 사환 노릇을 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편을 찾기 위해 평양 감사로 부임하는 김 승지를 따라 비장 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한다. 비장이 된 춘풍의 아내는 추월을 징벌하고, 돈을 되찾아 춘풍에게 돌려준다. 돈을 받은 춘풍은 서울 집에 와서 아내에게 돈을 벌었다고 허세를 부린다. 이때 다시 아내가 비장 차림을 하고 춘풍에게 나타나 음식을 내오라고 하며 추월의 집에서 춘풍이 사환 노릇을 했던 사실을 말하니, 춘풍이 당황하며 아내가 들을까 전전긍긍한다. 비장과 춘풍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비장의 정체가 아내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후 춘풍은 그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 힘쓴다.

이춘풍전 전문

숙종대왕 즉위 초에 인화세풍하고, 국태민안이라. 우순풍조하고 가급인족하여 산무도적하고 도불습유하니 요지일월이요 순지전곤이라.

이 때 서울 다락골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이요, 명은 춘풍이라. 형세가장 요부하여 장안의 거부로서 다만 혈육이 춘풍뿐이라. 부모 매양 사랑하여 교동으로 길러 내니 인물이 육골이요 현현장부라, 타인과 달라 못 할 것이 전혀 없더라.

그렇듯 지내다가 양친이 일시에 구몰하니 춘풍이 망극하여 삼상을 마친 후, 강근친척이 없어 춘풍을 경계할 이 없으며, 춘풍이 외입하여 하는 일마다 방탕하고 세전지물 누만금을 남용하여 없이할 제 남북촌 외입쟁이와 한가지로 휩쓸려 다니며 호강하여 주야로 노닐 적에, 모화관 활쏘기와 장악원 풍류하기, 산영에 바둑 두기, 장기 골패 쌍륙 투전, 육자배기 사시랑이 동동이 옛방망이 하기와, 아이 보면 돈주기, 어른 보면 술 대접하고 고운 양자 맑은 소리, 맛있는 일년주며 병거깃골 열구지탕 너비할미 갈비찜에 일일장취 노닐 적에, 청루미색 달려들어 수천 금을 시각에 없이니 천하 부자 석송인들 그 무엇이 남을손가.

티끌같이 없어지고 진토같이 다 마른다. 전에 놀던 청루미색

나를 보면 헤어진다.

춘풍이 하릴없이 제 집에 돌아와 제 처더러 하는 말이,
"가빈에 사현처라, 옛글에 일렀건만 애고 이제 어찌할꼬."

가련하다 춘풍 아내 하는 말이,

"여보소, 내 말 들소. 대장부 되어 나서 문무간에 힘을 써서 춘당대 알성과에 문무 참례하여 계수화를 숙여 찢고 청라삼 떨쳐입고 부모전에 영화되고 후세에 이름 내어 장부의 사업을 하면 패가를 할지라도 무엄치나 아니 할꼬. 그렇지 못하면 치산을 그리 말고 농업에 힘써서 처자를 굶기지 말고 의식이나 호강으로 지내다가 말년에 이르러 자식에게 전장하고 내외가 종신토록 환력평생하게 되면, 그도 아니 좋을손가.

부귀공명 마다하고 이녀이 어찌 굴어 부모의 세전지물 일조 일석 다 없애고 수다한 노비전답 뉘게 다 전장하고 처자를 돌아보지 않고 주지탐색 수투전 주야로 방탕하여 저렇듯이 되었으니 어이하여 사잔 말고, 마오마오 그리 마오, 주색잡기 좋아 마오. 자고로 외입한 사람 뉘 아니 탕패한가.

내말 잠깐 들어 보소. 미나리골 이패두는 청루미색 즐기다가 나중에 신세 글러지고 동문 밖의 오청두도 투전잡기 즐기다가 말년에 걸인되고, 남산 골목 화전이도 소년의 부자로서 주색잡기 즐기다가 늙어서 그릇 죽고, 모시전 김부자도 술 잘 먹고 허랑하기 장안에 유명터니 수만 금을 다 없애고 기름 장사 다니네. 일로 두고 불지라고 주색잡기 다시 마오."

이렇듯 만류하니 춘풍이 대답하는 말이,

"자네 내 말 들어 보소. 사환 대실이는 술 한잔 못 먹어도 돈 한푼을 못 모으고, 이각동이는 오십이 되도록 주색을 몰랐어도 남의 집 사환을 못 면하고, 탐골 복동이는 투전 골패 몰랐어도 수천 금을 다 없애고 굶어 죽었으니, 일로 불작시면 주색잡기 하다가도 못 사는 이 별로 없네. 자네 차차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술 잘 먹는 이태백은 앵무배로 백년 삼만 육천 일, 하루 삼백 배로 매일 장취하였어도 한림학사 다 지내고 자골 전 일손이는 주색잡기하였어도 나중에 잘 되어서 일품 벼슬하였으니, 일로 불지라도 주색잡기 좋아하기 남아의 상사로드. 나도 이리 노닐다가 일품 벼슬하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리라."

이처럼 허랑하고 조석을 이룰 수 없이 탕진한지라, 춘풍이 할 일 없어 그제야 회과자책 절로 나서 아내에게

사과하고 지성으로 비는 말이,

"자네부디 노여 마오. 자네 부디 설워 마소. 내 마음 생각하니 각금시이작비로세. 이왕지사 고사하고 가난하여 못 살겠네. 어찌하면 좋단 말고. 오늘부터 가중범사를 자네에게 맡길 것이니 자네 임의로 제가하여 의식이나 줄이지 말게 하소."

춘풍의 처 하는 말이,

"부모조업 누만금을 주색을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 혹시 침재 길쌈 방직하여 돈푼을 모을지라도 그 무엇을 아낄손가?"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말이 내 행세를 믿지 못하니, 이후 주색잡기 않기로 수기를 써 줘세."

지필을 내어 수기를 쓰는구나.

‘모년 모월 모일 기위전수기라. 우수기 단은 외입 방탕하기로 선세조업 누만금을 청루잡기로 진산하고, 각금시이작비하고 서 회개에 막급이라. 차일 후로 가중지사를 진부어실 김씨 하거운. 김씨 치산 후로는 누만금지 재라도 진시 김씨지재요, 가부 이춘풍은 일푼전 일두속을 불부 담당지지로 여시 수기하오니, 일후에 약유 잡기지패 여든지차수기하고 관변정사라. 증필에 가부 이춘풍이라.’

책명하여 주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수기 말씀이 지차수기하고 관변정사라 하였으나, 가장 걸어 송사할손가?”

춘풍이 이 말 듣고 수기를 고쳐,

‘차여중 김씨전수기라. 종금이후로 약유잡담이거든 가위 비부지자라, 지차문기 빙고사라.’ 하여 주니, 김씨 받아 함롱에 넣어두고 이 날부터 치가한다.

침재 길쌈 능란하다. 오피론 받고 새버선 짓기, 서푼 받고 새김 볼 박기, 두푼 받고 한삼 짓기, 서푼 받고 현옷 깎기, 네돈 받고 장옷 짓기, 닛돈 받고 도포하기, 엇돈 받고 천익 짓기, 일곱돈 받고 금침하기, 한냥 받고 들찌누비, 두냥 받고 바지누비, 세냥 받고 긴옷 누비, 녁냥 받고 관복지며, 겨울이면 무명나이, 여름이면 삼베 길쌈, 가을이면 염색하기,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쉴새없이 사오 년을 모은 돈을 장변이며 월수 놓아 수천금을 모았고나.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여 그럴 것이 바이 없다.

이 때에 춘풍이 아내 덕에 의복관망 치레하고 고량진미 함포 고복하여 제 집 술로 매일 장취하는구나. 가래침 고두 받고 곤자소니 기름지니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평평거리고 내달아서 호조 돈 이천 냥을 대돈변으로 얻어 내어 방물군자인 체하고 평양으로 장사가러 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이 말 듣고 대경하여 춘풍더러 하는 말이,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이십 전에 부모조업 탕진하고 그 사이 오 년을 격단하고 앓았다가 물정도 소리한 데 평양장사 가지마오. 평양 물정 내 들었소. 변화 사치하고 분벽사창 청루미색 단순호치 반개하고 청가일곡으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량한 자는 제 세워두고 벗긴다는데 평양 물정 이렇다니 부디 장사 가지 마오.”

지성으로 만류하니 춘풍이 하는 말이,

“나도 또한 사람이지 이십 전 패가하고 원통하기 골수에 박혔으니 천금진산 환부래라 하였으니 낸들 매양 패가할까 속속이 다녀오세.”

춘풍 아내 이른 말이,

“연전에 치패하여 일푼전 일두속을 참견 아니 할 뜻으로 비부지재라 수기 써서 내 함롱에 넣었거든 그 사이 잊었는가. 의식을 내게 믿고, 편안히 앉아 먹고 부디부디 가지 마소.”

춘풍이 이말 듣고 대노하여 어질고 착한 아내 머리채를 선전시전 비단 감듯 휘휘 칭칭 감아쥐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천리원정 장삿길에 요망한 계집년이 잔말을 이리 하니, 이런 변 또 있는가?”

제 아내 욕지르고 집안 재물 다 털어서 말에 싣고 떠날 적에

불쌍하다, 춘풍 아내 아무리 여러 말로 말리어도 막무가내일러라.

이 때 춘풍이 이천오백 냥 샅말 내어 실어놓고 발행할 제 좋은 말 반부담에 갖추 차려 호피돋움 높이하고 내려간다.

의기양양 내려갈 때 연소문 얼른 지나서 무학재 얼른 지나 평양길 내려갈 제 청석골 다다르니, 정신이 쇠락하여 좌우 산천 바라보니, 이 때는 춘삼월 호시절이라. 고을 고을에 꽃은 날려 청파에 던지고 수양은 천만사에 황앵이 날아들고 온갖 산수 구경한다. 황성천도 벽사월에 창오원 중 늙은 고목, 주유낙일 절벽간에 임을 그려 상사나무, 옥조중랑 축분춘아 이월중난 계수나무, 층암절벽에 평퍼진 반송나무, 늘어진 양류는 춘풍에 흥을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춘다.

또 한편을 바라보니, 무슨 짐승 노닐더냐. 춘알 새랑 창경새는 피는 꽃을 따려 하고 포곡조는 최춘종을 취풍은 가는 말을 재촉하고 옥동도화 만수춘은 가지가지 봄빛이라. 피는 꽃 푸른잎은 산책을 가리우고 나는 나비와우는 새는 봄철을 희롱한다.

동선령을 바빠 넘어 황주 병영 구경하고, 중화로 평양을 바라보고 형제교를 얼른 지나 십리장림을 지나 대동강에 다다라서 모란봉 쳐다보니 그 아래 부벽루 둘러있고 물색도 좋을씨고. 대동문 연광정 제일강산이 여기로다. 기자 단군 이천 년의 보통문 유전이다. 정자도 좋거니와 영명사 극히 좋다. 성내에 들어서니 인가도 번성하고 물색도 변화하다.

춘풍의 거동 보소. 최성루 돌아들어 좌우 산천 구경하고 또 한편 바라보니 옛 마음이 절로 난다. 이런 변이 또 있는가. 청루 앞을 썩 지나서 객사 동편 주인하고, 열두 바리 실어온 돈 차례로 들여놓고 삼사 일 유숙하며 물정을 살피더니, 하루는 난간에 의지하여 한 집을 바라보니 집치레도 좋거니와 저 집 주인 거동 보소. 일색 추월이라. 얼굴도 일색이요, 노래도 명창이요, 연광은 십오 세라. 성중의 호결손과 팔도의 소년 한량 한번 보면 수 삼백 석 쓰기를 물같이 쓰는구나.

이 때 서울 부상대고 이춘풍이 수천 냥 싣고 와서 뒷집에 주인 했다는 말을 듣고, 추월이 년짓 춘풍을 홀리려고 벽계수 청류상에 사창을 반개하고 표연한 교태로 녹의홍상 다시입고 천연히 앓은 모양 춘풍이 얼른 보니얼굴 태도 청천명월 같고, 모란화 아침 이슬에 반쯤 핀 형상이요, 그 절묘한 맵시는 해당화가 그늘 속의 그림이요, 월궁의 향아로다.

천새긴 태도는 앵도화가 무르녹고 아미산 반륜월이 맑은 강에 비침 같고 서시가 부쟁이요 양귀비 다시 온듯, 청루상에 홀로 앉아 오동복판 거문고를 무릎 위에 얹어놓고, 탁문군을 피어 내던 사마상여 봉황곡을 동홍동동지동당 타는 소리에 춘풍의 심신이 황홀하여 미친 마음 절로 난다. 제가 본디 계집이라 하면 화약 한 섬을 지고 모닥불에 보금자리치고 괴발에 덕석이라. 일신의 정신 있는 대로 모다 그리간다.

춘풍의 거동 보소. 좋은 의복 금사전의에 혼반 찾듯, 자미시에 결승 찾듯,삼국풍진 오란할 제 한중실 유향숙이 와룡선생 찾아가듯, 서왕모 요지연에 주목왕 찾아가듯, 피꼬리 양류목을 찾아가듯, 봉접이 꽃밭을 찾아가듯, 맹상군의 갈짓자 걸음으로 중문 안에 들어서니 추월의 거동 보소.

춘풍이 오는 양을 열린 보고 옥안을 번듯 들어 계하에 내려 서서 춘풍의 나삼을 휘어잡고 난간에 올라서서 좌우를 살펴보니 집치레도 황홀하다. 사면팔자 입구 자로 육간 대청 전후 퇴에 이층 난간 맵시 있다.

방 안을 살펴보니 각장 장판 소란 반자 국화 새긴 완자창과 산수병의 미인도가 아름답다.

목화로 죽엽 처서 벽창문에 붙여 두고 원앙금침 잣베개를 지리장에 개어 놓고, 분벽주런 둘러보니 동중서의 책문이며 제갈량의 출사표며, 적벽부 양양가를 귀귀마다 붙였구나. 늦춧대 광명두리 여기저기 놓여 있고 요강과 재떨이며, 청동화로 수박화로 삼층들이 화류장은 드문듬성 벌여 놓고, 벼루상의 양무머 리장 목비며 용담 백담 화문석에 계자다리 옷걸이, 좋은 의상 내려 두고 추월의 거동 보소.

추파를 반만 들어 영접하여 앉은 모양 아리뻏고, 고운 태도 팔자청산 두 눈썹에 반분대를 다스리고, 삼단 같은 머리채를 휘휘슬슬 흘러 빗겨 금봉채로 단장하고 의복 치레 볼작시면 백방사 수화주로 장바지, 무명 주단 단속곳, 세백 수화주 너른 바지, 통명주 깨끼적삼, 남대단 훗단치마 잔살 잡아 떨쳐 입고, 노리개들 범연할까. 이궁전 인물향과 밀화 불수 금도끼를 줄룩줄룩 얹어 차고 백주 화주 겹버선에 도리불숙꽃 당혜를 날출 자로 제법신고, 단순호치 반개하여 웃는 양은 춘풍도리 화개시에 반만 핀 흥련이다.

섬섬옥수로 전라도 진안초에 평안도 삼등초를 설설 펴서 열린 담아 청동화로 백탄 숯불 붙붙여서 춘풍전에 드릴 적에 향내가 진동하니 춘풍이 받아들고 하는 말이,

“나도 경성에 생장하여 청루미색 결연하다가 여기를 내려와서 객회가 적막기로 가련금야 숙창가요, 창가소부 불수빈하라 동작의 생황진을 네 들을소냐.”

하니, 추월이 잠깐 웃고 여쭙오되,

‘원로 경성에서 평안히 오시니까 뒷집에 사처하여 사오 일 유숙하되 어이 그리 더디던고.’

이말 저말 다 버리고 추월이 분부하되 주찬을 차려올 제 국화 새긴 통영반에 주전자 들이놓고, 조로록 엮은 홍합 생선찜 오화당 사탕 굴병 당대추며, 반달 같은 계피떡과 먹기 좋은 꿀합떡과 보기 좋은 화전에 산승웃기로 고여 놓고, 껌끼 우는 생치 들어 정월 만배 영계찜을 곁들이고, 대모 양각 큰 접시에 현초초 전복을 갖추어 곁들이고, 어히 겨자 초장 생청을 틈에 끼워 놓고 청실레 홍실레 벗긴 생울접은 준수 은행 대추 청포도 흑포도며, 머루 다래 유자 석류 감자 능금 참외 수박을 갖추어 왔구나.

병 치레를 볼작시면 벽해상의 거북병과 목 움츠라진 자라병과 만경창과 오리병, 왜화병, 당화병, 일출병일 출병을 갖추어 벌여 놓고, 술 치레를 볼작시면 이태백의 포도주며, 도연명의 국화주며, 안기생의 과하주며, 석달 열흘 백일주며, 소주 황소주 일년주, 계당주, 감홍로, 향기로운 연엽주, 산중처사 송엽주를 갖추 갖추 놓았는데, 노자작 앵무배에 섬섬옥수로 즐즐 풍풍 가득 부어 춘풍에게 드리거늘, 춘풍이 하는 말이,

“평양이 소강남으로 들었으니 권주가나 들어 보세.”

추월이 단순을 반개하여 청가일곡으로 권주가를 부를 적에,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 잔 잡으시오. 백년 삼만 육천 일 살아서도 우락중분 미백년이니 권할 적에 잡으시오. 일생 백년 못살 인생 아니 놀고 어이할까. 이술은 술이 아니라 한무제의 승로반에 이슬받은 것이오니, 쓰나 다나 잡으시오. 역려의 건곤에 초로같은 우리 인생 한 번 돌아가면 뉘라 한 번 먹자오리. 살았을 제 먹사이다.”

춘풍이 받아 먹고 흥에 겨워 노는구나.

“추월 춘풍 연분 맺어 한가지로 놀아 볼까.”

추월이 대답하되,

“이백도홍 유록시에 춘풍도 좋거니와 노백풍청 황국시에 추월이 밝았으니, 춘풍이 좋을씨고. 진실로 그럴 양이면 추월 춘풍 연분 맺어 놀아 볼까.”

춘풍이 추월 두고 차운하였오되,

“아미산 반륜월, 도기영문 양추월, 북당야야 인사월, 동정월, 관산월, 황산릉명월, 오주에 여건월, 이월 삼월뿐이로다. 월백풍청 여차야야에 나는 춘풍 너는 추월 우리들이 배필 되면 천지가 변하기로 풍월이야 변할소냐.”

추월이 대답하되,

“서방님은 월자운을 달았으니 나는 풍자운을 달아 볼까. 수수산에 서북풍, 낙양성에 견추풍, 만국병전 초목풍, 무협장취 만리풍, 양류수사 만강풍, 취적강산 낙원풍, 삼월에 화신평, 동지선달 설한풍, 이제 풍자 풍자 다 버리고 추월 춘풍 배필 되어 대동강이 마르도록 추월이야 변할손가. 좋을씨고 청풍명월 야삼경에 양인심사 양인지라. 화류봉접 좋은 연분 어이 인제 만났는고.”

춘풍이 대희하여 생증장액 수고란 호취개렴 접쌍연이라. 허랑한 이춘풍이 장사에 뜻이 없고 이날부터 이천오백 냥을 마음대로 쓰는구나. 장취불성 맑은 소리로 일삼으며 주야로 노닐거늘 추월이는 수천 냥을 흘리려고 교태하여 이른 말이,

“통한단 쌍문초, 도리불수 능라단, 초록 저고리감만 날 사 주오. 은죽적 금봉채 가진 노리개 날 해 주오. 두리소반 주전자 화로 양푼 대야 날 사 주오. 동래반상, 안성유기 구첩반상 실굽다리 날 사 주오. 요강 타구 새옹 냄비 청동화로 날 사 주오. 백통대 은대 금대 수북 담뱃대 날 사 주오. 문어 전복 편포 안주하게 날 사 주오. 연안배천 상상미로 밥쌀하게 팔아 주오. 동래울산 장곽해의 날 사 주오.”

온가지로 헤어 내니 허랑한 이춘풍이 일호나 사양할까. 수천여 냥 돈을 비밀비재 내어주니 청산유수 아니어든 오렐손가. 일 년이 못 다가서 낭타이 비었구나.

추월의 거동 보소. 춘풍의 재물을 빼앗고 팔시하여 내쫓으니 춘풍의 슬픈 거동 가련하다.

“내 눈에 보기 싫다.”

석경 면경 핵 던지고 생증 내어 구박할 제, 성외성내 한량에게 의논하되 즐경막의 장작인가, 전당집의 은춧댄가, 썩은 나무 박힌 뿌리런가. 이러할 줄 몰랐던가.

“어디로 갈라시오. 노자가 부족하면 한 때나 보태지요.”

돈 한돈 내어주며 바빠 나가라 재촉하니, 춘풍의 거동 보소.

분한 마음 폭발하여 추월더러 하는 말이,

“우리들이 갓 만나서 원앙금침 마주 누워, 불원상리 굳은 언약 태산같이 언약하여, 대동강이 마르도록 떠나가지 말자더니, 이렇듯 깊은 맹세 농담인가 진정인가. 이제 이 말 웬말인가.”

추월이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 말 좀 들어 보소. 청루물정 몰랐던가. 장난부 이냥청도 동가식 서가속하고, 노류장화는 인개가질이라 평양기생 추월 성식 몰랐던가. 자네가 가져온 돈냥 혼자 먹던가.”

이같이 구박하여 등 밀치며 어서 바빠 가라 하니, 춘풍이 분한 중에 탄식하며 전면 기둥 비켜서서 이리저리 생각하니 한심하고 가련하다.

집으로 가자 하니 무면 도강동이요, 처자도 부끄럽고, 또한 막중 호조 돈 이천 냥을 내어다가 한푼 없이 돌아가면, 금부옥에 가두고 주장대로 지르면 속절없이 죽겠으니 서울로도 못 가겠고, 불원천리 가자 하되 노자 한 푼 없으니 그도 또한 못 하겠다. 이를 장차 어찌하리. 이럴 줄 몰랐던가. 후회막급 창연하다. 대동강 깊은 물에 풍덩 빠져 죽자 하니, 그도 차마 못 하겠고, 석자 세치 지자수건 목을 매어 죽자 하니 이도 차마 못 하겠네. 답답한 이내 일을 어찌하면 옳단 말고.

평양성 내 걸인 되어 이집 저집 빌자 하니, 노소인민 아동주족 이놈 저놈 꾸짖으니 걸시고 못하리라. 어디로 가잔 말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추월 앞에 나가 앉아 잔생이 비는 말이,

“추월아 추월아. 내 말 잠깐 들어 보라. 우리 조선이 인정지국이거든 어찌 그리 박절한가. 날 살리게 날 살리게. 내가 자네 집에 도로 있어 물이나 길고 불 사환이나 하고 있으면 어떠할꼬.”

추월이 거동 보소. 눈을 흘겨보면서,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전 행실을 못 고치고 ‘하계’ 소리하려면 내집 다시 오지 마소.”

이렇듯이 구박하니 춘풍이 하릴 없이 ‘아가씨’ 말이 저로 나고 존대가 절로 난다.

춘풍이 이날부터 추월의 집 사환하는 일, 생불여사라 가련하다.

누더기 차림으로 이리저리 다닐 저게 거동 불작시면 종로의 상거지라. 조석 먹는 거동 보면, 이빠진 현 사발에 누른밥에 토장덩이 제격이라. 수저도 없이 뜰 아래나 부엌에서 먹는 거동, 제 신세 스스로 생각하니 목이 매어 못 먹겠네.

주야로 한량들은 청산에 구름 모이듯 수록재에 노승 되듯, 개성부에 장사 모이듯, 추월의 집으로 모여와서 온갖 희롱 다 하면서, 좋은 술별 안주에 배반이 낭자하며 청가일곡 화답하여 한창 이리 노닐 적에 이 때 춘풍의 거동 보소. 뜰 아래서 방안을 엿보니 눈에는 풍년이요, 입에는 흉년이라. 제 신세를 생각하고 노래하되,

“세상사 가소롭다. 나도 경성 장부로 왈자벗님 취담하여 청루미색 가무중에 수만 금을 허비하고, 또 왜시골 내려와서 주인을 작첩하여 불원상리 하잖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세상사 가소롭다.”

이 때는 엄동이라 일락서산하고 바람은 솔솔하고 월색은 조용한데,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내 전정을 들어 보고 내 고향에 전하여라. 우리 처자 그리워라. 나를 그려 죽었는가 말았는가. 이리저리 생각하니 대장부 일촌간장 붉은 슬 듯 하는구나. 그런 정 저런 정 다 버리고 전에 하던 가사나 하여 보세.”

매화타령을 한다.

“매화야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온다. 피엄즉도 하다마는 백설이 분분하니 필지 말지, 어화 세상사 가소롭다.”

이 때 추월의 방에 놀던 한량들이 노래를 듣고 의심하니 추월이 무색하여 하는 말이,

“내 집의 사환하는 놈이, 서울 이춘풍이라 하는 놈이 소리를 하니 신청치 마소서.”

한량들이 이 말 듣고 하는 말이,

“서울 산다 하니 불쌍하다.” 하고 술 한 잔 잔 가득 부어 주니, 춘풍이 갈지우갈하여 받아먹으니 가련하더라.

각설 이 때 춘풍의 처, 가장을 이별하고 백 가지로 생각하며 주야로 탄식하는 말이,

“멀고 멀은 큰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히 돌아오기 천만 축수 기다리오.”

하되 춘풍이 아니 오고 풍편에 오는 말이 서울 사는 이춘풍이 평양 장사 내려가서 추월을 작첩하여 호강으로 노닐다가, 수천 금 재물 다 없애고서 추월에게 구박맞아 사환한단 말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말이,

“애고 애고 이 말이 웬말이고. 슬프다. 가장 나와 같이 만났건만, 어이 그리 허량하고. 청루미색에 한번 치패도 어렵거든 천리타향에 막중국전을 대돈변으로 내어 가지고, 또 낭패하단 말가. 애고 답답스런지고, 뉘를 바라고 산단 말가. 전생에 무슨 죄로 여자가 되어 나서 가장 한번 잘 못 만나 평생 고생하는구나. 이내 팔자 이렇도록 되었는데.”

어찌하여 사잔 말가. 박명한 이내 팔자 도망하기 어렵도다. 종남산 다다라서 물명주 질긴 수건 한 끝은 나무에 매고 한 끝은 목에 매어 죽고지고. 여자가 되어 나서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염마국 십전대왕 아귀사자 빨리 보내어 내 목숨을 잡아가오.”

이를 갈며 하는 말이,

“평양을 찾아가서 추월의 집 찾아 불문곡직 달려들어 추월의 머리채를 잡아쥐고, 춘풍에게 달려들어 허리띠에목을 매어 죽으리라.”

악을 내어 울다가 도로 고쳐 생각하되,

“이리도 못 하리라. 어이하야 사잔 말가. 내 가장을 경성으로 데려다가 살리재도 어찌하리요. 아무리 생각하여도 할 수가 전혀 없다. 소년에 꽤가하여 일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야로 품을 팔아 전곡 빛을 갚은 후에 의식 걱정 아니 하고 우리 양주 백년화락하겠더니, 원수로다, 평양 장사 원수로다.”

이렇듯이 지내는데 뒷집의 참판 댁이 있어, 노대감은 돌아가고 만자제 문장으로 소년급제하여 갖은 청환 다 지내고 참판으로 근년에 평양감사 부망으로 불구에 평양 감사 한단 말 듣고 춘풍의 처 계교를 생각터니, 그 댁이 빈한하여 국록을 타서 수

다식구 사는 중에, 그 대부인 있던 말을 듣고 침재품을 얻으려고 그 댁에 들어가니, 후원 별당 깊은 곳에 참판의 대부인이 평상에 누워 행세 가난키로 식사도 부실하고 초췌하다.

춘풍 아내 생각하되 이 댁에 부치어서 가장을 살려 내고 추월을 설치하여 보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침재품을 힘써 팔아 얻은 돈냥 다 들여서 참판 댁 대부인 조석 진지 차려 가니, 부인이 이외에 때마다 받아먹고 감지덕지하여 생각하되,

‘이 깊은 은혜를 어찌할꼬.’

주야로 근심하더니, 하루는 춘풍의 처더러 이른 말이,

“네가 형세도 어렵고 침재품으로 살아간다 하는데, 날마다 차담상을 지어오니 먹기는 좋다마는 도리어 불안하다.”

춘풍 아내 여쭙오되,

“소녀집에 음식 있어 혼자 먹기 어렵삼기로, 마무랫님 잡수실까 하와 드린 것이옵나니 황송하여이다.”

대부인이 이 말 듣고 매일 사랑하고 기특히 여겨, 못내 생각하시더라.

하루는 참판 영감 문안하고 여쭙오되,

“요사이 무슨 좋은 이리 계신지 화기 만안하시닛까?”

대부인 말씀하되,

“앞집의 춘풍의 처가 좋은 음식 차담상을 연일 차려오니 내기운 절로 나고, 그 계집의 정성 감격하다.”

참판이 이 말 듣고, 춘풍의 처를 청하여 보고 치사하니 더욱 기특히 보고 매일 사랑하더라.

천만의외의 참판 영감이 평양 감사를 하였구나. 회회낙락 즐길 적에, 춘풍의 처 대부인께 온공히 여쭙오되,

“이번에 천은으로 평양 감사하셨으니 이런 경사 없사이다.”

대부인이 말씀하되,

“나 평양가려 하니, 너도 함께 내려가서 춘풍이도 찾아 보고 구경이나 하는 것이 어떠하뇨?”

춘풍의 처 여쭙오되,

“소녀는 고사하고 오래비 있사오니, 비장 한 몫 주십시오.”

대부인 이 말 듣고,

“네 청이야 아니 들을소냐?”

하고 감사께 통기하니, 감사 허락하고,

“제가 비장할 양이면 바빠 거행하라.”

하니, 춘풍의 처, 없는 오래비 있다 하고, 제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상 벗어 놓고 남자 의복 치장한다.

외울 망전 대모관자 당줄 놀라 질끈 쓰고, 깨알 같은 제주탕 건, 삼백선돌임 계양태 제모립에 엮돈 오피짜리 은귀 영자 산호격자 두 귀 밑에 달아놓고 통해전의 삼승 버선, 쌍코 신에 쥐눈징을 다문다문 그어서 맵시있게 지어 신고, 양색단 웃저고리 자개묘초 양등거리, 양피두루마기 희천주 겹 창의에 갑사쾌자 장패띠로 용량을 눌러 띠고 서피 돈피만 선두리 두 귀 담썩 눌러쓰고 대모장도 내외고름 비껴 차고, 소상반죽 왜 금선을 이궁전선 초달과 한삼소매 늘어지게 쥐고 흐늘흐늘 걸어가는 거동 황홀한 귀남자라.

감사 댁에 들어가서 하인을 단속하고, 황혼을 기다려서 차담상 별로 차려 대부인께 드릴 적에 복지하여 여쭙오되,

“춘풍의 처 문안드리나이다.”

부인이 경악하여 말하되,

“춘풍의 처면 남북은 무슨 일인고.”

비장이 여쭙오되,

“소녀 지아비 방탕하여 청루에 외입하여 두세 번 패가하고, 호조돈 이천냥을 대돈변으로 얻어 내어 평양 장사 가서 추월을 작첩하여 주야로 즐기다가, 이천오백 냥 돈을 달리 한푼 아니 쓰고, 추월에게 다 없애고 추월의 집 사환 되었다 하옵기로 소녀의 마음이 매양 절통하옵더니, 천행에 사또 덕택으로 비장이 되어 내려가서 추월도 설치하고 호조돈 수쇄하고 지아비 다려다가 백년동거하게 되면 마누랫님 덕택이니 의심없이 하옵소서.”

대부인 청필에 크게 웃어 말하기를,

“네 말이 그러하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소원대로 하여 주마.”

이 때 마침 감사 안에 들어오다가 이 거동 보고, 대노하여 호령하되,

“이 놈이 어떤 놈이관대 임의로 대청에 출입하니, 저 놈을 바빠 결박하라.”

천둥같이 분부하니, 대부인이 웃으며 감사더러 춘풍의 처 소관사를 자세히 이르시니, 감사 대소하고 당장에 불러들여 기특하다 칭찬하고 좌우를 불러 구외불출하라 하고, 삼일 잔치 연 후에 현신하니 감사 하나밖에 다 초면이라. 수군수군하는 말이,

“회계 비장 잘도 났다마는, 수염이 없으니 그것이 흠이로다.”

뉘 아니 칭찬하리요.

명일 발행하여 떠날 적에 기구도 찬란하고 위엄도 엄숙하다. 빛좋은 백마등에 쌍교 독교 사인교며, 좌우청장 호강 있게 내려갈 제, 전배비장 후배비장 책방까지 치레하고, 호피 돋움 높이 타고 금선의 이군전은 일광을 가리우고 평양을 내려갈 제, 호사도 장할씨고. 이방 호방 예방 수배 인배 통인 관노역마부며 각청 방자 군노 나장이 좌우에 늘어서서 홍제원을 바라보고, 구과발 막 솟돌고개 열른 넘어 파주읍에 숙소하고 임진강 다다라서 전후창병 둘러보니 보던 바 제일이라.

임술치후 칠월기망에 소자침 놀던 적벽강산 수환경 여기저기 구경하고, 동파역 열른 지나 장단읍에 중화하고 취석교 건너가서 소파 가서 숙소하고, 청석골 다다라서 좌우 산천 구경하니 벽제 소리 권마성에 산천이 다 울린다.

금천읍에 중화하고 도저울 지나서서 웃고개 엄어서니 평산 땅이라. 앞고개 넘어서서 태백산성 바라보고 남청역에 말을 먹여 충수관에 숙소하고, 홍주원 다다라서 병풍바위 말을 몰아 구월산에 다다르니 산세도 기묘하다.

봉산읍에 중화하고 동선령 넘어서서 정방산성 바라보니 좌우 산성 경계 좋다. 수목이 우거지고 비금은 날아들고 취타 소리 더욱 좋다. 황주병영 숙소하고, 진동에 말을 몰아 중화읍에 숙소하고 형제교를 다다르니, 영본부 관수들이 읍정에 지대하여 도입차로 들어간다.

작대 대소관 현신하고 전배비장 후배비장 전후로 피하는데 천총 파총이 장대하여 군문에 늘어서서 좌청룡 우백호에 동서

남북 청홍흑백 어즈러이 늘어섰고, 길 나장군 악대 새면치는 소리 산천을 진동하고 육각 풍류 취타 소리 더욱 좋다.

아름다운 미색들은 녹의홍상으로 좌우에 늘어섰고, 전배 후배 비장들은 좋은 말에 높이 앉아 법제 있게 들어갈 제 장임을 다 지나서 대동강변 다다르니 녹수청과 두교산은 적병강 큰 싸움에 방사원의 연환계로 육지같이 모았는데, 대동문 들어갈 제 전후 좌우 구경꾼은 성지 위가 무너질 듯 초성루를 지나 객사에 현알하고, 문에 들어가서 선화당에 좌기하고 방포삼성 후에, 백여 명 기생들이 날날이 현신한다. 사또 분부하되,

“비장 책방 다 현신하라.”하더라.

하루는 사또께서 회계 비장더러 농담으로 조롱하되,

“각처 비장 책방까지 수청을 두었으되, 자네는 어이하여 평양 같은 물색에 독수공방한다 하니 그 말이 참말인가?”

회계 비장 여짜오되,

“소인은 소첩으로 사오 년을 단방하와 색에 뜻이 없나이다.”

회계 비장 숨은 회포 사또밖에 뉘 알손가. 기특히 여기더라. 백사 더욱 진실하고 사또 날로 사랑하여 일마다 미루어 맡기어 수삼 삭에 수만 냥을 상급하니 뉘 아니 칭찬하리.

이 때 회계 비장이 춘풍추월의 일을 염탐하여 자세히 듣고, 하루는 비장이 추월의 집을 찾아갈 제 사또께 귓속하고, 그 년의 집 찾아가서 중문에 들어가니, 물통 진 춘풍 저 늙 형용도 참혹하고 모양도 가련하다. 봉두난발 험수룩한 늙 낫조차 못 씻던가, 추잡하기 그지없다.

삼 년이나 아니 뻥 옷 주루룩이 누덕여서 엷어입고 앓은 것이 제 서방인 줄 알았으되, 춘풍이야 제 아내인 줄 어찌 알랴. 비장이 슬프고 분한 마음 서려 담고 추월의 방에 들어가서 간사한 추월이 회계 비장 또 흘리려고 교태하여 수작하다가 각별히 차담상을 만반진수로 차려 드리거늘, 비장이 약간 먹는 체하고 사환하는 걸인을 내어주며,

“불쌍하다. 네가 본디 걸인이냐? 네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느냐?”

춘풍이 엷드려 크게 말하기를,

“소인도 경성 사람으로 이리 온 사정이야 어찌 다 여짜오리까? 나으리 잡수시던 차담상을 소인 같은 천한 몸을 주시니 은혜 감사무지하여이다.”

비장이 미소하고 처소에 돌아와서 수일 후에 사령을 불러 분부하되, 춘풍을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이 늙 네 들으라. 네가 이춘풍이냐?”

춘풍이 대답하되,

“과연 그러하오이다.”

“막중 호조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푼 상납 아니하니, 호조관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가. 매우 치라.”

분부하니, 사령놈이 매를 들고 심여 개를 중타하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었느냐? 바로 아뢰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일푼

도 남지 않고, 달리 한푼 쓴 일 없삽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 골라 잡고,

“일분도 사정 없이 매우 치라.”

호령하여 심여 장을 중치하고,

“이 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요. 막중 호조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랴, 본부에서 물어주랴?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주장대로 지르면서,

“바빠 다짐하라.”

50대를 중히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질 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이 지중하고 관령이 지엄하니, 영문 분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비장이 이르되,

“호조에 관자하여 너를 죽이라 하였으되, 네가 먼저 죄를 알고 돈을 무수히 바치마 하니 그런 고로 너를 살리나니 호조돈을 지체 말고 오천 냥을 바치라.”

하니 추월이 여쭙오되,

“십일 말미만 주시면 오천 냥을 바치리다.”

다짐 * 써 올리니, 춘풍과 추월을 형틀에서 내려놓고 춘풍더러 이르되,

“십일 내에 오천 냥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내가 유고하여 먼저 올라가니 내 뒤를 미처 올라와 집을 찾아오라.”

하니, 춘풍이 황황하여 아뢰되,

“나으리 덕택으로 호조돈을 다 수쇄하오니 은혜 백골난망이 로소이다. 서울 가서 댁에 먼저 문안하오리다.”

하고 여쭙더라.

비장이 사또께 여쭙오되,

“추월 설치하고 춘풍도 찻삽고 호조돈도 수쇄하오니, 은혜 감측무지하온 중 소인 몸이 외람되이 존중한 처소에 오래 있삽기 죄송하와 떠날 줄로 아뢰나이다.”

감사 그러히 여겨 허락하니, 이튿날 감사께 하직하고 상급한 돈 오만 냥을 환전 부쳐놓고, 떠나서 여러 날 만에 집에 와 정돈 보고 환전도 찾은 후 남북은 벗어 놓고 춘풍 오기 기다리더라.

이 때 사또 평양 비장에게 회계 비장을 겸하고 분부하여 추월을 잡아들여 돈 오천 냥 바치라 하시니 뉘 영이라 거역할까? 성화같이 재촉하여 불일 내에 받아가니 춘풍이 비장덕에 돈받아 실어놓고 갓 망건 의복 치레하여 운안준마 놓이 타고 경성을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가니, 이 때 춘풍의 처 문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히오시닛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 새 잘 있던가?”

춘풍이 이십 바리 돈을 여기저기 벌이고 장사에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주찬을 소담히 차려 놓고,
"자시오."

하니 저 잡놈 거동 보소 없던 교태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으며,
"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장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을 그릇에 던져박고 고기도 씹어 뱉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냈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피다. 호조돈이나 다집하고 약간 전량을 수쇄하여 전 주인에게 환전 부치고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 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시에 밖에 나가 비장 복색 다시 하고, 오동수복 화간죽을 한발이나 빼쳐 물고 대문 안에 들어서서 기침하고,

"춘풍아, 왔느냐?"

춘풍이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받아주던 회계 비장이라. 춘풍이 황겁하여 버선발로 뛰어 내달아 복지하여 여쭙으며,

"소인이 오늘 와서 날이 저물어 명일에 댁 문안코자 하옵더니, 나으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만만하외다."

"내 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 듣고 네 집에 잠깐 들렀노라."

방 안 에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안방인들 어찌 들어올까? 문 밖에 섰노라니,

"춘풍아, 들어와서 말이나 하여라."

"나으리 좌정하신 데를 감히 들어가오리까?"

"잔말 말고 들어오라."

춘풍이 마지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가로되,

"그 때 추월에게 돈을 진작 받았느냐?"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오천 냥을 일조에 다 받았사오니, 그 덕택이 태산 같사이다."

"그 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이로소이다. 어찌 아프다 하리이까?"

"네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을 들이거늘 비장이 꾸짖어 말하되,

"네 계집은 어디 가고 네게 일을 시키느냐? 네 계집 불러 술 준비 못 시킬까?"

춘풍이 황겁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소냐? 들며나며 찾아도 무가내라 제 손수 거행하니 한두 잔 먹은 후에 취담으로 하는 말이,

"네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할 제 형영도 참혹하고 걸인 중상거지라, 추월의 하인 되어 봉두난발 현 누더기 감발버선 어떨더냐?"

춘풍이 부끄러워 제 계집이 문 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만,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어찌 막을손가. 좌불안석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비장 말하되,

"남산 밑 박승지 댁에 갔다가 술이 대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

장도 하거니와, 해갈이나 하게 갈분이나 한 그릇 하여 오너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계집을 찾은들 어디간 줄 알리요. 주적주적하더라.

비장이 꾸짖어 말하기를,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차왈피왈하니,

"너는 벌써 잊었느냐?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내가 집에 왔다고 그리 체중한 체하느냐?"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주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더라. 한참 꿈적여서 쭈어들어거늘, 비장이 조금 먹는 체하고 춘풍을 주며,

"먹으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현 사발에 누른밥 토장덩이에 이지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먹으라."

춘풍이 받아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말하되,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 벗고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을 못하고 속마음으로 해포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까 하였더니,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관망탕건 벗어 놓고 웃옷을 훨훨 벗은 후 일어서니 완전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분명한 제 겨집이라. 춘풍이 어이없이 묵묵 무언 앓았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며,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손을 마주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회계 비장으로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생신가 꿈인가, 태중인가, 귀신이 내 눈을 어리어 이러한가?" 하며 과정이 부합하여 원앙금침에 구정을 다시 이뤄 은근한 정이 비 할 데 없더라. 춘풍 하는 말이,

"어떻게 평양 비장으로 내려왔으며, 또 내가 아무리 잘못하였기로 가장을 형틀에 올려매고 불기를 친들 그다지 몹시 치니 그 때 자네 마음이 상쾌하던가?"

하니 춘풍 아내 말하기를,

"그 때 자청하여 일꾼전 일두속을 불부착수할 뜻으로 맹세하고 수기를 써서 내 함롱에 넣어놓고, 무슨 미친 마음으로 호조돈 수천 냥을 내어가지고 평양 장사 갈 제 말린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계도 한푼 없이 거지 꼴 되었으나, 그 후 저는 참판 댁과 친근하여 참판 댁 대부인께 침제품 판돈으로 차담상을 자주 차려 정성으로 대접하고 비장으로 내려갈 제는 임자를 보게 되면 반만 죽이려 하였더니 만나 보니 차마 불쌍하여 더 치지 못하고 용서하였거던, 사오 년 내 고생하던 생각하면 그 때 맞던 매가 깨소금이오."

하더라. 내외가 서로 웃고 전후사를 서로 타이르며 호조돈을 다 수보하고 춘풍이 개과하여 주색잡기 전폐하고, 치가를 일삼아 형세도 요부하고 유자생녀하고, 감사기 과만하여 올라온 후 안팎없이 다니며 평생 신을 끊지 않고 대대손손이 섬기더라. 이에 춘풍의 아내를 여중호걸이라 하더라.

[현대소설 01]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 수능특강 15쪽 -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마 내가 돈을 백만 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구, 이 망할 놈의 똥 냄새, 여리가 싸 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마.”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병글병글 웃으면서.

“만그이가 있었으모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그이가 도대체 어데 갔노.”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 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동의 분노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동의 분노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폼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 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살아온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

“만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화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그이도 알 낀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지 않으면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쉬 뒤에 “마안 — 그은”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 분(번), 째 원(십 원), 여 끈(열 근), 팔 푼, 두 바리(마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바안 — 그은”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 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리는 황씨들이 오십여 호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2년 전에 귀농한 민 씨 같은 타성까지는 황씨 집안에 데릴사위로 들어온 노 씨를 포함 전체에서 두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新垔), 새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때 이미 그를 배고 있었는데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항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 줄 사람이 없어 집에서 우러러보이는 산, 만근산(萬根山)에서 이름을 받았다. 만근산은 신대 1리에서 3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둘러 있는 천곡지(千谷池)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흘러져 사는 사람 들을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이다.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백 분’은 무엇을 이름인가. 황만근이 땅바닥에 넘어진 횃수가 백 번임을 말한다. 황만근은 어릴 때 터 유난히 자주 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말대로 ‘꼴’, 곧 자주 아는 척하는 윗마을 황학수의 말마따나 평형 감각을 관장하는 소뇌가 미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툭, 소리가 나면 흥시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황만근이 넘어지는 소리라고 여겼다. 누군가 황만근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넘어지는지 세어 보라고 했다. 기왕 넘어지는 거 쟈 공부나 하라는 충고였겠다. 저녁때 어린 황만근에게 몇 번 넘어졌는가 물으면 황만근은 손가락을 꼽고 발가락을 꼬고 무릎과 허리까지 배배 파 가며 용을 썼다. 그런데 황만근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물음에 명쾌하게 ‘백 분’이라고 대답했다. 하루에 백 번, 한 달에 백 번, 일 년에 백 번, 평생 백 번. 백은 황만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다.

‘째 원’은 면사무소가 있는 봉대 장터의 국수 가게 주인이 보태 준 별명이다. 어느 날 열서너 살 난 더 벅머리 황만근이 국수를 사러 와서는 가게 문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꼭짜 째 원 어찌만 쪼요.” 국수 장 수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황만근은 신중하게 손가락을 헤아리더니 다시 ‘꼭짜’라고 하면서 가게 주변이 온통 환하도록 널리 마르고 있는 국수 가닥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째 원’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 말을 그의 손에 들린 십 원짜리 지폐를 보고 겨우 알아들었다. 어린 시절 황만근은 혀가 짧았던 것이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제]

이 작품은 1990년대 후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소박하고 우직한 인물인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을 그린 소설이다. 마을 사람들은 굶은일에도 열성을 다하는 황만근을 바보로 취급하지만, 작가는 오히려 황만근과 대조적인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풍자한다. 현대인들의 메말라 가는 인정을 풍자하고 암울한 농촌 현실을 고발한 이 소설은 향토적인 방언의 사용과 해학적 문체가 두드러진다.

[주제]

관용과 도량을 가진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황만근이 실종된 것을 안 마을 사람들과 민 씨는 황만근의 집에 모이게 된다. 그러나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민 씨뿐, 다른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황만근은 어렸을 때 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우스꽝스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을의 굿 은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하고 바른 인물이다. 그런 황만근에게 이 장은 농민 총궐기 대회 전날,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것을 지시하고, 황만근은 밤에 경운기를 타고 군청으로 향한다. 황만근은 궐기 대회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마을로 돌아오던 길에 차와 부딪쳐 사고가 나고, 결국 동사하게 된다. 민 씨는 황만근의 됃됨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묘지명을 쓰고 서울로 돌아간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전문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열두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 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분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재석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계서 나서 사는 동안 한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깨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심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를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궐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궐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밋밍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있다는 기 백밍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근만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궐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궐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

이 황만근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궐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축구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야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라. 백릿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세, 그 자리에 꼭 황만근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술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점검 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미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다.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고 온 사람도 밋 없더마. 소리마 밋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쾌이맨구루 썩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썩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싸. 누구맨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이 자숙이 뉘 앞에서 눈까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뻑뻑 질러썰노. 도시에서 쫓딱 망해가고 귀농을 했시모 암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줄까 말까 한데, 뭐라꼬? 내가 만그이 이미냐, 애비냐. 나이 오십 다 된 기 어데를 가든동

오든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리 끌고 따라다니니까?”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민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맞대꾸를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의 환갑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종종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 서 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냈다.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으마,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고여히 고딩어를 먹는다 캐가이고 우리 만근이가, 우리 만그이가 고딩어를 사러 갔다가 이래 안 오는구나야.”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간 날 아침, 아침을 차리던 황만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이장은 그것 보라는 듯이 “반동가리 반그이가 쫄기대회가 아이고 고딩어 사러 갔구마. 효자 났네, 효자 났어” 하고는 허리를 쭉 폈다. 황재석씨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홀어머니 조식을 지극정승으로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리고 공쾌하니, 암만, 효자는 효자지. 천생지효자라” 했다. 그 황만근의 아들인 영호가 덩달아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아이랴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목욕을 하고 오라 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끼랴요. 그런데 면에 있는 목욕탕에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은 안 왔다 카고 ……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가다가 우째 뻘는가도 모르고……”

사람들은 또한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전에 없이 전날 밤 그의 아들 방에서 잠을 잤다. 아들은 시험공부하느라고 친구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변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옷을 벗어 내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덧붙여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던 것이다. 황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으로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쫄기대회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에 갔든가.

“내 평생 반그이가 한번 씻는 걸 못 봤다. 냇가를 가도 샘에를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하는구마. 목욕탕에 우째 가는 줄도 모를 낀데 온천이 여게서 어데라고 지가 찾아가노.”

황규수가 입을 비틀며 웃었다. 민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자신도 황만근에게 쫄기대회장으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 술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객기를 부렸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두어 해 전에야 신대 1리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마 내가 돈을 백만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구, 이 망할놈의 똥냄새, 여리가 싸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마.”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병글병글 웃으면서.

“만그이가 있었으모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그이가 도대체 어데 갔노.”

마을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동 분노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동의 분노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폼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가다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

“만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45)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또는 물어보나마나 명약관화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그이도 알 끼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쉰 뒤에 “마안-그은”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 분(번), 쫄원(십원), 여끈(열 근), 팔 쫄, 두 바리(마리)”(48)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바안-그은”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 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1리는 황씨들이 오십여 호 모여사는 집성촌이다.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같은 타성바지는 황씨 집안에 데릴사위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 전체에서 두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新垔), 새터는 이름을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배고 있었는데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항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집에서 우러러보이는

산, 만근산(萬根山)에서 이름을 받았다. 만근산은 신대 1리에서 3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둘러 있는 천곡지(千谷地)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흘러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이다.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백번’은 무엇을 이름인가. 황만근이 땅바닥에 넘어진 횃수가 백번임을 말한다. 황만근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자주 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말대로 ‘골’, 곧 자주 아는 척하는 윗마을 황학수의 말마따나 평형감각을 관장하는 소뇌가 미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툭, 소리가 나면 흥시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황만근이 넘어지는 소리라고 여겼다. 누군가 황만근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넘어지는지 세어보라고 했다. 기왕 넘어지는 거 셈 공부나 하라는 충고였겠다. 저녁때 어린 황만근에게 몇 번 넘어졌는가 물으면 황만근은 손가락을 꼽고 발가락을 꼬고 무릎과 허리까지 배배 파가며 용을 썼다. 그런데 황만근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물음에 명쾌하게 ‘백분’이라고 대답했다. 하루에 백번, 한달에 백번, 일년에 백번, 평생 백번. 백은 황만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다.

‘찢원’은 면사무소가 있는 봉대 장터의 국숫가게 주인이 보태준 별명이다. 어느날 열서너살 난 더벅머리 황만근이 국수를 사러 와서는 가게 문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꼭찌 찢원어찌만 쪼요.” 국수장수가 무슨 말이나고 물었다. 황만근은 신중하게 손가락을 헤아리더니 다시 ‘꼭찌’라고 하면서 가게 주변이 온통 환하도록 널려 마르고 있는 국숫가닥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찢원’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 말을 그의 손에 들린 십원짜리 지폐를 보고 겨우 알아들었다. 어린시절 황만근은 혀가 짧았던 것이다.

황만근은 나면서부터 물가(전국에서 다섯 번째 깊이라는 천곡 저수지를 인근에서는 이렇게 이른다. 저수지를 자랑하고 싶을 때 담수량이나 넓이라면 모르되 깊이는 따져 무엇 하겠다는 건지, 동네에 처음 들어갔을 무렵 민씨는 알 수가 없었다. 다섯 번째라면, 최소한 전국 다섯 군데 저수지의 깊이를 잴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깊이는 갈수기의 깊이인가, 장마철의 깊이인가, 평균의 깊이인가, 측정 당시의 깊이인가, 최대의 깊이인가, 가운데의 깊이인가. 생각할수록 무한한 함수가 생겨나는 이런 기준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민씨는 알 수가 없었다. 또한 민씨는 그 불투명한 기준에서 첫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에 불과한 것에 어찌서 내세울 만한 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하여튼 그 저수지에 ‘물’이라는 본질적인 이름을 붙이고 그 저수지 주변에 띠처럼 붙어서 만들어진 동네를 대범하게 ‘물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신대리에 산다)의 제일 바깥쪽 동네, 곧 신대1리에서도 제일 바깥의 마을 어귀에 살고 있다.

동네를 집으로 비유하면 황만근의 집은 행랑채에 해당한다. 행랑채가 그렇듯 동네의 다른 집에 비해 황만근의 집은 작고 보잘것없다. 6·25 후에 계곡 입구를 막아 저수지를 완공했으니 마을 대부분의 집은 전쟁 직후에 지은 것이다. 황만근은 그

때 젓먹이였고 아버지는 죽고 없었다. 이웃들은 저마다 각자의 집을 짓느라 바빠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그리고 젓을 빠는 유복자에게 집을 지어줄 만한 여유가 없었다. 수숫단으로 벽을 하고 짚명석으로 바닥을 한 뒤에, 형편이 닿는 대로 나무와 흙으로 조금씩 지어나간 그 집은 계속 덧칠을 한 그림처럼 엉성했다. 세월이 흘러 집꼴은 갖춰졌을망정 지붕이나 방, 문, 마당 할 것 없이 집을 이루는 구성요소란 구성요소는 빠짐없이 늘 손이 가야 형체를 유지했다. 비가 오면 새는 곳을 막아야 했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 눈이 오면 무너질까 걱정, 불을 때면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연기에 눈물을 쏟아야 했다. 집은 온통 때우고 바르고 받쳐놓고 묶어 간신히 붙들어놓은 모양이었으며 어느것 하나라도 모르고 건드리면 일순간 폭삭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도 방이 두 개에 마루 흉내를 낸 널쪽이 앞쪽에 붙어 있는 한일자 형인데 황만근은 집에 있을 때면 늘 그곳에 앉아 있었다. 수십년을 여일하게 집보다 높은 길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밥을 먹을 때면 마루는 상으로 변했고 황만근은 마당으로 내려가 쭈그려앉아 밥을 먹었다. 여름에는 거적매기 같은 이불훔청을 겨울에는 바깥에 비닐을 두르고 마루 아래로 나오는 굴뚝의 온기에 의지해 잠을 잤다. 왜 방을 놔두고 엉덩이 하나 걸치기도 비좁은 마루에, 노상 거적매기 같은 훔청을 깔고 앉아 있느냐 하면, 방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황만근을 ‘반쪽’ 또는 ‘짜레기’로 취급했고 자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다.

“들어올라만 털고 씻고 들어와!”

황만근 자신이 방에 들어 가 자는 것에 낯설어했으므로 들어가서 자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밖에서 자는 게 익숙해져 그런지 방에서 자면 옷을 모두 벗어젖히는 버릇이 있었다. 벗어젖힌 몸에서는 무슨 벌레가 기뢰다 싶어 기어나오는지, 황만근이 자고 간 방에는 살충제를 한통씩 뿌려도 잡히지 않는 벌레가 남는다. 했다. 황만근의 집에 있는 두 개의 방을 하나씩 차지한 사람들은 그의 짧은 어머니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의 아들이었다. 어느날 황만근에게 지나가던 우체부가 집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황만근은 가슴을 펴고 ‘두 마리’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마리’는 가축 같은 짐승이나 곤충의 머릿수를 뜻하는 ‘마리’의 신대리 사투리다. 우체부는 공연히 그 말을 동네방네에 퍼뜨려 황만근을 다시 한번 바보로 만들었다.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체부가 황만근에게 무슨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신문 보는 사람도 없던 시절, 기껏해야 군대간 자식에게서 오는 편지가 뉴스이던 시절,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라도 드라마를 만들어 웃고 싶어했다. 황만근은 가장 그럴듯한 소재였고 배역이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실수나 바보짓도 늘 황만근에게 가탁해서 그를 점점 더 바보로 만들어갔다.

황만근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집안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젊다. 그리고 아주 곱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있으면, 그런 경우가 인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 한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방안에 있고 한 사람은 눈이 노아 바람이 부나 밖에 있으니 말이다. 모자간이 아니라 오누이간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물론 황만근이 오빠로 보인다. 언뜻 봐서는 황만근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다. 늘 입을 벌리고 병글병글 웃는 한가지 표정에 굵은 주름이 이마와 뺨을 종횡으로 가로지르고 있어서 마흔은 확실히 넘었지만 그에 30년을 더한다 해도 통할 수 있다. 그의 어머니는 황만근이 철이 든 후에는 한번도 찬물에 손을 담가보지 않고 대감집 마나님처럼 살아서 그런지 동네의 또래 노인들보다 예닐곱은 적어 보인다.

왜 그렇게 나이 차이가 적은가 하면, 황만근의 어머니가 돈을 받고 팔려와서 열댓살인가에 황만근을 낳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신대리도 하루 네 번식 버스가 들어올 정도로 개명했지만, 전쟁이 있기 전에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아니면 외지 사람을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로 두메였다. 신대리에 나서 살아온 여자들은 때려죽여도, 아니 맞아죽여도 신대리 사람에게는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신대리 총각들은 이십리쯤 떨어진 낙양군 봉대면 면소재지 저갓거리에 가서 '처녀 구함'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서 있다가 그에 반한 녀년간 처녀를 잡아채어 신대리로 돌아오든가, 중간에, 사람을 놓아 험난한 시절 딸을 팔아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처녀를 구해 장가를 갔다. 물론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두고 중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 들어온 처녀를 '민머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름이야 어떻든 그런 경로고 신대리에 들어온 처녀들은 해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게 마련이었다.

신대리에는 처녀가 시집을 오기가 어렵지 오기만 하면 '물'의 깊은 곳에 있는 용왕이 밤마다 찾아와서 틀림없이 아들을 점지해준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신대리의 집집마다 아들이 없는 집이 없었고 그 아들이 자라면 장가 때문에 아버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물'에서 가장 깊은 곳은 저수지가 생기기 전부터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소(沼)가 있었고 그 속에 용궁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 무명실 세 꾸러미를 풀어도 끝이 안 난다고 했다. 물론 용왕은 점지만 해주지 실제로 아들을 갖게 하는 건 신대리 사내다. 만약 용왕이 점지를 넘어 무슨 해괴한 다른 일을 벌였다면, 신대리 사람들이 해마다 대보름에 일 미터가 넘는 얼음을 깨고 색동옷을 입힌 돼지 한 마리씩을 용왕에게 바칠 리가 없을 것이다. 하여튼 황만근의 어머니는 어리고 어린 나이에 팔려오다시피 신대리에 들어왔고 여자로서의 징후가 나타나자마자 신대리가 전사에 기록될 정도로 격전장이 되었다.

황만근의 아버지는 천국 계곡의 양안을 오가는 포탄과 총알의 불빛과 소리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유탄에 맞아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그때 황만근은 어머니 뱃속에서 여덟 달째 머물러 있던 중이었는데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면서 그만 황만근을 아래로 빠뜨리는 바람에 머리가 앞뒤로 긴 '남북 짱구'가 되었고 열달의 십분(十分)에서 두 달이 모자라는 '팔푼'이 되었다고도 한다. 그후로 시어머니, 곧 황만근의 할머

니가 황만근과 그의 어린 어머니를 함께 키웠다. 황만근이 열다섯살이 되던 해, 할머니마저 세상을 버리자 그때부터 황만근이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었는데, 서른 살이 될까 말까 한 젊은 과부는 그때까지 밥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랐고 그후로도 황만근이 있는 한 알 필요가 없었다. 농사를 짓든 비력질을 하든 쌀을 들고 들어오는 것도 황만근이었고 그 쌀을 씻어 솥에 안치고 불을 피우는 것도 황만근, 상에 밥과 반찬을 차려서 먹이라고 갖다주는 것도 황만근, 물린 상을 들고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황만근이었다. 그의 곱고 새파란 어머니는 황만근이 밥과 집에 관련된 일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물려준 곰방대에 담배를 채워 연기를 코로 뿜으면서 황만근이 하는 짓을 물끄러미 건너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황만근의 나이가 차자 군대 징집 영장이 나왔다. 동네는 물론 온 면에서도 알려진 바보라 황만근은 당연히 면제가 되었겠지만, 일단 신체검사와 소집면제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군청이 있는 읍에는 가야 했다. 황만근은 쌀밥을 한술 해서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뒤에 참기름으로 맛을 내어 주먹밥을 만들었다. 주먹밥 몇 덩이는 보자기로 싸서 허리에 차고 나머지는 상 위에 얹어 놓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내 얼릉 갔다올게."

어머니는 쓰다 달다 말도 없이 황만근이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다. 신체검사는 황만근의 생각처럼 얼른 끝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황만근은 입가에 침만 좀 흘렸을 뿐, 또래의 친구들처럼 스무살 남짓한 건강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보였는데, 징집을 감독하러 온 사람들이 이리 뜯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으르고 협박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던 모양이다. 황만근은 결국 셋별이 뜨는 저녁이 되어서야 신체 검사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밤길을 도와 백릿길을 걸어서 어머니가 혼자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던 황만근은 평생을 좌우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당시에는 군청이 있는 읍에서 신대리까지 오는 버스도 없었고 있다 해도 끊어질 시각이라 산길로 오는 게 빨랐는데 네 개의 봉우리를 돌거나 넘어야 했다. 그중 네 번째 고개의 이름은 토끼고개다. 어지간히 다 왔다 싶었는데, 어찌선지 걸어도 걸어도 고갯마루가 나오지 않고 한군데서 맴도는가 싶더니 문득 어둠속에서 털이 눈부시게 하얗고 창날처럼 뻗친 수염과 홍보석처럼 붉은 눈을 가진 토끼가 달려나왔다. 그 날은 그믐 때여서 달빛조차 없었는데 눈부시게 희었다니 그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황만근이 그날의 일을 수백 번도 더 말했지만 처음과 다르게 말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나저나 토끼가 너무 컸다. 토끼의 귀가 황만근의 머리보다 더 높이 솟아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토끼는 입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했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토끼의 입술이 갈라진 사이로 황만근의 엄지손가락만한 날카로운 이가 반짝였다. 무슨 불빛이 있어서 반짝이기까지 했느냐고, 초봄이라 토끼고개에는 눈이 채 녹지 않고 있었다. 하다못

해 별빛에라도.

“그기 뭐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꼬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마 썩 물러가고 토끼마 착 었디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고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번도 말아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간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쭈욱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었다(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영계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하고 말했다.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이서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앉아서 먹어치울 끼다. 니 가죽을 빗기서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끼다. 니는 인자 죽었다, 자숙아”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오자 할말이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짓 거는 못 간다” 하고 말했다.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무이가 팔죽 할마이겘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팔죽 할마이란 팔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팔죽을 쭈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여우 걸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냐?”

“떡두께(떡두꺼비) 걸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니가 가뿌리만 되지, 바보자숙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찢찢매다가 간신히 떠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황만근은 제대로 숨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동네 곳곳의 닭들이 헛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방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안에 들어가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다.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버렸다. 그러면서 “카악!”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끼이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니는 꽤 앓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뜰녘에 닭이 울길래 밥 한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히서 죽을 뻔했다. 움직있다가는 더 맥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하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걸은 놈의 자숙아, 와 밥만 해놓고 물은 안 떠다놔나!”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어 물을 뜨러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종일 수십번 되풀이되었고 종내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송편을 세 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세 해가 흐른 뒤에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 처녀는 이웃 군에서 농기계상을 하는 사람의 수양딸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자살을 하러 ‘물’에 들어갔다. 기왕 물에 빠지려면 인적이 없는 곳에 빠지는 게 좋았겠지만, 죽으려는 마음이 급해서 동네 어귀에 들자마자 곧바로 물에 몸을 던졌다. 그런데 동네 어귀, 길 아래 물가에 조그만 집 마루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늘 바깥을 내다보는 눈이 있음을 몰랐다. 그 눈의 주인은 처녀의 허리가 물에 들어가는 중에 뒤에서 “짹짹, 짹!” 하고 뛰어왔다. 그러고는 허 짧은 소리로 무슨 말인지를 했는데 처녀는 알아듣지를 못했다. 처녀를 건져낸 황만근은 “빨개동이맨 쭈로물에서모옥하마우엄하고미기잡아여” 하는 중얼거림을 수십 번은 되풀이했다. 요지인 즉 ‘어린이처럼 저수지에서 먹을 감으면 목숨을 버릴지도 모르고 더불어 옷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황만근의 집에 끌려온 처녀는 황만근의 어머니가 내준 옷으로 갈아입고 황만근의 어머니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냈다. 그러고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황만근의 집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 어쩌면 그 무렵이 황만근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였는지도 모른다.

처녀는 농기계상의 딸답게, 아니 황만근으로 하여금 동네 최고로 경운기라는 농기계를 동네에 들여오게 함으로써 농기계상

의 딸이라는 말이 돌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황만근에게 경운기 모는 법을 가르쳤다. 그 덕분에 황만근은 더 이상 길에서 넘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황만근은 일곱 달 동안 경운기 조종법, 간단한 수리, 구조에 대해 배웠고 경운기에 대해선 동네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긴 그 일곱 달 동안 동네에서 경운기를 가진 사람이 황만근밖에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경운기 덕분에 황만근은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이 먼저 옷깃을 잡아당기려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았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운기를 몰기 전까지 황만근은 황씨 문중의 종답 세 마지기를 얻어 벼농사를 짓는 외에, 동네 머슴으로 갖가지 굶은일을 다했다. 모내기나 추수 때처럼 품앗이를 할 때는 아이나 여자처럼 장정의 반밖에 안되는 품으로 취급받아 제값을 받으려면 남들의 두 배 되는 시간 동안 일을 해주어야 했다. 그런데 경운기가 들어옴으로써 어엿한 농꾼으로서, 아니 다른 집에 경운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사람 이상의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처녀가 용왕 사는 쪼(沼) 있는 천곡에 오기가 힘들어 그렇지 일단 오기만 하면 용왕은 최단시간에 백발백중 아들을 점지한다’는 전설대로 일곱 달도 지나지 않아 처녀는 아이를 낳았다. 당연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녀가 어떤 연고로 황만근에게 시집을 왔는지 황만근은 물론 처녀나 시어머니 모두 입을 열지 않았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처녀의 친정에서 사람이 찾아올 리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동네 사람들이 처녀가 집을 나온 전말을 샅샅이 알게 되었던데다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져서 황만근이 없는 데서는 애깃거리가 그것뿐인 듯했다. 이웃군의 변화한 읍에 있는 농기계상의 수양딸이던 처녀는 친척에게 몸을 버렸는데 그 친척은 집안의 삼대독자였으며 자폭적으로 군대에 가서 지뢰매설공사를 하다 지뢰가 터져서 죽었다. 처녀는 나가 죽으라는 온 집안의 저주를 받고 집을 나왔다가 황만근에게 구해져서 함께 살게 되었으며 아기는 죽은 친척의 씨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처녀의 귀에 들려서였을까. 처녀는 아이를 낳은 지 삼칠일이 되던 날, 온다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처녀는 여전히 처녀였다. 총각 황만근은 아들을 강보에 싸안고 젓동냥을 하러 신대1리에서 3리까지 매일 돌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동네 아이들은 황만근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놀려댔다.

“만근아, 만근아, 네 등에 지고 가는게 뭐라?”

“아들이다.”

“누구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토끼가 똥나?”

“아이다, 내 해다(내 것이다, 또는 혀 짧은 말로 내가 해서 낳았다고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땃근이라?”

“여쁜(열 근, 혹은 여섯 근).”

아이는 몸무게가 열 근이 넘어서도 아버지에게 업히거나 아버지의 경운기에 실려다니며 사람과 소의 젖을 얻어먹었다. 집에 있는 아이의 할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손 하나 까딱할 리 없었다. 모든 건 황만근의 책임이었고 일이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릴 때 젖을 꿀아서인지 유난히 식탐이 많았고 고집불통이었다. 친구가 없는 아이는 동네의 어떤 아이보다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 모두 황만근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만들어준 것이었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끼에 두 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짚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丁)의업(業)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 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지킬 줄 알았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禮)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山役)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길 풀깎기, 도랑 청소, 공동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 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움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굶은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댓가는 없거나(동네 일인 경우), 반값이거나(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 제값이면(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공치사가 따랐다.

“만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데 인정없는 대 처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게 상 쟁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황만근은 황재석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병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

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의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열 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 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쳐 썼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다만 황만근은 술을 좋아했는데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다. 어쩌다 동네에 애경사가 있어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고푸라지도록 마셨다. 고푸라진 그를 때때로 집에 데려다 뉘어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동네 사람들이 몰인정하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몸에 배면 솔에 넣고 삶아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어서 때때기를 싫어했다. 마당이나 길섶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다.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면 길에서 얼어죽을지도 몰라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 탄압과 만류를 무릅쓰고 반드시 고푸라지도록 마셨으며 역시 취해서 마당에 쓰러졌다. 그래서 황만근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데려오는 게 일이 되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단련이 되었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며 올 수도 있게 되었다.

민씨는 어느 겨울날 신대 2리의 환갑잔치에 갔다가 얻어마신 낮술에 취해 일찍 집에 돌아왔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깨니 어느새 밤의 어스름이 장년의 머리에 내린 서리처럼 서럽게 내려와 있었다. 느닷없이 찾아든 정한(情恨)에 힘이 빠진 민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때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닿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민씨는 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아버지야, 인마, 퍼뜩 일어나라.”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다.

“쪼매만 더 앉아 있지. 내 니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안카나.”

그것은 마흔을 넘긴 사내의 어리광 같았다.

“너는 우째 맨날 술로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고마 밥맛이 없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들님, 내 잘못했다. 한분만 봐조라.”

“니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 제발 체면 좀 지키라. 시범(수염)만 어른이가. 내가 창피해 죽겠다.”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마 그마이지. 남 쳐다볼 기 뭐 있노. 하이고. 그런데 와 자꾸 눈이 깜기까.”

“니 자꾸 이카마 할매한테 일라준다. 할매 부르까, 영?”

“하이고, 제가 고마 크게 잘못했습니다. 아들님요, 일어나세요. 제발 어무이만 부르지 마소.”

그리고 벽에 쿵쿵 하고 머리를 부딪는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이인삼각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민씨는 그

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그 부자가 삼강오륜을 모르는 별종인가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을 한 건가 하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뒤 어쩌다 민씨가 소년과 만나게 되었을 때, 민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저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이었다. 하여튼 민씨는 그 일 이후로 그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황만근의 주량은 실로 컸다. 그는 경운기 짐칸에 늘 한말짜리 술통을 끈으로 묶어 싣고 다녔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술통에는 늘 술을 채워 두었다. 그는 밥을 먹기 전에 지름이 자신의 얼굴만한 양은그릇에 막걸리를 한 양푼 부어 반을 마시고 밥을 먹은 뒤에 나머지를 소리도 맛있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들일을 나가는 날이면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가지고 갔다. 봉지를 뜯기 전에 막걸리 반 양푼, 봉지를 뜯어 물어 붓고 혼든 생라면을 삼키다시피 먹고 나서 다시 반 양푼. 저녁때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마루에 앉아 한 양푼이었다.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면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동네 남정네들이 어디서 술판을 벌이는지 마을회관을 비롯, 동네를 돌며 커다란 코와 귀로 주의깊게 살피다가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은 고푸라질 때까지 무량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이면 그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고 자신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 반 양푼 뒤 식사, 그리고 반 양푼의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 구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어 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깜벅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까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기 행동지침이라. 그래가이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경운기로 길기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짓는 사람이 경운기도 없다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랄. 그런게 민씨는 농사짓는 기 아이라. 비니루하우스 안에 꽃 밭 송이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어디 고장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지도자인 황철석이

빛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免稅油)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 집에는 경운기가 두 대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두 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 다 쌀값에 언차진다(엎어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빛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멧덩구리로 만든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 입에 들어갈 양식(양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다.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마이가?”

(모두 빛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어촌구조 개척자금, 주택 개량자금, 무슨무슨 자금 해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빛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빛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빛 준다고 안개.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민서 안 망하고 백년을 살 끼라.”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되는 그의 머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만근, 황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智)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빛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어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밤이면서 사직(社稷)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樂天)의 뼈였다.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릿길을 달려 약속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뺏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 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의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 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아, 선생이 좀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흑염에 그들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알아 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세운 사람이 아니라.

단기 사천삼백삼십년 오월 스무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墓碑銘)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南海人) 민순정(閔順鼎)이 엮디어 쓰다.

[극문학 01]

산돼지 (김우진)

- 수능특강 23쪽 -

[앞부분 줄거리] 동학군으로 활약하다가 죽은 아버지를 둔 최원봉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의 친구 최 주사 부부에 의해 양육된다. 최 주사는 죽으면서 아내에게 딸 영순과 원봉을 혼인시키라는 유언을 남긴다. 원봉은 청년회 상무 간사로서 바자회의 수익금을 유용해 청년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상태에서 이를 덮어 주려는 친구 차혁과 말다툼을 하게 되고, 애인 정숙을 떨쳐내는 과정에서 ‘산돼지’라는 별명을 얻고 몽환병을 앓는다. 그런데 최 주사댁은 영순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남편의 유언을 비밀에 부쳐 두고 영순을 차혁과 혼인시키려고 한다. 원봉은 영순이 친동생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반해 영순은 원봉을 친오빠로 알고 있다. 원봉은 꿈속에서 병정에게 맞아 거꾸러지는 어머니를 본다.

최 주사댁: (들어와 일으켜 주며) 아, 불쌍해! 가엾어라! 못 일어나겠니?

원봉: 어머니! 왜 이 모양으로 나를 내놓았소? 산돼지 한 마리 내놓으면 무슨 극락세계로나 갈 줄 알았소?

최 주사댁: 온몸이 아프니? 옆구리가 그리도 아프니? 그 무지막도한 병정 놈이 널 차 내부쳤구나! 염라국으로 쫓아 보낼 녀석 같으니! 오, 불쌍한 원봉아!

원봉: 당신한테서 불쌍하단 소리 듣기 싫어요! 무슨 심정으로 날 내놓았느냐 말어요! 대답 좀 해요!

최 주사댁: 내가 어찌 아니? 내가 어찌 알 수가 있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원봉: (놀라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소? 우리 어머니 찾아 주오.

최 주사댁: 내가 어떻게 아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원봉: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소? 그것이나마 찾아 주오.

최 주사댁: 내가 어떻게 아니. 영순의 어머니인 내가!

원봉: 당신은 언제까지 날 그렇게 속일 작정이요?

최 주사댁: (가슴을 쥐며) 그 말을 내 입에서 듣구 싶거든 이 가슴을 칼로 찍어 낸 뒤에 다시 물어보려무나!

원봉: 그러면 영순이더러 물어보겠소. 개는 날 사랑하니까. (영순이 나와서 어린애처럼 철모르는 얼굴을 해가지고 쳐다본다.) 영순아, 너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영순: 오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있긴. 여기 계시지 않아요.

최 주사댁: (둘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애들아, 그게 무슨 짓이니?

원봉: (영순을 입 맞춰 주며) 너 어머니가 저렇게 날 어린애로 대접하니까 어디 어머니 정이 들어오니? 너는 내 동생이지, 내 동생. 아 변치 않는 내 동생! 내 동생!

영순: 오빠! 정숙이란 년한테 굶힌 오빠 가슴은 내가 꼭 낫게 해 드릴 테예요. 이 몸이 녹아서 녹아서 백번이라도 녹아서 옛날 임금님의 발에 발라 드리던 몰약이 되는 것도 사

양치 않고! 불쌍한 오빠!

원봉: 아, 영원을 잊어버렸던 산돼지 눈에도 눈물이 나오는구나.

최 주사댁: 원봉아, 내 말 끝이듣고 참아라. 내 말 끝이듣고. 이 애 어미 되는 내 말을 끝이듣고.

영순: 어머니 말도 끝이들어 줘야 해요. 네, 오빠!

원봉: 당신한테 아무 관계없는 내게다 그게 무슨 염치없는 말 숨쉴까요?

최 주사댁: 영순아, 어서 나가 봐라. 너나 내 말 끝이들어 다 오. 혁이가 와 기다리고 있다.

원봉: (영순을 안고 안 놓으며) 혁이? 그놈은 연한 살에 고름과 마찬가지로. 이런 순결한 애를 당신 딸이라면서 왜 중히 여기지 않소? 굶기지 않고, 옷 안 벗기고, 아들딸 많이 낳게만 만들면 그만 될 것 같소? 이 애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도 깨끗해요. 여름밤 하늘에 별보다도 더 귀엽고 값이 있어요. 이런 귀한 보석을 더러운 집돼지 발밑에다가 내던지려고? 왜 자기 손안에 든 진주를 그렇게 더럽히려고!

영순: 나는 그래도 안 더러워져요. 오빠! 나는 결코 안 더러워질 테예요. 오빠만 안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안 더러워질 테예요.

최 주사댁: 애야 어서 나가 보라니까! 안 나갈 테니? 그만 뒤라, 내가 불려오겠다. (나간다.)

영순: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데! 오빠, 혁 씨 부르러 갔는데! 나가 보고 올 테야!

원봉: (영순을 끌어안고) 네 눈은 곱구나. 저기 저 하늘 보이니? 네 눈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 점 없이 밝은 저 하늘이 보이니? 저 하늘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 점 없이 밝은 네 눈에 저 하늘이 보이니?

영순: 네, 네, 네, 보여요. 잘 보여요. 어찌 그 하늘에 올라가 앉은 것처럼 이렇게 몸이 가벼워져요.

원봉: 몸이 마음이 다 편하지 않니? 하늘가까지 보이지? 넓고 넓다란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다 보이지? 그것이 하늘이다. 그리고 저기 저 밑에 누런 먼지가 가득히 쌓인 세계가 보이지 않니?

영순: 네네, 보여요. 아이구, 갑갑하고 더러운 세계! (눈을 가리며) 아, 저런 속에서 어떻게 사나!

원봉: 너도 그 속에서 살아 있다.

(중략)

영순: 아 참, 보이는군요. 저런! 저런! 비행기 모양으로 날다가 뚝뚝 떨어지네. 에그 불쌍해! 어머니도 저 속에 있어요? 혁 씨도 저 속에 있어요?

원봉: 아,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서는 못 쓴다니까!

영순: 아, 오빠! 괴로워! 아, 오빠! 나하고 저리로 올라가요. 아, 괴로워! 여기는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 아니예요? 구만리장천 저 위까지 같이

올라가요. 내 손잡아 줘요! 내가 끌어올릴 테니!

원봉: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연약한 네가 날 끄집어 올리니? 산돼지는 땅 위에서밖에 못 큰단다!

영순: 그래도 내 힘껏 끌어 볼 테야! 아, 날 놓지 말아요. 이 팔을 꼭 붙들어요. 이 팔을! 아, 오빠!

혁: (들어와서 한참 동안 보고 섰다가 그만 달려들어 영순을 끄집어낸다.)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별별 고약한짓이 다 생기는데! 영순 씨 저진 당신 오라버니가 아니오? 아, 그 눈을 해 가지고도 안 보이오?

원봉: 흥, 왔구나. 너무 일찍 온 게 잘되었다.

영순: (혁이 가슴에 안기며) 아! 선생님! (둘이 안고 나간다.)

원봉: 흥, 데려가거라. 산돼지한테 맡겼다가는 산돼지 배 속밖에 못 채워 준다.

최 주사댁: (들어오며) 내 말 끝이 안 듣더니 그것 봐라. 그래도 너를 갖난애 때부터 기르던 애미가 아니니?

원봉: 어머니 흥계는 나도 인제 넉넉히 알았소. 그만두슈.

최 주사댁: 내 말을 끝이 들어야 한다. 네 어머니는 너를 낳고 하룻밤을 못 새고 죽어 버렸다. 그때부터 영순이 아버지 인정에 끌려서 너를 길러 온 어미가 아니냐.

- 김우진, 「산돼지」

[해제]

이 작품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과 현실적인 무기력함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는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담은 희곡이다. 제목인 '산돼지'는 저돌적이고 단호한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고뇌하는 주인공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원봉이 겪는 내면적 갈등은 원봉의 몽환병과 몽환 장면을 통해 구체화되며, 특히 몽환 장면은 표현주의 기법이 사용되어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주어진 숙명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식민지 지식인의 방황과 좌절

[전체 줄거리]

아버지가 동학군이었던 원봉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머니를 잃는다. 동학군 동료였던 최 주사는 원봉을 거두어들여 양육하고, 죽으면서 아내에게 딸 영순과 원봉을 혼인시키라는 유언을 남긴다. 청년회 상무 간사로서 바자회의 수익금을 유용해 청년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원봉은 약혼녀 정숙을 배척하고, 정숙은 다른 남자와 함께 일본으로 도망간다. 사람들은 이런 괴팍하고 저돌적인 성격을 지닌 원봉을 '산돼지'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원봉은 자신의 돌출적인 행동에 대해 정신적 갈등을 일으켜 몽환병에 시달린다. 최 주사댁은 남편의 유언을 덮어 두고 영순을 원봉의 친구인 혁과 혼인시키려고 한다. 원봉은 꿈을 통해 출생의 비밀을 알아내고 동학군인 아버지도 만나지만, 현실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공상만 한다. 원봉에게 실망하고 한 유학생을 따라 일본으로 떠났던 정숙이 다시 원봉을 찾아온다. 그러나 원봉은 다시 돌아온 정숙을 거부하고, 정숙은 원봉에게 마지막으로 조명희의 시를 읊어 달라고 부탁한다.

산돼지 전문

[막 1막]

주사 댁 집 앞마당 오른 편으로 건너 방, 그 앞에 퇴마루. 왼편으로 큰 대청. 또 그 왼편으로 안방 영 창문만, 그 앞으로 부엌간이 내밀고 있다. 중류계급의 견실순박한 세간사리, 장독대, 뒤지, 찬장 심지어 걸래질 잘 해 놓은 마루바닥, 잘 쓸어 놓은 마루 밑까지 나타나 있다. 여름날 석양 바람한 점 없는 뜨거움이 서늘하게 열어 재킨 대청 안에서 아주 도사리고 있다. 막이 열리면 대청 중앙에 원봉이와 혁이가 바둑판을 마주 놓고 앉았다. 세 번째 승부의 끝판이다.

혁: (기가 난 듯이 다리를 세우며) 흥 끝판에 끝판에 탁 대들어 본다. 오냐 대들어봐라 (바둑을 놓는다)

원봉: (냉연하게) 네가 말 안 해도 벌써 이렇게 대들어 대지 않았니 (놓는다)

혁: (놓으며) 또 이리로 막아버리면 네 길은 어디고.

원봉: (웃으며) 이 넓은 세상에 길 없을까 봐! (놓는다)

혁: 아 이놈 보게 (생각한 뒤에 놓는다)

원봉: 넓은 세상에 길 없을까 봐. 넓은 세상에 길 없을까 봐. (놓는다) 넓은 세상에—

혁: (웃으며) 길만 찾지만 하는 수가 있니 다 죽어 가는 놈이 (놓는다)

원봉: 죽드라도 죽을 때까지 (놓는다)

혁: 이 애가 왜 이 모양이야. (놓는다) 세집 다 결단 났는데.

원봉: 죽드라도 죽을 때까지. 죽드라도 죽을때 까지 (생각한 뒤에 놓는다)

혁: (놓으며) 이러면 이 집도 날라 갔다.

원봉: 날라가는 것은 날라 가거라. (놓는다)

혁: (승리의 환희) 그리고 남는 것은 목 베인 항우만

원봉: 목 베여도 살 수 있으니까 항우란다. 이놈! (놓는다)

혁: (더 큰 환희) 이러면 영영 숙었지 (놓으며) 자 인제 그만 두자 다 되었는데 내기 한 것이나 열린 내 봐라.

원봉: 이거 왜 이래 세기나 다 하고 난 뒤에 조르렴 (센다)

혁: 죽는 놈 마지막 청이구나. 제 송장을 불러고 예순 일은 아흔 수무 집이나 달리지 않았니? (영순이가 꿀물과 복숭아와 같이 놓인 쟁반을 갖고 와서 옆에 놓는다)

영순: (혁에게 말하듯이) 오빠 너머 골리지 마세요. 백주에 일년생을 갖고

혁: 자이제 마지막 백기를 내여 들어야지.

원봉: 이것 영영 룰구나 (물러앉으며) 하는 수 없지. 또 당하는 수 로군.

혁: (또한 물러앉으며) 아까 네가 욕심부리다가 여기 있는것 걸웠지 때문에 탈이었다. 아 패전한 배상이 겨우 이젠가.

원봉: (바둑을 치우며) 애 이래 봐도 이 복숭아가 십오원씩 이란다. 천진수밀도야 알기나 아니!—

영순: 일부러 오시라고 해 갖고 무얼 대접할게 있어야지요.

혁: (웃으며) 영순씨는 어찌도 그리 잘 아세요. 오라버니 꽤 전할 것을. 세여 보기도 전에 이런것을 갖다 놓으니.

영순: 그러니까 오라버니 동생간이지요 (복숭아를 꺾는다)

혁: 이리 주시요 (바더서 꺾으며) 나도 영순씨만한 누이만 있었으면. 허지만 패전예보만은 쑥 빼 놓고 말이지요.

원봉: (웃으며) 패전이라도 미리 알아주니 그만큼 고맙지 않니? 동시에 자네에게는, 승전예보의 천사가 된 셈일세.

혁: 잔다-크란 말인가?

영순: (잠간 얼굴을 붉히며) 저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잔다-크예요? 그리고 잔다-크에게 아르켜 준것은 천사 마카엘 이었드래요.

혁: 핫하하 이거 또 무식이 탄로되었군. 허지만 오라버니가 미리 질줄을 알고 있는것 만은 천사될 자격이 넉넉히 있습니다.

원봉: 즉 자네 승전을 승전을 미리 알고 있는 천사란 말이시. 똑똑하게 안다.

혁: 그 말도 더 똑똑하게 안 말이다. (웃는다)

영순: 잡수세요 (바둑판을 치우고 쟁반을 가운데 놓는다)

원봉: 이기기는 자네가 이겼어도 결국은 다 내 덕인줄 알게. 이런 좋은 복숭아는 물론이고 영순이가 자네 천사인가 무엇인가 된것까지.

영순: 예그 오빠도!

혁: 지고 나서는 그게 변명인가

원봉: 자네나 너나 다 내앞에 절 해야 한다 위대한 개선장군 앞에 가서두 애인이 손잡고 축복을 받으려는 것과 같이---

혁: 그런 히니꾸는 빼 놓고 해라 비위 상한다.

원봉: 비위가 상해? (얼굴이 침통하게 변해 지며) 개선장군이란 실상은 패전장군이란 말 뜻을 모르니? 게다가 목숨 붙은 장군이니까. 죽어 자빠진 석상이란 말이야.

혁: 이따끔 자네 왜 그런 소리는 자꾸 내 놓나?

영순: 그만 두세요. 다른 이야기나 하세요.

혁: 자네 그러다가는 나하고 당초에 바둑 못 두네.

원봉: 목이 다라난 패전장군인데 어떻게 또 두어볼 용기가 나겠는가

영순: 아이구 오빠두 (혁에게) 다른 이야기하세요 좀.

혁: 예기 사내답지 못한!

영순: 못처럼 어머니도 안 계신데 오셨으니 서로 웃음 웃고 이야기하세요

원봉: (먹든 복숭아를 내 버리고 길게 호흡한다) 시끄럽다.

영순: (꿀물 들어주며) 이것 잡수세요 속 시원하게.

원봉: (받아 마시고) 너 왜 또 그 치마는 또 입고있니?

영순: 이것밖에는 없는걸 어떻게 해요. 새로 장만하자면 또 돈들지 않아요. 있는 것 먼저 입어 버리지요?

원봉: 흰 모시치마에다가 집에 있을때는 행주치마 두르고 있으라니까 그 치마 아니면 연애 못하니?

영순: 예그 오빠두!

원봉: 얼른 드러가 바꿔 입고 와! 그동안 혁이가 싫건 보고 있었으니까 넉넉할 게다.

영순: 어제 잉크 업지러서 죄다 버렸어요.

원봉: 공부 할 때에도 행주치마 입고 있을 것이 뭐야.

영순: 행주치마였기 때문에 괜찮았지요. 흰 모시치마도 아까운 것은 아니지만

원봉: 그래 오늘 혁이 보는데 입으려고 잉크 업질렸구나.

혁: 여보게 나가 산보나 하세. 집안에 들어앉아서 공연히 이리 투적 저리 투적 하지만 말고.

영순: 저녁때 다 되었는데 잡숫고 나가시지요.

혁: (일어서며) 회관이나 가 보세 상무간사가 되면 일요일이라도 한번씩은 휘 둘러 봐야 하는 법이야.

원봉: 법은 또 무슨 법이야. 저이들이 욕하든 마든 내 양심대로만 해 나가면 그만이지.

혁: 또 그따위 소리 내 놓는구나 그러니까 못써.

원봉: (마루 끝으로 나와 앉으며) 못쓰면 하다 못해 끈이라도 다라 쓰려므나.

영순: (혁이와 눈을 맞추고 나서는) 왜 또 무슨 말썽이 일어났어요?

혁: 자포자기는 또 무슨 자포자기야 (원봉이가 가만히 앉았다 영순에게) 일전 총회때 불신임안이 제출 되었드랍니다.

영순: 누구 불신임안?

혁: 아직 못 들으셨소? 상임간사 불신임안이라고요.

영순: 왜? 이번엔 또 무슨 까닭으로요?

혁: 까닭은 무슨 까닭이 있겠수. 청년회 간사 욕했다고 그 여독이 안 풀어진 게지요. 원봉이가 접대 바자수입금에서 돈 썼다고 탈을 잡는답니다.

영순: 이제 와서는 별 죄명을 다 붙이는군요. 회계검사해 보면 알일 아郁요?

혁: 회계에 명백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 이상 어떻게 할수 있나요 (말을 끝인다)

영순: (말뜻을 호의로 오해하고) 그런데 왜들 그런단니까? 오빠하나 못 잡아먹어서 바자는 뉘 덕에 열리게 되었는데. 괜히 남의 총동이에만 놓고 있는 자기네들이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혁 침묵) 그것도 저이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데로 누가 되든지간에 말해야 옳은 일 아니애요? 왜 이광은이 따위가 떠나는데 송별연이니 무어니 그리 야단을 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남의 여자 피어 가지고 일본 좀 간다고 그것이 것이니까 설령 회계에 축이 났다 하드라도 제가 물어넣으면 그만 일께 아니냐 말야. 그런걸 갖고 일반회원들의 사실상 신임을 무시하고서는 상임간사의 불신임안이라니 말이 되는가. 자기 회를 자기가 똥칠하고 그런 무식하고 무정견한 짓이 어디 있겠소. 이 내용을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네.

원봉: 설령 증거를 잡아낸다면 무슨 소용 있니?

혁: 너 또 그 소리 내놓는구나. 너 그러다가는 성인군자 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해 봐. 남의 회의 더구나 일개인으로 앉은 이에게 분풀이 좀 하려고 그 회의 간부들을 매수 하다시피한 그런 악랄한 자식들이 어디 있어 이런 악독한 청년회 놈들과

눈감고 그 놈들의 손가락에 놀아난 간부 놈 들을 대 소독을 시켜 버리지 않고 어찌잔 말이야. 첫째로는 바칠우스 소독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처지와 주장이 태평양만큼 떨어져 있는 저 적군을 전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있어—. 이 기회를 천재일우의 기회를 모른 척 하고 앉아 있을터이면 그것은 한가지의 최악일세. 모르고 행하는 악행보다도 주의주장이 달라서 행하는 악행보다도 더 큰 최악이라고 할 수 있네. 자네는 자네개인의 사정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네. (영순에게) 이진 한 회원의 자격으로 앉아서 영순씨에게 충고하는 말이요. 이번 일을 그대로 넘겨서는 결코 안될 일이요 (원봉에게) 자네도 사람이 아닌가? 의기와 피를 갖인 청년이 아닌가? 사람으로서 청년으로서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세.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지 사회를 위해서 사는지 이 문제는 손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일세. 그러나 다만 한가지. "나"라는 것과 사회라는 것이 합치되는 행동에 가서 우리들의 이상이라든지 기대라는 것이 실현된다면 이것처럼 장엄한 사실이 어디 있겠나. 자네 자신으로 앉아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주저하는 일이 있겠지. 그러나 그 의문과 주저에 몸을 맡긴다면 대체 무슨 까닭으로 죽지 않고 살아 있단 말인가.

원봉: 애, 듣기 싫다 네 웅변은 이제 기운 빠진 나팔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

혁: 책임지고 앉은 상무간사의 대답이 그것뿐인가. 애 우리는 다 결점같은 사람이 아니니? 너의 개인사정은 개인사정이고 회사정은 회사정 아닌가.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기회라는 절호기에 닥친 것을 눈앞에 보고 앉아서 쓸데없이 가슴만 쥐어 뜯고 앉아도 잘난것이 못 되네. 그래 이 기회- 나는 이 기회를 말하네. 모든 전선이 다 배포된 이 자리에 앉아서 뒤로 물러 앉으면 안되네. 칼을 들고 일어나서야 하네 마지막 결전의 생각으로 내가 죽나 내가 죽나 하고 대들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결전하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 알아듣겠니!

원봉: 그따위 소리는 연단에 가거나 하라니까. 이것은 내 집이야 내 집! 네 웅변으로 일이 될것 같니?

혁: (얼굴을 드러다 보고) 날 그렇게 무정하게 생각하고 있니?

원봉: (또한 얼굴을 드러다 보며) 사람이란 그렇게 연단식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머리와 가슴속에서 연기처럼 엉켜 나오는 기운이 이 세계가 되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다. 너같은 것은 이런 원소를 연단 위아다가 갔다 놓고 회회낙 낙 하는 재주밖에 없는 인생이야.

혁: 네가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고집으로만 내 말을 들어줄 터이면 난들 또 무슨 용기로서 말하겠니. 하지만 자네가 너무 자포자기해서 이구찌나이 허기에 충고하는 말일세 (영순이는 애타는 것을 못 견디는 듯이 마루 끝으로 나온다) 생각해 보게. 이 모양으로 자포자기로만 지내다가는 자네 일신은 물론이고 회 일도 말 아니게 될 것일세.

원봉: (픽 웃으며) 내 한 몸이 망하는 것이 네게 그리 원통할것이 무엇이 있나 또 회는 나 아니면 일 할 사람 없니 나는 회일도 다 구만 두겠다.

혁: 무엇이야! 다 그만둔다고? 흥 네 말로가 겨우 그것으로 구나. 홀륭하다. 굉장하다.

영순: (가까이 오며 혁에게)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세요 오빠 조금만 있으면 어머니도 돌아오실 터이니까 그 전에 진지 잡수셔 버려야 할게 아네요. 나 저녁 차릴터이니 바둑이나 또 두고 계세요.

원봉: (동감 한듯이) 그래도 천사말씀이 옳구나 한판 더 두자. (바둑판을 가지러 간다. 영순이는 부엌으로 내려간다) 이번이야말로 최종의 결전으로 두자꾸나.

혁: 아니 지금 무엇이라고 그랬니 회도 다 구만두겠다고 피를 가르쳐 주드니.

원봉: 피? 너는 또 그게 무슨 피로 하는 수작이니, 네 눈에는 모두가 피로 밖에 안 보이는 거로구나. 네 눈에는 온 세계가 피로만 돌아가는 갔니?

혁: 너 그런말 말고 바루 좀 말해라. 회도 다 그만두겠다는 말은 정신없지 않고 하는 말이니? 아니 똑똑히 말좀 해.

원봉: 바자에 회계 축난 오십여원 돈이란 것은 내가 써 버린 것이 사실이다. 놀랄 일이지? 현금과 출납부 사이에 축나는 것은 돈이 사실로 써 없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부기입이 잘못 되었거나 하는 외에는 틀릴 까닭이 없지 않니? 그런데 장부기입 말은 서무는 확실히 기입착오가 없다고 하는데서야 어떻게 말할 여지가 있니. 내가 꼴에 맞지 않는 현금출납을 맡았든게 죄이지.

혁: 허지만 사실대로만 발표하면 양해가 있을 것 아니니? 더구나 장부기입 하는 이 와 현금출납하는 이가 별다른 이가 되어 놓았으니까 그만한 과실이야 얼마든지 양해가 설것 아니니, 그만한 것이야 총회에 붙일것도 물론 없고 간부회에서 의론 할 일이지.

원봉: 그저 무사평온으로 지내자는 뜻으로 네 생각도 옳긴 하지만 지금 나로 앉아서는 싫다.

혁: 왜 또 그건 무슨 주책야?

원봉: (한 참 있다가) 머리 숙이고 내가 잘못하였으니 용서해 주시요 하기는 싫다.

혁: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너 어찌다가 돈이 축이 났니?

원봉: 축난것이란 부주의란 죄가 아니니? 그뿐이야 그뿐.

혁: 축난 돈이란 대부로 조월해 놓으면 그만 아니겠니.

원봉: 무슨 명목으로?

혁: 글세

원봉: 쓸데없는 궁리는 내지도 말아. 하여간 내가 좀 헤프게 쓴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지금와서 숫자상으로 오십여원이나 될 것은 참 나도 놀랐다.

혁: 그래서 책임상으로 불신임안을 그대로 승인하겠다는 말이니! 남에게 머리 숙이기 싫다면서도.

원봉: 내 잘못에는 머리 숙여도 내 잘못을 피하려고 머리 숙이기는 싫다. 정정당당하게 총회석상에서 자백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혁: 애 듣기 싫다. 그것이 무슨 주의니 아무러한 장대하고

위대한 주의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뿐이야.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일을 위해 또는 성공을 위해서는 굴종이나 치욕이나 심지어는 위선까지라도 사양치 아니해야 한다. 알아듣니? 그래서 너는 네 얼굴에 똥칠을 해 가면서 회도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말이니?

원봉: 똥칠 아니라 더한 칠이라도 나는 양심대로 칠을 하고 나설 수밖에

혁: 왜 그따위로만 되어가니 내 말 좀 들어봐라. 접대 불신 입안이 통과 못된 것은 즉 네게 대한 사실상의 신임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왜 그런고 하니 설령 이번 바자에서 회계상에 축이 생긴 것이 과실이라고 해 놓고라도 네게 대해서는 회를 위해 신임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니?

혁: 왜 그따위로만 되어가니? 내말 좀 들어봐라. 접대 불신 입안이 통과 못된 것은 즉 네게 대한 사실상의 신임이라고 나는 믿는다. 왜 그런고 하니 설령 이번 바자에서 회계상의 축이 생긴 것이 과실이라고 해놓고라도 네게 대해서는 회를 위해 신임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니? 정치에서 과실은 죄악이라는 금언을 사실로 부인해버린 이 자리 이 처지가 아니니? 그래도 모르겠니? 그런데 너는 일시의 감정 사소한 생각으로 그만 소인이 되버리려고 하니?

원봉: 소인 아니라 더 작은 난장이가 된다고 치욕 될 것은 없다 나는 아무리 일을 위 한다고 내 과실을 숨기거나 남에게 부당한 사과를 하기는 싫다 나는 내 과실을 사실대로 그들이 앞에 가서 자복 할게다. 승리를 얻는 장군 이상으로 벽찬 자신을 갖고 사죄하겠다. 이것이 좀 넉넉한 짓이겠니. 그러나 나는 남에게 연민이라든지 동정을 얻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내가 내 결점을 알면 그 동시에 그것을 누구에게든 속 시원히 발표하고 호소 아니 하고는 못 견뎌다.

혁: 그것이 무슨 되지 못한 망나니 사상이냐. 그것도 니- 첩식이니?

원봉: 나도 그전에는 너와 뜻이 맞고 또 너와같이 일해 나갔지만 이제 못하겠다 너희들이 나의 재능과 손을 빌려고 내 과실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더러운 동정은 내게 똥보다도 더럽게 생각된다. 나는 내 뜻대로 일하려면 그전에 먼저 같이 일할 온 사회를 적진으로 몰아낸 뒤에 일이 되겠다.

혁: (노한 소리로) 그래서 회도 그만두고 조소와 이간을 맞아 들어서 모두 뒤범벅을 만들겠다는 말이구나.

원봉: (또한 노한 소리로) 왜 너희들은 나 아니면 상무간사 될 사람 없어 그러니? 그리 장언대어하는 네가 되어 일해 보려느냐 그러면 설마 나 같은 산돼지 보다 나은 테지.

혁: (일어서며) 점점 타락해 오는구나. 잘되어 간다. 산돼지나 되었으면 잡아먹기나 하지만 너는 그것도 못되는 소인이야.

원봉: 소인? 너희들은 얼마나 위대한 대인이니? 이 에고이즘에 철저한 놈들! (달려들듯이) 일을 위해서는 위선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그것이 너희들 주의로구나?

혁: 더 짓거리지 마라. 공연히 내집도 아닌 내집에서 싸워 그런 체면이 있겠니?

원봉: 흥, 너싸워 볼테냐 목메인 항우랬지?

혁: 항우나 되면 그래도 박물관에나 갖고 가면 값이 된단다. 너는 산돼지야. 어금니밖에 못쓰는 산돼지.

원봉: (달려들며) 이 위선자! 왜 어금니한테 배워봐라.

영순: (쫓아 나오며) 오빠! 왜 이래요 무슨 되지 못한 싸움 들 이해요 이게 무슨 무식한 짓들이예요 (혁에게)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오빠는 보통시의 감정이 아니니까 보통 시 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혁: 네 생각에는 모두가 네 눈 아래로 보이는게지? 기실 못한 짐승이야.

원봉: 짐승? 산돼지라고 바로 대렴.

영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빠는 지금 병인과 마찬가지로 참으세요.

원봉: (영순을 내갈기며) 너까지 날 산돼지 대접을 하려드니?

혁: (영순을 막아주며) 너 이걸 또 무슨 못한 짓이나 애 그 만두자. 내가 잘못했다. 네가 회를 그만 두든 말든 네 주의 래도 해라.

원봉: (억지로 참고 마루 끝으로 나온다) 모두가 되지 못한 같은 무리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니?

혁: (영순에게) 울지 마십시오. 일어 나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참있다가) 나는 가겠습니다. 공연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미안 합니다.

원봉: 너같은 것 다시 내집에 왔다가는 정강이 부질러 놓겠다.

혁: 나는 가겠네. 맘대로 하게 다시 오래도 나같은 못난이가 무슨 체면으로 자네 어머니 오시거던 이런 위선자 하나 내뱉었다고 자랑이나 해두게 그리고 어머니 안심하시라고 하게.

영순: 더 있다가 가세요. 선생님 저녁 다되었어요 잠속고 가세요.

혁: (내려와서 신을 신으며) 다음에 다시 뵈죠. 공연히 마음만 상해 드려서 미안 합니다.

영순: 천만에요 (눈물을 닦고 문밖까지 전송해주며) 틈나면 또 오세요. 저도 틈나는대로 가뵈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돌아와 주저앉은 원봉의 옆에 안으며 한참 말 없다가) 오빠! (달려들어 붙들고 느껴온다 점점 황혼이 되어온다.)

원봉: (얼굴밑에와 닿는 영순의 머리위에다가 입을 파묻고) 내가 잘못 했나보다 우지마라 내가 잘못 했다. 생각이 부족했다. 그애를 그렇게 돌려 보내지 않을걸.

영순: (울음섞인말로) 괜찮아요. 내일쯤 내가 가서 사과할테예요.

원봉: 여간 말해서 마음이 돌려지겠니. 한번 이렇게 오해하고 간 이상에는

영순: (얼굴을 들며) 오해가 무슨오해예요.

원봉: 이태껏 어머니가 자기를 네게서 떼이려고 애쓰던것을 눈치채고 있지 않았니? 그러던 판이니까. 지금도 혹시 그 뜻으로 자기와 다툰줄로만 알고 갔을게다.

영순: 설마 그렇게야 생각 했을라구요.

원봉: 물결같이 변하는 젊은사람의 마음속을 누가아니? 아

까 무엇이라고 하고 가드니, 위선자 하나 내뱉었다고 자랑이나 하라구 하지 않던? 그리구 어머니 안심 하지게 하라구 당부하구 나가지 않던 아마 불려도 다시는 아니올듯 싶다.

영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녁에 가볼테야요. 그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원봉: (땀쌀 스러운 말로) 가든 말든 네맘대로 해보렴.

영순: (우는 소릴) 왜 그렇게 말씀 하세요? 내가 그렇게도 미워요? 오빠

원봉: 밋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테니 흥, 미움받는 것이 그리도 무섭니? 산돼지 미움이 어금니 밖에 더될가.

영순: 왜 그리 자꾸 마음이 삐뚤어지기만 해가요 (원봉이 무릎에 엎드려준다.)

원봉: (벌떡 일어나 대청안으로 들어가며) 에이, 그눈물보기 싫다. 그게 날 위로해 주는 풀이나 네까짓년 눈물이 날? (영순이 탁 엎으려져서 울기 시작한다) 어서나가 혁이한테 사죄나 해라. 그리고 입이나 실컷 만지고 오너라. 잘운다. 바로 진과 울음이구나. 눈물통 밀구멍 다 빼나라. 얼마나 속시원 한지. 혁이란 놈이 있으면 거들어 줄테지만 불행히 네 오라버니가 되었기 때문에 더 서럽겠다. 더 서러워. 잘운다 아주 울음에도 신이 났구나. 그만 어서 가보렴. 어서 가 보구와. 산돼지 본래 성질이 그때위로 밖에 안생겨 먹었다고 싫컷 주둥이나 까고 오너라. 어머니 말안듣고 동생 울리고 바자돈 훔치고 제말대로 자포자기 하는 말인 이라고 싫컷 방아찡고 오너라. 그런 소리를 질러야 혁이 더 이빠 한다. 달라 붙어서 입맞추고 안아주고 거들어 주고 하 하 하.

영순: (일어나 원봉에게 가서) 용서하세요. 오빠속도 모르고 불려온것이 잘못이 었어요. 오래간만에 어머니없는 틈이길래 오빠마음 좋게 할려구 불려온 것이야요.

원봉: (주먹으로 쥐어지르며) 또 그런 거짓말! 내가 혁이 보구싶어 불렀다구 해라 그렇게 말하구 나서 울어 그래야 정말 울음이 되는 법이야.

영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부를 테야요. (원봉이의 눈빛에 수그러져 얼굴을 그의 가슴에 파묻으며) 아 그렇게 미워 할것이 뭐예요. 동생하나 둔게 그렇게도 미워요. 정말 죽고 싶어요. 오빠가 그러면 난 참 죽고싶어요. 모두 잊어 버리고 죽고 싶어요.

원봉: 죽고 싶거든 죽으려므나 누가 말리니?

영순: (원봉에게 달려붙으며) 날 죽여줘요. 이자리에서 죽여줘요. 오빠 내가 죽어 버리면 이런일 없을텐데.

원봉: (영순의 얼굴을 두손으로 들어 자기 뺨에다가 갖다대이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한참 있다가 영순이 손을 잡고 나와 앉으며) 내가 저녁에 가서 사죄하고 오겠다. 너는 가지 말아 어머니가 아시면 또 어떻게 하니 내가 직접가서 오해를 풀어줘야겠다. 그만되라. 울지마라. 울지마 (눈물을 닦아주며) 나도요새 내 머리속이 이상스럽게 되어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수가 있어야지.

영순: 잊어버려야 해요 죄다, 오빠! 날 불쌍히 여기시거든 죄다 잊어주세요.

원봉: 그런말을 들으면 내마음 속은 더산란해진다. 큰 술 같은 것으로 이리저리 썩썩 문지르는 것같이 쓰라려 지는구나. 너는 이쓰라림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껏 사랑의 단꿈에만 취해있는 너는 내가슴속을 모른다. (손을 들어 입에 갖다대이며) 너는 몰라 모르니까 네마음은 평화롭지. 아 차라리 벼락이나 와서 죄다 뒤집어 엎어 버렸으면!

영순: 잊어 버려야 해요 애써서라도 억지로라도 잊어 버려야 해요.

원봉: 허지만 상처가 그리쉽게 있게 된다드니? 너는 모른다.

영순: 내가 오빠옆에 있는 동안은 어떤짓을 해서라도 잊어버리게 해드릴테야요. 날 꼭 믿어 주셔야 해요.

원봉: 너를 안믿어 어떻게 하겠니 믿고 있으니까 머리속은 더 산란해지고 가슴속까지 쓰라려진다.

영순: (가슴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오빠! 때란것은 무엇 이든지 뚫어준다고 하지 않아요? 반년이나 혹은 일년이나 그동안이 괴로우시겠지만 참으시고 억제해야 해요.

원봉: (이를 악물며) 네까짓것 진단이 겨우 그정도 밖에 더 될라구 내가 어리석지.

영순: 그러지 마세요. 오빠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어요.

원봉: 그것이 여성의 독특한 거짓말이란게야. 특하면 목숨 바치겠다고 너희들은 웬 목숨이 그렇게도 많이 있니.

영순: (우는 소리로) 오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도 내가 약해요. 내마음까지 내사랑 까지 오빠에게 그렇게 약해 보여요? 며칠이나 힘써야 오빠 가슴속에 안기게 되겠어요.

원봉: 며칠? 일평생! 사랑하다가 잃고 잃고 나서는 또 사랑하고 적어도 뉘번은 그렇게 되풀이 하고나서 오너라. 그래도 부족 하거든 그때 가서는 내가슴속이 벌써 화석이 되어버린 걸로 알아라 며칠? 네가 묻는 말이란 그렇게 밖에 모르는구나.

영순: 난 곧 무서워 못견디겠어요 (얼굴은 가리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빠 가슴속 아픈것이 곧 내 가슴속 아픈것같이 생각 되면서도 난 곧 무서움중이나요. 무엇인지는 몰라도 온몸이 물속에 든것 같이 떨려져요. 네 오빠! 날 그전 같이만 사랑해주시면 우리에게는 곧 평화가 올듯 싶어요.

원봉: 사랑? 사랑이란 것을 네 따위가 알기나 하고 말하니? 너는 적어도 지금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르고 앓았다 네 생각에는 네가 조석으로 혁이 그리워하는 것이 사랑인줄 알고 있겠지? 흥 그것은 네 여자된 본능뿐이야. 사랑은 무슨 사랑 너라는 여자는 일평생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내게 된 인생이야. 하느님이 너를 만들때 부터 일평생 살아있는동안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내게 만들어 났단 말이야.

영순: (원봉이를 쳐다보고 벌벌 떨며) 한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내목숨이 괴로운 오빠가슴속을 낫게 해드릴수 있다면 난 지금이라도 죽어버리겠어요. 정말 난 죽어버리겠어요.

원봉: 왜 살아있어서는 못하니? 그게 무슨 되지못한 소리야. 흥 사랑 모르는 여자라 했다구 죽겠단 말이로구나. 그것이 그리 불명예 될 게 무엇있니? 흐 흐---

영순: 살아있어서 오빠 가슴속을 낫게 못해드릴다면!

원봉: 살아 있어서 내가슴속을 낮게 못한다면! 예잇! 못난 것!

영순: 그러면 날 이집에서 나가게 해주어요, 나가게!

원봉: 어머니 허락만 말아라 어머니 허락만.

영순: (침묵, 한참 있다가 원봉이 가슴에 얼굴을 대이며) 아 이 오빠 가엾어라.

원봉: 불쌍한 영순아 (둘이 포옹, 달이 올라와 마당에서 마루 끝까지 환하게 비추인다. 최주사 댁 들어온다.)

최주사 댁: 둘이 다 집에 있니? 저녁 먹었니?

영순: 예그 벌써 오시네. 만나 봤어요?

최주사 댁: 만나긴 만났지만 다 허사다. (올라와 앉으며) 아 유 그 할멈도 딸과 똑 같은 년야 웬 욕을 그리 퍼 붓는지!

원봉: 뭐라고요?

최주사 댁: 욕이면 욕이지 무슨 뜻있게 하는 욕이 있다드니 그저 된소리 안된소리 짓거리 놓는거지.

영순: 그래도 뭐라고 하는 욕이 있잖어요. 정숙이가 옳고 오빠가 그르다든지.

최주사 댁: 그까짓 소리 옮기면 뭘하니. 말하는 내입만 더러워지지.

원봉: 정숙이는 확실히 광은이와 한 주소에 있다고 해요?

최주사 댁: 있구말구 여부가 있다. 그러니까 애야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하드냐, 그 까짓년 갈보 같은 년 그만 두라고 혀가 닳고 입이 닳도록 말하지 않드니 그때 한마디는 지금 열 마디 보다 더 귀중한 말이지만 네 귀에는 마이동풍으로 귀넘겨 듣지 않았니.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열곱절 더 속이 상해야 마땅하지.

영순: 아이고 그런 이야기 다 그만두셔요. 정숙이 어머니 말은 뭐라고 해요? 정숙이가 확실히 처음부터 일본갈 마음이 있었대요? 광은이가 같이 가자고 권했대요?

최주사 댁: 그걸 새삼스럽게 또 묻고 앉았니? 우리처음 짐작이 꼭 맞지. 글썽 애들아 낫살게 먹은이 말이라면 왜 그렇게 비상국 으로만 아니, 더구나 예미가 자식한테 그런 말 할리있나 아무리 악독한 에미라해도.

영순: 정숙이 그 애가 날더러는 광은이와 조금도 관계없는 거로만 눈물 흘려 가면서 야사를 까드니! 내 어떻게 같이 따라 올랐는지 지금 속은 것 생각하니 분해 못 견디겠구먼.

원봉: 그래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최주사 댁: 내 아들도 이제는 단념하고 다시는 돌아오기를 바라기는커녕 결혼 같은 것은 꿈도 안꾸고 있다고 했지 그체면답지 않니?

원봉: 어머니는 이따금 왜 그리 체면만 잘 보시려드우.

최주사 댁: 그러면 어떻게 하니? 지금도 이따금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 앞은 소리를 내놓고 있다고 하니?

원봉: 체면도 볼때보셔요. 그 까짓년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최주사 댁: 그럴것 같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왜 체면이라고만 하니?

원봉: 그래도 사실 말하는 것이 무슨 꼴 더러워 질 게 뭐

요?

최주사 댁: 네속 내가 모르는 줄 아니? 그 까짓년이 뭣이 볼게 있다고 그리 잊지 못하니? 사내답지 못한 것도 있다!

원봉: 불것 있어서 사랑한답디까? 이익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창기예요. 어머니가 무엇을 아신다고.

최주사 댁: 지금이라도 그년이 돌아오면 너는 반갑게 안아줄테지? 그 더러운 것을!

원봉: 나는 정녀(貞女)를 요구하지 않아요. 정녀 아닌 여자에게 사랑을 바치는 사내 가슴속을 어머니가 아신다면 천지개벽이 생기지.

최주사 댁: 천지개벽이 아니라 뒤집혀 진데도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야!

원봉: 그러니까 어머니는 맨처음 부터 훼방을 놓으셨오 그려. 더럽다면서 어찌 참여는 하셨오? 더러운 줄 알면서 참여하신 어머니의 그 가슴속이 몇 곱절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최주사 댁: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청루 계집도 그보다는 정할게다.

원봉: 정하고 정치 못한 것을 무엇으로 판단 하시오.

최주사 댁: 예잇! 듣기 싫다.

원봉: 사람이란 더구나 여자란 걸만 보고 판단하려니까. 걱정이요. 고은 옷 입은 사람이 안도 곱다는 것이 옳지 않다면 더러운 옷 입은 것이 반드시 속까지 더럽다고 못할 것이 아녜요? 정숙이가 그속 뼈속까지 더러웠다고 하더라도 내게 대해서는 정한 곳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어머니 같으니까 그런걸 알아 보실 수 있오. 오늘날 것도 헛일될 것이 환하지요.

최주사 댁: 애, 그만되라! 듣기 싫다니까.

원봉: 걱정 마십쇼 내가 또 내일이라도 꺼덕꺼덕 그 집에 가서 꾸벅거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어머니 체면을 생각해서 안가겠다는 것이 아닌 줄 아시오.

영순: 어머니가 왜 가셨어요. 내가 간다니까 어머니가 가시면 오빠 참뜻을 전하기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봉: 난 남에게 머리 굽히기 싫다.

최주사 댁: 내가 간다기로 저런 더러운 소리를 옮기겠니? 아무리 낮 가죽이 두껍기로.

영순: 에이구 어머니도 저러니 남의 가슴속을 알아 주실수가 있어야지.

최주사 댁: 시끄럽다니까 그래도 그러는 구나. (한참 있다가) 너도 나이 근 30이 되지 않았니? 생각을 좀 해봐라. 맨 처음부터 그년을 한번 봐서 모르겠니? 남의 안해가 되어서 집안 사람될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일러도 너는 네 한몸만 제일 인듯이 어미 말도 동생도 안 돌아보고 돌아다니니 그런 못난 자식이 어디 있단 말이나. 그리구 나서는 지금 와서도 곧 못 잊어서 날 그년 집에까지 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 더러운 창피한 꼴을 당하게 한단 말이나!

원봉: 흥, 내가 어머니를 보내드렸다고? (뜰에 침을 탁 배알고 일어나며) 예잇, 더러운 어머니 속이 환하게 보이어요.

최주사 댁: (못들은 척하고 영순에게 말하듯이) 아까 고 할

멈하는 소리 좀 들어봐. 청년회원들이 산돼지 같은 얼굴을 그려놓고 제 흉을 어찌 보았던지 그게 말이 퍼져서 그 늙은이 귀에도 들어갔나 보드라.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지만 그건 너무 하는 짓이라고 했더니 찾아온 회원하나 말이 그런 산돼지가 계집이 다 무엇이야. 암산돼지가 격에 맞는걸 찾지 못했거든 우리 집 암 양돼지한테 중매해 줄테다」고 하드라나 그 이야기하면서 어미되는 내게다 어찌 밋살스러운 얼굴을 해가면서 웃어젖히는지 내 낮이 그만 뜨거워서 외면을 해버렸구나.

원봉: (익살스럽게) 외면을 하다니요, 달려들어서 고양이 할퀴듯이 낮 가족을 박박 할켜 주고 오시지 그밖에 어머니 체면 유지할 수단이 없었소 그려. 나는 내 체면이 있으니 이렇게 어머니 앞에 와 대들어 뵈이겠오 저 어여쁜 영순이 얼굴 쳐다보구 내얼굴 쳐다 보슈 (대든다)

최주사 댁: (깜짝 놀란 듯이 일어선다) 예잇 망나니 자식.

영순: 어머니 그만 들어 가셔서 옷 갈아 입어서요. 진지 다 차려 났는데.

원봉: (방안으로 들어가는 주사 댁의 등뒤에다 내다 붓치는 말로) 호호호! 그리고도 어머니 지금 가슴속에든 비밀 탄로 될까봐서 벌벌 떨면서 더러운 것 정한 것 찾아가면서, 호호호! 이런 산돼지를 내 났으면 왜 제멋대로 산에다 기르지 않았담. 제멋대로 뛰어 다니면서 놀다가 제멋대로 새끼 배어 가지고 제멋대로 죽어가게 왜 산에다 기르지 않으셨담. 일전에 내가 어떤 무슨 꿈을 꾸지 아시오. 나는 어머니만큼이나 아버지도 원망이오. 아버지도 자기는 동학인가 뭐에 들어 가지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위해 백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죽었다지만 결국은 집안에다 산돼지 한 마리 가두어놓고 만셈이야. 반백이된 머리털이 핏줄기선 부릅뜬 눈 위에 흘으려져 가지고 이를 악 물고 서도 대드는구려 「이놈 네가 내뜻을 받아 양반 놈들 탐관오리를 썩어가는 선배 놈들 모두 잡아죽이고 내 평생소원이던 내 원수를 갚지 않으면— 호호호호호. 산돼지 털을 벗겨주지 않겠다」고! 저승에 들어가서라도 그 산돼지 털이 벗어지지 않게 얼굴에다가 못 박아두겠다고 대어들면서 부젓가락만 한 왜 못에다가 주먹만한 철추를 갖고 덤벼드는 구려. 아버지 뜻을 받아 사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원수 갚고 반역하라고 가르쳐 주면서도 산돼지를 못난이만 뒤끓는 집안에다가 몰아넣고 잡아매어 두는구려! 울안에다 집어넣고 구정물로 변변히 집어넣지 않으면서! 호호호호! 산돼지 산 돼지 산돼지! 호호호호! 자 이 산돼지 얼굴 좀 더들여다 보구려 (방으로 쫓아 들어간다)

최주사 댁: (방안에서) 에구 망칙한 자식! 아 이놈아 글썽너 미쳤니! (소리. 영순이가 꿰어나와 다름질 해 올라간다)

[막 2막]

원봉이 집 건너 방 정면은 누 마루위 영창이 앞마당 쪽을 향해 있다. 원 편으로 대청을 거쳐서 안방으로 가는 영창 오른편으로 골방 두겹창 책장 책상 약병 화로등

가을밤.

원봉이가 이불을 덮고 누운 옆에 영순이가 앉아있다 병 안은 참 들고 치려는 잡지를 들고 앉아서 책장을 뒤적뒤적 하고 있다. 병인이 움직일 때마다 이불을 손보아 준다.

최주사 댁: (들어오며) 너 저녁 먹어라 그렇게 안 먹기만 하면 어떡허니 병인보다는 간병하는 이가 더 정신 차려야 하지 않니? 어서 가서 먹고 오너라. 잠깨기 전에 어서 가서 먹고 오너라. 잠깨기 전에 어서 가서 먹고 오너라 찌개도 다 좋아진다.

영순: (정신없이) 당초에 생각이 없어요. 구미가 돌아야지요.

최주사 댁: 억지로 라도 먹어야한다니까 그러는군 너까지 들어 누워 봐라 나 혼자 감당을 해낼것 같나?

영순: (일어나 가며 혼자 말하듯) 어디 조용한 산중으로나 들어가 버렸으면.

최주사 댁: (머리를 짚어보구) 아이구 이머리 뛰는 것좀 봐! (대야에 있는 손수건을 적시면서 머리위에 올려놓는다)

원봉: (눈을 떠보고) 몇점이에요?

최주사 댁: 이제 곧 아홉점 쳤다. 정신좀 낮니? (무답) 조용히 자야한다.

원봉: (잠았던 눈을 다시뜨고) 영순이 어디 갔어요 (머리위 수건을 때어 버린다)

최주사 댁: 안방에 있다 밥 먹으러 갔다.

원봉: 그애 밥 잘먹게 해 주어요. 반찬도 좀나치게 해주고요. 얼굴이 썩 빠졌던군요. 아마 내얼굴 꼴보다 더 빠졌을 겐요.

최주사 댁: 빠지기는 밥도 잘 먹는단다.

원봉: 왜 어머니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세요? 대여섯살 밖에 안된 어린애 로만 보이세요?

최주사 댁: 거짓말은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니?

원봉: 그리고 잠도 잘 잔단 말이죠 (돌아누우며) 그애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안볼때 하는짓 까지 환히 보이는데.

최주사 댁: 또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애한테 물어 보려므나 내말이 곧이 안듣기거든.

원봉: (한참 있다가) 어제 저녁에 어디 갔다 오셨오? 혁이한테 갖다 왔죠?

최주사 댁: (깜짝 놀라며) 아니, 그것도 얼굴에 그렇게 쓰여있니?

원봉: 쓰여있기는 고사하고 판으로 배겨 있어요.

최주사 댁: 또 꿈이나 꾸게로군 그렇게 헛 꿈만 꾸다가는 어떡허니 의원말은 잠을 못자니까 그런다고 하드라마는.

원봉: 걱정 마세요. 요사이 만큼 잠자면 넉넉하죠 밤낮 잠만 자다간 어떻게 하게. 호면병 환자가 아닌담에야 호면병이란 무슨 병인지 아세요? 눈 뜰새 없이 잠만 자다가 아주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구히 잠들어 버리는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어머니 얼굴도, 밤낮 우는 상하는 영순이도 혁이 얼굴도 다시는 안보고 마는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이런 병으로나 죽어 버리면

속시원 할듯 싶죠. 약살돈 안들이고 어머니 괴롭게 아니하고 이왕 죽으려 하는 놈에게 돈안써야 경제가 되겠죠.

최주사 댁: (목메인 소리로) 그개 또 무슨 소리니. 왜 그렇게 남의 속을 태우게 만드니?

원봉: 그 뿐인가. 내가 속히 죽어 없어져야지 나간호 하느라고 영순이 얼굴축이 안나지. 사위 고르는데 수월하게.

최주사 댁: 아이고 내 가슴이야!

원봉: 나같은 산돼지가 그런 소리밖에 더 지를게 있나요. 아 니 한마디 들어? 봅시다. 나 죽으면 영순이를 어디로 시집 보내시려우?

최주사 댁: 잠들기 어렵니? 잠오는 약 먹여주라?

원봉: 천만에 걱정 마세요. 이것봐요. 혁이는 산돼지도 못되고 집돼지 애요. 들돼지도 못되고 그러니까 더욱 탈이지요. (웃으며) 그런데 어머니 대답좀 하세요. 처음에는 그 집돼지를 미워해서 그리 때버리려고 애 쓰더니 요새 와서는 왜 또 그리 가까이 하려고 애쓰시오? 내 어머니 속은 참 모르겠오. 영순이가 내 병 봐주느라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집안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오? 아 대답 좀 해 보세요. 혹은 집돼지가 진화를 해서 들돼지가 되는 모양이요? 진화란 말을 아시요? 진보한단 말예요. 그러면 더 이상하지 산돼지가 들돼지로 들돼지가 집돼지로 진화하는 법은 있지만 집돼지가 들돼지로 퇴화하는 수가 있어요? 한번 집돼지가 되어서 구정물 얻어먹기 시작하면 영영 집돼지로 밖에 못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시종이 변해져요. 왜 아무말이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슴 이야. 하지만 어떤 곡절을 몰라서 더 아파 못 견디겠오.

최주사 댁: 어는 요새 와서 왜 그리 혁이를 미워하니? 그래도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드니 너부터 말좀 해봐라.

원봉: 어머니는 부끄러워서 말 먼저 못 해주시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말 하릿가!

최주사 댁: 해봐라.

원봉: 환한일 아네요? 제가 갖고있던 보석이 이제야 값이비싼 귀중한 것인줄 아니까 그럴것 아네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 준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아까운 진주같은 보석을 돼지 발밑에다 던지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더구나 위선자인 그 돼지가 내진주를 빼앗아 갈려고 하니 내속이 어떻게 상하게요. 이왕 돼지앞에 던져주려거든 그 더러운 집돼지에다! 더구나 그진주는 내가 모르기 전부터 내 것으로 말아 두었던 것을!

최주사 댁: (원봉이의 말을 못듣는 듯이 이리저리 돌리다가) 그개모두 무슨 뜻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 듣겠다.

원봉: 어머니가 곡절을 이야기 안해주시니까 내가 더 말씀해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드랍니다. 옛날 옛적에 상놈하나가 있는데 죽을때 친구되는 양반에게 삼살개 한마리를 선사로 주었드래요. 이 양반님은 그걸 받아 가지고 어찌 귀여운지 보물과 음식 넣어둔 곡간 옆에다 매두고 도적을 지키라고 했드래요. 그런데 그놈의 삼살개는 도적 지킬줄을 알아야지요! 도리어 도적놈한테 몽둥이만 얻어맞고 한마디 짓지도 못하고 있었드랍니다. 그러니 그양반놈의 속이 어떻게 상했을 거예요. 호

령을 해 가로대 「삼살개 에게도 양반상놈이 있구나 너는 도적 지킬줄도 모르니 잡아서 개장이나 해 먹겠다」 하고 나서는 불 일내로 그 개목숨이 떨어지게 되었드랍니다. 그개는 그래도 목숨이 아까워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살려만 달라고 애걸 복걸한 끝에 다시 보화곳간 문적이 노릇을 하게 되었드랍니다. 그런데 그개가 그때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지키고 있다는 곳간에는 별별보화와 산해진미가 들어있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 그래서 하룻밤에는 문을 뜯어 밀어 제치고 들어가서 한번에 모두 내것을 만들려 했더니 이번에는 도적놈이 나서서 방해를 치지 않겠오. 그 양반주인이 이걸 보고서는 어찌 분이 났던지 곳간 문을 죄다 열어 재치고 도적놈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최주사 댁: 주인도 주인이지만 그런 개가 있드란 말이냐?

원봉: 이건 내가 옛적 옛적에 꿈속에서 들어둔 이야기예요.

최주사 댁: (얼굴을 가리며) 별 이야기도 다 들어 두었구나.

원봉: 하하 내이야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최주사 댁: (번쩍 고개를 들고) 누가 무섭다고 그러니? 너 그런데 한마디 대답좀 해봐라 혁이가 너만 못하니? 영순에게 장가 올만한 자격이 못돼서 그러니?

원봉: 왜 그리 시치미를 뚝뚝 떼시오? (돌아누우며) 흥, 그렇지요. 그만 둡시다. 산돼지와 집돼지가 비교가 됩니까?

최주사 댁: 너왜 돼지 말은 그리 잘내놓으니? 무슨돼지 무슨돼지 이름까지 지어 가면서 귓속에 못이 박이다시피 듣고 나니까 나도 이제는 진저리증이 난다.

원봉: 그러니까 왜이런 산돼지를 집안에다가 두고 길르셔요. 그개 벌써 틀린 일 아녀요.

최주사 댁: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도 요새와서는 돼지꿈 가위만 돌려 못견디겠다.

원봉: 그개 더욱 내말이 내꿈이 거짓말이 아닌 증거예요. 그만 둡시다. 일이란 되어가는 대로밖에 더 될라구요.

최주사 댁: 아무리 병이 들었기로 이 가슴속도 좀 알아다오.

원봉: (한참 있다가 누운데로 상반신을 들어 최주사 댁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머니 거짓말도 그만하고 눈치 따기도 그만 합시다. 모자간에 서로 숨기고 있으면 그런 서먹 서먹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최주사 댁: 숨기기는 뭇을 숨겨?

원봉: 영순이와 내가 정말 친 남매간 입니까?

최주사 댁: (떨리는 소리로) 아이구 너 미쳐 가는구나!

혁: (밖의 마당에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영순씨 계세요?

영순: (안방에서 문여는 소리나며) 네 계십니다.

최주사 댁: 차선생님 이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원봉: (돌아누우며) 미친놈 누워있는 방으로 데리구 오지 말아요!

최주사 댁: 너왜 그러니?

원봉: 그자식 얼굴을 보기 싫어요. 이리로 데려왔다가는 산돼지 어금니 맛 보여 줄테니까 그리 아시오.

최주사 댁: 영순아 선생님 안방으로 들어가 앉으시래라

원봉: 영순이는 이리보내 줘야해요 (나가는 최주사 댁에게) 어머니 철모르는 영순이에게는 아무말 아니해야 합니다. 꼭 믿습니다. (최주사 댁 나간다)

영순: (들어오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지 않고 (원봉이 돌아누워서 못들은 척하고 있다) 벌써 주무실 때가 되었는데 일찍이 주무셔야 한다고 의원이 그러지 않아요? 밤 한시간의 수면은 아침 두시간의 수면보다 더 낫다고.

원봉: 너 요새 잠 잘랐니?

영순: 잘자구 말구요. 내잠을 반만 오빠에게 드릴수 있다면.

원봉: 너 잠 잘때 이상한 꿈꾸지 않니?

영순: 꿈은 무슨 꿈이예요. 오빠 잘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니깐 억지로 잠이들면 꿈만 꾸시는 게지요.

원봉: 바른대로 해! 내가 요새 꿈꾸는 것이 병이 아니다. 그만큼 요새 내 머리 속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 오는데 너도 그런 눈치를 알아차렸으면 왜 꿈을 안꾸리가 있니?

영순: 나는 오빠 잠 못 주무시는 것이 무서울 뿐이에요. 오빠 머리 속에서 무엇이 뒤끓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원봉: 정말이니?

영순: 아이구 거짓말을 왜 해요. 무슨 속 시원한 일이 있다고 오빠를 속인단 말예요. 설령 속 시원한 일이 있다기로 오빠에게다 거짓말을 한달 말예요. 너무 생각하십니다 병중에 생각만 하시면 해로워요. 병만 나으시면 무슨 생각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것 아녜요. 주무세요. 벌써 열한시가 가까워 가는데요. 그리고 내일 일찍 눈뜨시지요. 그러면 열도 빠질게요.

원봉: 에잇 듣기 싫다 (양인 침묵)

영순: (다시) 그만 주무셔야 합니다 이것 잡쉬 보세요 (산약봉을 집어오며) 오늘은 한봉만 더드리겠습니다. 오늘밤은 적어도 일곱시간은 주무셔야해요.

원봉: (이불을 열고 몸을 일으키려온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그만뒤!

영순: 그렇게 열이 있는데 주무시지 않으면 점점 더해지지 않아요.

원봉: 에잇! 그만 두라니까 열 있을때 약은 위장을 나쁘게 한데도 그러는군.

영순: 에그 이머리 좀 봐. 이런 불덩어리 같은 머리로 해가지고 안주무셔서 어떻게 해요. 그럼 해열제를 잡주세요. 주무시게.

원봉: 너왜 그모양 이니? 해열제는 더위장을 나쁘게 한데도. 너나 네어머니나 그저 날 잠만재우려고 애를 쓰는구나. 옆에서 무슨짓을 해도 모르게.

영순: (아무말없이 대야에서 수건을 짜서 머리에 얹어려 한다) 찬수건 이예요.

원봉: 그만 두라니까 거기가만 앉아있기만 해.

영순: (한참동안 외로운 얼굴로 혁만 보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만 흑흑 흐느끼기 시작한다)

원봉: 울긴 왜 울어! 에잇 못난것! (영순이 더욱운다) 나흐다질 죄인 노래나 불러다오.

영순: (얼굴을 들어) 불러드릴테니 이것 잡주세요. 해열제는

과히 위장 상하는 것 아니래요. (산약봉을 들며) 내말도 좀 들어줘요. 이것만 꼭 잡쉬 주세요.

원봉: 너왜 병인의 비위를 건드리 드니? 네고집 부릴려고 내옆에와 앉아있니? 나가! 나가거라! 나가라니까! 저 방으로 가! 안 갈테냐?

영순: (눈물 찌인 목소리로) 가라면 갈테야요. 그렇지만 그런 뜨거운 머리를 해 가지구 주무시지도 않고.

원봉: (일어 날려고 하며) 그래도 안나갈테니? 얼마나 고집이 센가 해보자!

영순: (일어나며) 갈테니까 가만히 누워계세요. 갈테야요. (나간다. 그러나 안방으로 안가고 마루끝에 앉는 모양이다)

원봉: (혼자 누어있다. 긴동안의 정밀 졸지에) 영순아! 영순아

영순: (뻐아 들어오며)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원봉: (얼굴을 골방 쪽으로 돌리며) 나흐다질 노래를 들려다오. 바쓰로는 그만 두고 테너로만.

(아래와 같은 노래가 이어가는 동안 원봉이는 잠들고 무대는 어두어 진다. 그리고 몽롱한 달빛같은 창백색이 나타난다. 다만 여름철 그믐 달

1. 발은낮도밤될갓치 감옥은어둡구
2. 멋대로되려다보렴 엇지넘나저담
3. 아아?갓히 무거운 이놈의 쇠사실

1. 나귀신놈의 두눈깔이 아아아아아
2. 을자유가 그리웁지만 아- 아-
3. 줄귀신놈의 두눈깔이 아아 -아-

1. 아 아아아 철창에서 엇보네
2. 아 - 아- 쇠사실은 무거워
3. 아 - 아- 직혀보고 셋구나

밤의 하늘과 같이 아무 것도 안 보인다. 노래는 다시 누구의 소린지 바쓰와 합창이 되어 가지고 되풀이 해나가는 동안에 무대에는 무한한 공간만 채워있는것 같다.)

몇번 노래가 되풀이 해 나가다가 제 일절이 끝나기 전부터 창백색이 좀 밝아온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병실 대신에 동한중의 별판이다. 늦은 경사의 야산이 낮으막하게 온곳 무대가 놓인 셈이다. 왼편으로 숲 잡목 오른편으로 언덕 여기 저기 석층 회색 겨울하늘이 낮게 열려 있어서 전경을 금시라도 와 누를것 같다. 지상과 언 뒤 위에는 약간 흰눈이 덮여있고 시시로 회오리바람과 눈싸래기 이하의 인물이 등장 하기전에 갑자년 동학당 진군의 행렬의 판토마임이 지나간다. 「오미년 수운대의」의 글자를 쓴 오색의 기치를 선두로 도중의 어깨에는 「궁을」 등에는 「동심의 맹」이라 박은 삼삼오오의 일대 환희와 경계와 격려와 혹은 혼란을 표시하는 판토마임 천천히 그러나

두지운 수천리 걸어온 피로한 보조로 지나간다. 무대 한참동안 공허.

병정: (산발한 원봉이네의 손목을 끌어 잡고 들어온다) 이년 썩썩 질러라! 너하고 같이가는 얼어 죽겠다.

원봉이네: (비틀 비틀하며) 제발 살려 줍시오.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더가겠습니다. (목메인 그나마 목세인 소리로) 제발 적선좀 해주세요. 저는 동학에 남편을 둔죄로 이자리에서 참형을 당해도 원통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뱃속에든 어린애기를 위해서 살려 주세요. 이 뱃속애기가 불쌍하잖아요?

병정: (따귀를 붙이며) 웬 잔소리야 잔소리가! 그때위 소리는 네멋대로 짓거리라니까 못들었니! 썩 걸어! 견지 않겠니?

원봉: (두손으로 합장하며) 이 애기를 위해 이뱃속에든 어린애기를 위해 제발 살려 주세요. 이 어린애가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병정: 에이 귀찮어. 그러니까 누가 네 새끼를 찢러 죽인다니? 관가로 가기만 가잔 말이야.

원봉: 더 걸어가다가는 정말 돌이다 죽겠습니다. 한발자국도 떼어놓지 못하겠어요. 만삭된 이 무거운 몸을 해가지고 삼십리나 걸어왔으니 아무리 몸이 튼튼한 년이라도 당할수가 있습니까?

병정: 아이구 이 경을칠년아 왜 말을 안듣니? 아니 작작 자빠져버릴까 보다 너 그러면 뱃속에든 새끼는 쪽 빼놓고 가자꾸나.

원봉: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고 그저 이야기 하나만을 위해 살려 주시오 이 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병정: 너 왜 그 애기가 죄없다고 그러니? 아 도적놈 애비들 둔 자식이 죄가 없어서? 그때위 소리를 누가 하드니? (사내란적)이라는 죄명을 모르니! 경을 칠 년 같으니! (발길질한다)

원봉: (비틀거리며 자빠지며) 이야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오오오.

병정: 공연히 애기 애기 하고 핑계만 하고 있구나 너하나 잡아 가면 돈이 쉰냥이야 돈이 쉰냥!

원봉: 그러면 며칠만 더참아 주세요. 불과 며칠만 그러면 애기가 나온 뒤에 말씀. 아니해도 관가에 가서 자헌 할게요.

병정: 이것 또 핑계세! 이번에는 꿈자리가 사납드니 별 요망스러운 년을 다 잡아왔네

원봉: 핑계가 아냐요. 핑계가 아냐요. 제발 불쌍히 여겨 주세요. 며칠 동안 참아 주시면 극락으로 가실 거외다.

병정: 아이구 이것 경치겠다 이제 염불을 다 내놓구 자빠졌구나 너 정 그럴테니? 너이자리에서 나한테 죽어볼테니? 네 목 하나라도 지고 가면 그것만이라도 열냥은 받는다!

원봉: 어찌 그리 무정한 소리를!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가요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오! (운다) 이 얘기하나만! 이어린 햇빛 한번 못본 애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오오오오!

병정: (옆으로 가서) 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길로 우리 집으로 가지 계집애가 나올지 머슴애가 나올지 누가 아느냐마는 나온 어린애는 내가 키울테니 너는 해산한 뒤에 나하고 관

가로 가자 응? 그러면 불쌍한 네자식 하나 살리고 난 돈 쉰냥 잃지 않고, 피차 적선 아니냐 네말과 같이 알겠니? 응!

원봉: (들여다보는 그이의 얼굴을 쳐다 보다가는 그만 벌벌 떨며 달아나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이 목숨 살려주시는 것도 과한데 댁에 폐까지 끼칠수 있습니까?

병정: (따라오며) 너 애 그러니 이 청이야 못 들어 줄 것이 무엇이냐 내 목숨 살리고!

원봉: (달아나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기를 위해서 제발 무슨 짓을 하드라도 애기만 나오면 해드릴테니, 아이구! 이게 무슨 짓이야, 이 개자식!

병정: 허허 너 미쳤구나! 돈쉰냥 못벌게 해 줄테면 홀아비놈 청이나 들어다구. (두팔을 잡고 한사하고 달아나려고 하는 원봉이네를 끌고 안으로 들어간다 흑흑 느끼는 소리. 포승걸린 박정숙이가 여기 저기 찢어진 의복으로 달아나온다.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 없는것을 안심한듯이 언덕 밑에 턱 주저앉아서 포승을 애써 끌르기 시작한다. 뒤에서 병정의 웃음소리가 나면서 원봉이네가 비틀거리며 나온다.

원봉: (사람들을 보고) 사람을 살려요! (정숙이 앞에 꺼꾸러진다)

정숙: (얕은뱅이 흉내를 지어가며) 적선 좀 합시다. 이 추위에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쌀도 없고 땀나무도 없습니다. 극락세계 가실 양이면 삼대 적선은 못하시드라도 이 병신 얕은뱅이하나 불쌍히 여기시오 극락세계 가실양이면---

원봉: (달려 들어) 아이구 여보! 이것이 어쩐일이요! 어쩐일이요!

정숙: (모른척 하며) 적선좀 하라니까 어쩐 일이요? 여보 두눈 갖고 사람 볼 줄도 모르오?

원봉: 내 얼굴을 잊었오? 불과 몇달에 아 서방님 공주서 싸우다가 붙잡혔다는 풍설은 들었어도 뒤에 아무리 기다리고있어도 소식이 없어 어떻게 속타고 애타게 기다렸든지? 이런곳에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귀신아닌 담에야 어떻게 안단 말이야? 하느님 고맙기도 하지!

정숙: 아마도 댁 남편되시는 분은 나와도 방불하게 생기셨나 보오. 이런 얕은뱅이에다 떨어진 옷을 입고 며칠을 굶어 썩 들어가고 먹을것 입을것 입을것 하나없고 이런 불쌍한 이가 조선 천하에 하나나뿐인줄 알았드니 내자신 같은이가 또 있던 말이요! 그렇지만 나는 댁같은 젊은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댁남편 되시는 분이 아닌줄로만 알구려.

원봉: (울며) 실성을 하셨오. 이제와서 날버리려 하는 소리요? 이뱃속에 든 애가 불쌍하지 않아요? 이 얘기만 아니면 이 당장에 목을 메어 죽어도! 내얼굴 좀 들여다 보시오. 그런 무정한 소리가 나올지.

정숙: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별일이 다 있구려. 적선을 해달라니까 남의 여인 몸뚱아리 달란것이 되었구려. 먹을것 하고 입을것하고만 적선해 주면 그밖의 적선은 다싫소 못하겠거 난 가겠오. (달아나려 한다)

원봉: (불들며) 서방님! 한번 목숨을 포교에다 바쳤으나 다 그만둔다드라도 이 뱃속 애기가 불쌍치 않단 말이요?

정숙: 세상이 하도 말세난리속이 되니까 별꼴을 다 만나겠네 공연히 안은뱅이 마누라가 될려고 자칭하는 이가 다 생기고 그만한 얼굴에 그만큼 젊어니까 남편될이 없어서! 이것봐요. 나는 싫으니까 가겠오 에이라 이팔을 놓으시라니까 그러지 않아도 가기어려운데

원봉: 그럼 대답 한마디만 해주시오. 이 뱃속에 든 애기에게 「나는 한번 보국안민시덕친하에 목숨바친 몸이니 잘자라서 불쌍한 어머니 봉양해 드려라」고 말한마디만 해주고 떠나시오. 나도 원통치는 않겠오. 그 한마디만 내 가슴 속에 새겨두고 이애는 남녀간에 기어이 임신양면 시켜놓을테니.

정숙: 아이! 왜 이러우? 그뻘애기 아버지는 나아나라도 그러는군.

병정: (건들건들 나와서 엿듣고 있다가 달려들어) 이놈 역적놈 포승 받아라!

정숙: (달려들어 싸운다) 병정을 발길로 내 부친다. 꺼꾸러져 움직이지 못한다 처에게) 너이 당장에 곧 집으로 가거라. 안갓다가는 너 이자리에서 이놈꼴 당한다. 처자가 다 무엇이냐! (붙들고 우는처를 내 부치며) 그만해도 못 알아듣겠냐. 못 알아 듣겠거든 가르쳐 주마 (내부치고 달아 내려 한다)

포리: (뵈어나와 달아나려는 박정숙이를 포박한다) 어쩐 영문인지도 모르고 공연히! 일어서! 이육시를 할 역적놈! 네 까짓너석이 달아나면 밧발이나 갈려고 어서가자! (끌고 나간다)

병정: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달아나려는 원봉이네를 붙들며) 이 쇠냥이 어디로 달아 나려고!

원봉: (악이 나서 달려들며) 이개같은 자식!

병정: (발길로 차내 부치며) 이산돼지 같은년! (원봉이네 소리를 지르며 자빠져 꼼짝 못한다. 들여다 보고) 흥! 쇠냥이 날아갔구나! 돈 쇠냥에다 밋지않도 얼굴에다 (침을 탁뺨으며) 이 까짓것 한번 죽은것 무엇에다 쓰나! (설렁설렁 걸어나가며) 그래도 죽긴 잘 죽었다 제가 살면 무엇을 해 산돼지 같은 역적놈의 새끼나 내 질이지! 주둥이가 이렇게 생긴 낮바다이 이렇게 된! 하하하하! (나간다)

(무대 다시 어두워 졌다가 발아온다. 여전한 장면 눈과 바람은 개이고 명광한 달빛만 원봉이네 꺼꾸러져 있던 그 자리에 그자세대로 원봉이가 누워 있다. 신음)

최주사 댁: (들어와 일으켜 주며) 아 불쌍해! 가엾어라! 못 일어 나겠니?

원봉: 어머니! 왜 이 모양으로 나를 내놓았오 산돼지 한마리 내 놓으면 무슨 극락 세계나 갈 줄 알았오?

최주사 댁: 원 몸이 아프니? 옆구리가 그리도 아프니? 그두지파로한 병정놈이 널 차 부쳤구나! 염라국으로 뵈아 보낼 녀석 같으니 오 불쌍한 원봉아!

원봉: 진한테서 불쌍하단 소리 듣기 싫어요. 무슨 심정으로 날 내놓았느냐 말이요 대답좀 해요?

최주사 댁: 내가 어찌 아니? 내가 어찌 알수가 있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원봉: (놀래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갔오? 우리 어머니 찾아주오.

최주사 댁: 내가 어떻게 아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원봉: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오? 그것이나마 찾아주오.

최주사 댁: 내가 어떻게 아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원봉: 당신도 언제까지 날 그렇게 속일 작정이요?

최주사 댁: (가슴을 쥐며) 그말을 내 입에서 듣구 싶거던 이 가슴을 칼로 찢어낸 뒤에 다시 물어 보려므나!

원봉: 그러면 영순이 더러 물어보겠오 그애는 날 사랑하니까 (영순이 나와서 이전에 처럼 철모르는 얼굴을 해 가지고 쳐다 본다) 영순아 너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영순: 오빠 어머니가 있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최주사 댁: (둘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애들아 그게 무슨 짓들이니?

원봉: (영순이를 입맞추며) 네 어머니가 저렇게 날 어린애로 대접하니까 어디 어머니 정이 들어오니? 너는 동생이지! 내 동생 변치 않는 내동생 내동생!

영순: 오빠 정숙이 년한테 굶히? 오빠 가슴은 내가 꼭 앓게 해 드릴 테야요. 이 몸이 녹아서 녹아서 백번이라도 녹아서 옛날 임금님의 발에 발라 드리던 약이 되는 것도 사양하지 않고! 불쌍한 오빠!

원봉: 아 영원을 잊어버렸던 산돼지 눈에도 눈물이 나는구나.

최주사 댁: 원봉아 내말 곧이듣고 참아라. 내말 곧이 듣고 참아라. 곧이 듣고 이해 어미되는 내 말을 곧이 듣고.

영순: 어머니 말도 곧이 들어줘야 해요. 네 오빠!

원봉: 당신한테 아무 관계도 없는 내게다 그게 무슨 염치없는 말씀씨요.

최주사 댁: 영순아 어서 나가봐라. 네나 내말 곧이 들어다오 혁이가 와 기다리고있다.

원봉: (영순이를 안고 안 놓으며) 혁이? 그놈은 연한 살에 고름과 마찬가지로. 이런 순결한 애를 당신 딸이라고 왜 중히 여기지 않소? 굶기지 않고 옷 안벗기고! 아들딸만 많이 낳게만 하면 그만 될것 같소. 이해는 그렇게 되기에 너무 순결하고도 깨끗해요. 여름밤 하늘별 보다는 더 귀엽고 값이 있어요. 이런 귀한 보석을 더러운 집돼지 발 밑에다 내 던질려고? 왜 자기 손안에든 진주를 그렇게 더럽힐려고!

영순: 나는 그래도 안 더러워져요 오빠! 나는 결코 안 더러워 질테야요. 오빠만 안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안 더러워 질테야요.

최주사 댁: 애야. 어서 나가보라니까? 만나갈테니? 그만 뒤라 내가 불러 오겠다. (나간다)

영순: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데! 오빠 혁씨 부르러 갔는데! 나가보고 올테야!

원봉: (영순이를 끌어안고) 네 눈은 곱구나. 저기 저 하늘 별 보이니 네 눈 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점없이 밝은 저 하늘이 보이니?

영순: 네 네 보여요. 잘 보여요. 어찌 그 하늘에 올라 앉은 것처럼 이렇게 몸이 가벼워 저요.

원봉: 몸이 마음이 다 편하지 않니? 하늘 끝까지 보이지? 넓고 넓다란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다 보이지? 그것이 하늘이다. 그리고 저기 저밑에 누른 먼지가 가득히 쌓인 세계가 보이지 않니?

영순: 네 네 보여요. 아이구 갑갑하고 더러운 세계 (눈을 가리며) 아 저런 속에서 어떻게 사니!

원봉: 너도 그곳에서 살아 있다.

영순: 이 후도 거기서 살아야 해요?

원봉: 너뿐인가 사람이란 말을 듣고 있는 온갖 사람들은 모두 그 먼지 속에서 낳고 그먼지를 들어 마시다가 그 먼지 속에서 죽어간다.

영순: 어머니도 혁이도 그 안에 있어요.

원봉: 아 그런것 이겨야 한다. 생각해서는 앓된다. 네눈, 네 눈, 저하늘 저하늘을 들여다보렴.

영순: 네 네 보여요. 그런데 저런 먼지 속에서는 어떻게 들 살고 있어요. 내려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 보이는데 그런데 저하늘은 저렇게 맑고 참 곱잖아요. 아 하나님 어찌면 이런 곳을 다 보여 줍니까? 저 답답한 먼지 속에서 나온 인생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아 어머니!

원봉: 그런 생각 잊지 않으면 하늘 세계에서 오래 살수 없다. 모두 잊어야 한다. 네 몸까지 잊지 않으면 저런 세계에 올라가지 못한다.

영순: 그건 또 왜 하느님도 그렇게 심술궂어요. 그런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 하느님이 왜 또 그런 무정한 법을 만들어 냈어요.

원봉: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구나. 저리좀 내려다보렴 이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모두들 올라오려고 애쓰지 않았니?

영순: 아 참 보이는군요. 저런! 저런! 비행기모양으로 날라가 똑똑 떠러지네. 에그 불행해! 어머니도 저속에 있어요? 혁씨도 저속에 있어요.

원봉: 아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서는 못쓴다니까.

영순: 아 오빠! 괴로워! 오빠! 나하고 저리로 올라가요. 아 괴로워! 여기는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 아네요! 구만리장천 저위에까지 같이 올라가요. 내 손 잡아줘요. 내가 끌어 올릴터이니?

원봉: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날 끄집어 올리니? 산돼지는 땅위에서 밖에 못 큰단다.

영순: 그래도 내 힘껏 끌어볼테야. 아 날 놓지지 말아요. 이 팔을 꼭 붙들어요. 이 팔을! 아 오빠!

혁: (들어가서 한참동안 보고 섰다가 그만 달려들어 영순을 끄집어낸다)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별 고약한 짓이 다 생기는군. 영순씨 저건 당신오라버니가 아니요? 아 그눈을 가지고도 안보이오.

원봉: 흥 왔구나. 너무 일찍 온게 잘되었다.

영순: (혁이 가슴에 안기며) 아! 선생님! (둘이 안고 나간다)

원봉: 흥 데려가거라. 산돼지한테 맡겼다가는 산돼지 뱃속밖에 못채운다.

최주사 댁: (들어오며) 내말 끝이 안들더니 그것보라 그래도 너를 갓난애부터 기루던 내가 아니니?

원봉: 어머니 흥계는 나도 이제 넉넉히 알았소. 그만두슈.

최주사 댁: 내말을 들어야한다. 네 어미는 너를 낳고 하루밤을 못새이고 죽어버렸다. 그때부터 영순이 아버지인정에 끌려서 너를 길러온 어머니가 아니냐!

원봉: 우리 아버지는 죽었오? 살았오?

최주사 댁: 그걸 날더러 묻니? 너도 미련하구나.

원봉: 그러면 아버지도 다르오구려! 왜 그런 이야기를 나 철든후에도 안 일러주셨오?

최주사 댁: 내가 어떻게 그 까닭을 네게 일러줄 수가 있겠니? 아 뭐라고 말해 줄 수가 있어야지. 무슨말로! 모두 내가 마음이 약한 탓이지.

원봉: 영순이 불쌍한 꼴이 눈에 안보이시오?

최주사 댁: 세상에 불쌍한 이는 많기도 하지만 마음약한 이 처럼 불쌍한 이가 어디있겠니? 가을 갈대 모양으로 약간 바람만 불어도 이리흔들 저리흔들 해지는구나. 내가 그래도 처음에는 영순이 아버지 유언이 있어서 네게 다 모두 얘기 해버릴려고 했구나. 그리고 혁이가 들어오는 것을 내쫓고 너와 영순이를 내외로 만들려고 했구나.

원봉: 핑계가 마음 약하다는 말이요 그래. 아이고 어머니 핑계 많은것 생각하면 머리속이 산란해지오!

최주사 댁: 내 가슴속 좀 알아다우. 난들 왜 사람이 아니겠니? 너를 갓난이 때부터 키워 오느라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너는 모른다. 세상 여편네가 애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지만 나는 그네들보다도 몇십배 몇백배를 더 어렵게 지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처음에는 영순이 아버지의 엄명이 무서워서 억지로 억지로 어니노릇을 해 오라니까 없는 것에도다가 유모도 대일수 없고 남의 눈을 속여가면서 얼마나 애타고 속탄 줄을 모르겠다. 그런다가는 사람의 정이란 이상한 것이지. 네 어머니가 그 짐승같은 병정놈한테 욕을보고 난 뒤에 그만 세상을 하직할걸 생각하면서 요위에서 앵앵 울고 있는 갓난이 얼굴을 드러다보고 앓았으려니까---

원봉: 이 얼굴을?

최주사 댁: 그때 내 가슴속이 어떻겠니? 불상한 생각에다가 네 아버지에 대한 의리도 있고 짐승이 아닌 담에야 나도 억지로 마음을 가다듬어 힘을 써 왔구나. 그러더니 똥을 지내서 얼굴을 알아 볼 때가 되어 오니까 네 그 얼굴로 날 쳐다보고는 방긋방긋 웃는것이 어찌도 귀여웁던지 그만 끌어앉고, 눈물을 흘렸구나. 네 어머니 혼백이 이것을 봤으면 나를 몹쓸년으로는 앓알았을게다.

원봉: 영순이 아버지는 언제 돌아갔어요?

최주사 댁: 네가 아홉살 되든해 영순이를 낳고 백일을 못지내서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다. 그것도 동학때 네 아버지와 한 옥에서 지낼때 얻은병이 덧나가지고 돌아 가셨다. 그때 유언이 『이애가 크고 내딸이 크거든 둘을 부부로 만들어 주라』 고 까

지 하셨다.

원봉: 그것이 벌써 실없는 계획이요. 당신집 종으로나 만들어서 대대손손입혀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것이지. 흥.

최주사 댁: 그런게 아니다. 영순이 아버지는 계사년 정월달에 청주서 봉소도청을 정해놓고 상감님한테 ??올린다고 야단들 한판에 그만 동학난으로 돌아갔구나. 갑자년 겨울에 네 아버지와 같이 잡혀서 하옥을 당했을때 어찌 서로 뜻과 생각이 맞았든지 그만 손가락을 끊고 의형제를 맺었더란다. 그런데 네 아버지는 어찌도 위인이 겁없고 힘세고 생각이 투철 하던지 첫째로는 영순이 아버지 목숨을 구할려고, 둘째로는 그때 ?이안, 봉황산 사?에 진치고 있었던 정부군과 일본군사의 내막을 정탐한것을 전봉준에게다 통고해 줄려고 하루밤에는 둘이서 탈옥을 했더란다. 그런데 불행히 영순이 아버지는 미쳐 다라나기 전에 붓잡혀 버렸단다. 그때 전봉준이는 순창으로 와 있을때데 거기 가는길에 태인서 김?남이와 같이 네 아버지도 그만 붓잡혀서 전주서 참수를 당했구나 그러니 네아버지와 영순이 아버지세의 의리인정이 어떠하겠니?

원봉: 그러면 우리아버지도 내 얼굴도 못보고 갔군!

최주사 댁: 아무렴. 탈옥한뒤에 네집에 들렸드란다. 마침 네 어머니는 만삭이 된 데다가 병정놈한테 욕까지 본뒤가 되어서 얼마나 서러웠겠니? 그래도 소용없이 둘이 툭툭히 씹만하고 나서는 네가 나오기도 전에 ?잡쳐 죽을려고 그만 집을 떠나가 버렸다. 영순이 아버지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살아나왔지만 그때 벌써 동학배의 운수는 다 기울어진 판이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불상한 너를 집으로 데려다가 여간 세간살이 다 내던지고 돈냥 약산 작만한테로 이리 저리 숨어다니면서 성명까지 갈고 벼슬아닌 주사까지 돼가지고 이리로와서 살게 되었구나. 그때 동학배란 동학만 입에 짓거리도 그만 역적으로 몰아서 일문일죽을 다 없앨때이니까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르던 고생은 여간이 아니었다. 지금 내마음 약하다고 한탄하지만 실상은 내 간통이 그때 절반은 줄어진 까닭이다.

원봉: 참 어머니도 가엽기는하오. 그러나 지나간일 다 무엇하오? 이자리 이곳에서 이야기 합시다. 그러.

최주사 댁: 그러니까 말이지. 일이 이렇게 된것도 다 그때 의리로 데려온 너 때문에 내교생 내한숨에다가 영순이까지 불상한 처지에 빠지게 되지 않았니?

원봉: 나 때문에? 흥, 누가아오. 그병정놈 때문인지, 동학배 때문인지, 우리 아버지 때문인지 영순이 아버지 때문인지 또는 영순이 때문인지 누가 아오! 하느님 때문인지도 누가 아오! 하느님은 목숨만 내주었으니까 이잘난 인생들 때문인지도 누가 아오! 때문을 찾는것은 그리 잘난생각은 못되오. 다만 이자리 이곳에서 이야기 해달란 말이요.

최주사 댁: 너는 이곳 이자리라지만 그래도 이야기하자면 그 전일이 나오지 않니? 네가 정숙이란 년한테 반해서 야단 칠때에는 어찌 그년이 미운지! 끝이 반히 보이는 일이니까 내마음속이 얼마나 분했겠니? 그년손에 날마다 더럽혀 찍어져가는 네손목을 칼로 고만 뭉텅 끊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 짐작과 같이 그년이 너를 발길로 툭 차버리고 그 음흉한

이가와 붙어서 일본으로 달아난 뒤에는 더구나 내속이 어떻겠니? 하루에도 몇번씩 그냄새 앓말을려고 밖으로 피해 나갔는지 몰랐었다. 이만큼이나 어미되는 나는 너를 생각 했다. 이곳 이 자리에서 라지만 이 어미 마음은 너도 알아 주어야한다.

원봉: 또! 또! 또! 또! 거짓말! 아까 무엇이라고 했소? 의리아닌 나를 데려다가 키웠기때문에 어머니 가슴속 고생이 모두 생긴것이라고 하지 않았오! 그렇게 미웁게 나올지 생각하지 않았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생각한 끝에 정숙이를 그렇게 미워하셨다고? 명순이를 사랑하기때문에 질투심이 나서 그렇게 미워한 것이라고 바로 대시오.

최주사 댁: 아 날 그렇게 미워할게 뭐니?

원봉: 명순이를 위주로 해서 날 생각하는 것이 미워요. 그것이 안 미우면 어떤 것이 미운것이 있겠오.

최주사 댁: 내가 영순이를 전혀 안 생각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겠지만 영순이 생각도 결국은 너까지 한꺼번에 생각한게 아니겠니? 너희 남매들을 다 행복스럽게 만들어와야지 내 속도 편안해지지 않겠니?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미워요! 미워요! 미워요! 미워요!

정숙: (정숙이 뛰어들어와서 최주사 댁 얼굴 앞에 대들며) 미워요! 미워요! 미워요! 내가 몸쓸년이기 때문에 욕한게 아니고 영순이 생각한 끝에 날때려고 했다고 바로 대어요!

최주사 댁: (악을쓰며) 네 독사같은 년! 누구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니? 이 더럽고 뱀같이 흉한년!

정숙: 아주머님은 얼마나 깨끗하고 착한 마님이셔요? 누구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오?

최주사 댁: (달려드는 정숙에게서 피해나가며) 이 더러운년! 흉한년!

정숙: 이 깨끗하고 착한 마마님!

최주사 댁: 일본에서나 있지 왜 또 기어 나와서 무슨 낫을 들고 짓거리! 너는 낮가죽도 없니?

정숙: (원봉에게) 조선 온것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잘못된 일이어요? 저 여인이 날 저렇게 미워하는게 영순이 불쌍해서 하는 소리 아니요? 아! 그렇게 외면만 하고 있을게 뭐야! 당신한테 속고 광은이 한테 속아서 고향 품에 안기려고 온것이 그리 못쓸 일이어요? 그리고 나서는 당신에게 사람다운 과실을 용서해줄려고 하는것이 못 쓸일이야요?

최주사 댁: 저 주둥이까는 것 좀 봐! 뻔뻔스럽게.

원봉: 무엇이야! 사람다운 과실을 용서하려고? 누구에게서 그따위 소리를 배웠니? 광은이 따라서 일본까지 갔다오더니 겨우 그것 배워 가지고 왔구나 허지만 난 예전 원봉이가 아니다. 벌써 옛날 원봉이는 네송장과 같이 북망산으로 날라갔어.

정숙: 나도 성인아닌 담에야 내 잘못을 모르는게 아니요. 나는 내 송장 속에서 다시 살아나려고 해요. 예전 것을 죄다 태우고 그랫속에서 다시 살아 나오는 새가 될려고 왔어요. 펄펄 날아서 예전에는 꿈고 안끼었던 새 나라로 들어 갈려고 해요. 그래도 모르시겠오? 그만큼이나 당신은 나에게 힘을 주었어요. 끄지 못할 불로 태어났어요. 그 갓속에서 피어나는 참다운 꽃을 당신까지 침뱀아 버릴려고 할것이 뭐예요.

원봉: 예전에는 그런 소리를 내가 아니 했었니? 그보다 몇 갑절 곱고 단말로 날 속여왔지? 무덤위에 피는 꽃이 고으면 얼마나 고울줄 아니? 내가 아무리 몇백번 몇천번 화생을 해서 곱게 된다 하더라도 해변가에 핀꽃과는 어림도 없다. 너같은 인생의 발자취가 가서 더럽히지 아니한 애처러운 해변가에 피는 꽃을 내가 보거나 했니? 이 송장 속에서 나온 품! 썩 발길을 돌이켜서 나가거라! 안나갔다가는 다시 불질러 버릴 테니까!

최주사 댁: 애야 곱게 말해라 지금와서 싸우면 뭐 이될게 있니? 정숙아 나도 사람이다 사람다운 과실을 가졌구나 네말 모양으로 내가 널 미워한 것은 원봉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게지 결코 내가 못쓸 애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밋고도 미운것은 너를 발길로 내찬 원봉이지!

정숙: 그러면 날 용서해주실 테어요? 아주머니! 이 눈물을 무엇으로 막아야 할지?

원봉: 또 그런 거짓말을! 어머니 당신은 체구속까지 에고이즘에 독이 들어있거려. 언제는 정숙이 어머니한테 가서 체면만 차리고 오드니 이제는 정숙이 앞에서서 현모노릇을 할려고 드는구려. (머리를 돌려 썩여) 아 영순아! 영순아! 왜 벼락이 오지 않니? 왜 벼락이 오지 않니?

최주사 댁: (울며) 어떻게 하면 좋으니? 아 너는 나만 가지고 골리려드니, 다늬어빠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모두가 잘못이다. 날 이런 구렁에 집어던진 것은 시초가 모두 동학인가 무엇인가가 지랄을 했기 때문이구나. 모두 죄를 받으려고 염병이 들어가지구 살생을 하고 겁탈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나서는 허다못해 죽은 송장에다가 침까지 뺨고 있으니 무슨복이 돌아오겠니?

정숙: (손에 커다란 옷과 장도리를 들고 쫓아나와 원봉에게 대든다) 그 산돼지할 벗겨져서는 천지 개벽이 생기겠다. 이놈! 달아나긴 어딜 달아나! (쫓는다. 최주사 댁과 정숙이 손을 잡고 달아난다) 일평생은 그만두고 저승에 들어가서도 벗겨지지 않아야지! 자 이 못 받아라!

(무대 급히 어두어졌다가 밝아지면 예전의 병실이 다시 나타난다)

영순: (고민하는 원봉에게 달려들어 이불을 헤치고) 오빠! 오빠! 정신차려요!

원봉: (가슴에 와 닿는 영순이의 손을 밀어내며) 아! 아!

영순: 오빠 잠 깨세요! 오빠!

원봉: (눈뜨며) 영순아! (가쁜숨)

영순: 정신차리세요. 무슨꿈을 꾸시길래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땀을 닦아준다)

원봉: (영순의 손을 잡아다가 입에 꼭 대이며) 영순아!

최주사 댁: (혁이와 같이 쫓아 들어오며) 왜그러니? 꿈꾸었니?

영순: 가위눌린 모양이에요.

원봉: (혁이를 보고) 왜 너 또왔니? 그 잘난 얼굴 나한테 보여야 땀푼어치 못된다. 어서가 잠이나 자거라.

영순: 오빠!

원봉: 어서 가! 가라니까! 안갈테니

최주사 댁: 너 그게 무슨 못난 짓이니? 아무리 병중이기로 무슨 짓이야. 병중이면은 어린애가 아닌담에야 속갑잡한 것이 라도 억지로 참고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원봉: 보아주는 이도 아닌담에야 병인마음 좀 편하게 못해 줄것이 무엇있오.

혁: 이 밤중에 누가 문병하러 오겠다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지 (원봉 대답없다)

최주사 댁: 너 지금 정숙이가 온다면 대면하겠니?

원봉: (한참 있다가) 언제 왔습니까?

혁: 그저께 자네 병말을 듣고 동경에서 쫓아나왔다네.

원봉: 누가 내병을 통보해주었길래?

최주사 댁: 누가 해 줄이가 있겠니? 저의 어머니나 한계지

혁: 그외엔 누가 편지할 이가 있어야지.

원봉: (몸을 돌려 최주사 댁 얼굴을 쳐다보며) 그건 왜 그 따위 짓을 했수?

최주사 댁: 내가 무슨 짓을 했어 하기는.

원봉: 어머니 피 다 알아요. 피부리고나서 모르는채 하는 것이 싫어요. 개똥냄새보다도 싫어요.

혁: 내가 바로 말하지. 정숙이가 광은이와 같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간지 불과 한달사이에 틈이 버러지기 시작해서 견디다 못해 달아나왔데.

원봉: 오긴 왜 와! 넓은 바닥에서 더 발전해나가지

최주사 댁: 그래도 사람다운 곳이 있어서 고향으로 온게 아니겠니?

혁: 그래도 정숙이는 악인이 아닐세. 그런 꼴을 당하고 나니 본성이 음흉하지 않은 담에야 왜 정신이 안나겠나 그래 와서보니 첫째로는 광은이가 일본갈 때 청년회의 손을 빌어 가지고 우리회 내부를 교란시켜서 자네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한 내정을 알았네. 동시에 정숙이를 피인 것도 실상은 자네에게 불풀이한 것인줄 알았네. 그리고 나니 그애 생각이 어떻게 되었겠나? 내가 사실대로 자네 병을 이야기해주니까 울면서 나를 때 까지라도 간병할터이니 기어이 허락을 맡아 달라고 하네. 지금 자네 병상으로 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아니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정숙이가 그만큼 눈이 편것을 생각하니 설령 자네가 허락을 안해 준대도 나로서는 탈아니하고 지내겠는가.

최주사 댁: 내 생각해서는 거기서 다른 놈하고 붙지 않고 온갖 나쁜말을 들을것도 미리 알고서도 이리로 온 것만보아도 그애가 본래부터 나쁜 계집애가 아닌 것 같다.

혁: 위 「프로디칼썬의 귀향」 이란게 있지 않은가? 자네로서는 넓다란 가슴을 열어서 사랑하는 자식의 귀향으로만 알고 무정한 것은 아니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 혹은 자네의태도 인해서 그녀는 영영 아깝게 버려질른지도 누가 아나. 그런애란 조그만 동기로서도 기울어지기 쉬운 성질일세. 그것도 주악으로 가거나 극선으로 가거나 중간에 쳐겨있지를 못하는 성질이야.

원봉: 어머니는 그애를 기어이 며느리로 삼으실 작정이십니까?

최주사 맥: 머느리로 삼고 안삼긴 어떻게 지금 말하겠나?

원봉: (한참 있다가 혁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게. 대단히 고마운 말이지만 내병은 그리 중한 병이 아니니까 걱정말라게. 그리고 억지로라도 내눈앞에 나타났다가는 내 병이 정말로 덧쳐질테니까 그런 생각은 아주 단념하라고.

최주사 맥: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남의 가슴을 몰라주니? 설령말할수 없이 악독한 사람이기로 불쌍하지 않니?

원봉: 불쌍? 그렇게 불쌍하거든 수도원으로도 가라지요

혁: 자네도 지금 곧 대답은 못할테지만 밤중이라도 잘 생각해보게.

최주사 맥: 너 그렇게 생각마라. 잘못은 잘못이고 인정은 인정이란다.

원봉: 피는 피고 나는 나야요. 다시 여러말 마십시오.

혁: 그건 자네가 너무 없수이 여기는 말일세. 자네 어머니 요새 가슴속 타는 줄을 자네는 모르고 누웠네. 그리고 설마 어머니로 앉아서 아들된 사람에게 피를 부린다기로 나쁜일을 권하겠는가.

원봉: (옆에 있던 약병을 들어서 내때리며) 잔소리 듣기 싫어! 나가! 어서 나가! 거머리 같은!

[막 3막]

제2막 몽환장면이던 산등별판, 봄의 앞잡이인 진달래가 여기 저기 초록빛 연한 잔디가 가득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초춘의 푸른하늘이 높게. 원봉이가 양지벌을 원뿔에 받아가면서 혼자 기대고 있다. 기지개를 폈다가, 하품을 했다가, 일어나서 거닐다가, 심호흡을 하다가 한다. 시계를 내보기도 한다.

영순: (손에 책을 들고 들어오며) 뭐 기다렸지요?

원봉: (책을 받으며) 그것쯤 가지러 가서 그렇게도 오래 있었니?

영순: (웃으며) 오빠 좋아하는 시라기에 나도 좀 외우고 올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잔디밭위에 뛰노닐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크앙을 보아주실 수 없을가— 어쩐다고? 오다가 죄다 잊어버렸네.

원봉: (영순이 얼굴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다가) ?에 누가 와 있드니!

영순: (놀래며) 오긴 누가 와 있어요. 누구 기다리시는 이가 있어요? 나는 아무도 못보았는데.

원봉: 전에도 네게 말하지 않드니? 속이는 버릇 버리라고, 어머니 본받지 말고.

영순: 에그 오빠!

원봉: 정숙이 왔지? 그래서 늦어졌지 아마. 바른대로 말해라.

영순: 어찌 아세요.

원봉: 그러니까 내게는 속이지 말란 말이야.

영순: (웃으며) 아니요. 그만 했으면 정숙이도 염치가 있을텐데 또 와요? 오빠. 그래도 전연이 못 잊어버리겠지요?

원봉: (책을 영순의 코일 밑에 갔다 대이며) 누가 못잊어 그러니? 이것이 뉘 냄새야.

영순: (말아보고) 내 손에서 묻은 거예요.

원봉: 오-드 콜오유를 내가 가지고 쓰니? 이 거짓부렁이!

영순: 오빠도! 사냥개같구려.

원봉: 그것보렴. 왜 또 왔다드니 또 어머니하고 짓거리고 앉았지?

영순: 그까짓것 물으셔서 무엇해요. 그만 두세요. 그 시나 읽읍시다요.

원봉: (일으키며) 내가 이 잔디밭위 뛰노닐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보아주실 수 없을가

어린아기가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어리광함과 같이

내가 이 잔디밭위에 짓둥 거릴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참으로보아주실 수 없을가

영순: (들여다보고 같이)

미칠듯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엄마! 엄마!」 소리를 내었드니

땅이 「우매!」 하고 하늘이 「우매!」 하옵에

어느 것이 나의 어머니인지 알 수 없어라.

원봉: 혁이는 안왔드니?

영순: 아니, 참 서울갔대요.

원봉: 서울? 언제?

영순: 정숙이가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원봉: (웃으며) 혼수 흥정하러 간게구나. 혼자 갔다드니?

영순: 외사촌 숙모님하고 같이 같이는 그이 밖에 없는데 그이는 자기 일이 있어서 남자가 상치된다고 오늘 새벽에 떠났대요. 급히 집에도 못와보구 떠났대나요.

원봉: 못와본들 무슨 미안할 것이 그리 있니? 집에서 살것은 모두 달았으니까 사다가 줄때 와보면 그만이지. (한참 있다가) 그 여편네는 왜 그리 남의 일에 주변을 잘 내는지 시집가면 네게도 큰 복일게다. 그만한 이도 드물어 첫째로 늙은대로 그대로만 성정을 갖고 있구나. 요새 늙은이들이란 죄다 각쟁이들 뿐인데 젊은이만 보면 공연히 색안경을 쓰고 보려 들지 게다가 늙은 값하느라고 제고집대로만 하려고 드니 젊은이와 뜻이 맞아야지.

영순: 아들없는게 한 이래요.

최주사 맥: 아들 없드래도 그런 늙은이라면 세상젊은이가 모두 자기 아들 딸이 될것 아니니?

영순: 그래서 내가 혁이집 사람되면 날마다 와서 시어머니 대신 노릇해주마고 너털웃음을 웃겠지요.

원봉: 그래서 너는 무엇이라 했니?

영순: 난 날마다 바느질 배우겠다 했조.

원봉: 바느질 시어머니 노릇이로구나 (웃는다) 요새 계집애들은 너무 바느질을 모르는 모양이더라. 시집살이하자면 바느

질 못해서 어떻게 하니?

영순: 오빠도! 언젠가는 바느질하나도 할줄 모르고 밥지을 줄 몰라도 여자에게 치명상은 아니라고 한참 세우더니.

원봉: 그전 말이지. 지금은 내생각도 변해졌다. 이왕 남녀가 한 집붕 밑에서 남편하는 일 아내하는 일, 다 달라질 것 아니니? 일전에 일본에 온 어떤 신문에 보니까 여자가 자행차타고 가는 옆에 남자가 애기를 엮고 허덕거리고 가는 만화가 있더라.

영순: (웃으며) 정 반대일세.

원봉: 너는 웃지만 그런 변태현상을 긍정하는이가 있단다. 나도 그전에는 사회발전의 길에서 할 수 없는 과정으로 알았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상의 사실인 이상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이유를 가진 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존재이유는 가졌더라도 변태현상은 변태현상으로 보아야한다. 이 변태현상이란 점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이란 아무 가치없는 것으로 밖에 안된다. 이를테면 요새 소위 신여성들이 바느질할 줄 모르는 것을 예사로 알고 또 당연한 것으로 아는구나. 이것은 역시 조선의 여성의 해방도정에서 당연한 불가피의 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변태현상이로구나 하는 의식이 없는 한 그 앞으로 더 큰 해방은 얻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어느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것이 그른 것인지 모른다. 다만 옳고 그르다는 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하느님 눈에만 보일 게지만 다만 변태로군 하는 의식만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서 어떤 큰힘이 나온다. 이 의식이 없으면? 하고 묻겠지.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인 이상 없으리가 없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송장이나 화석된 인간뿐이지. 죽지않고 살아있는 인간인 이상 반드시 더 큰 힘과 영감이 나온다. 이 힘과 영감이야말로 절대다. 이 영감이야말로 막을 수 없는 바다 물결 모양으로 완고한 암석앞에 와서 부딪친다. 싸우려고와 부딪치는 게 아니라 부딪칠려고 와 싸운다. 이 싸움이 우리가 역제치 못할 것인 이상 누가 선악을 말하겠니? (영순이 심심한 얼굴을 짓는다. 웃으며) 제 춤에 놀아가지고 그만 연설이 되버리는구나. 그만두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연설할 것은 「최영순이는 바느질 잘 해야한다」는 말뿐이다.

영순: 여자는 밤낮 바느질 만하고 들어 앉았으라고요? 오빠도 이제 반동일세.

원봉: 그것도 전혀 거짓말은 아니다. 그래도 내 말 좀 더하겠다. 가정이란 것이 있는 이상 가정내의 온갖일, 즉 밥짓는 것, 옷 꿰매는 것 빨래하는 것 애냥고 기르고 가르치는 것 심지어 방쓸고 걸레질치는 것, 창구멍 뜯어지면 종이바르는 것, 온갖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니? 그렇지?

영순: 그래서요.

원봉: 그런 이상에는 이를테면 네가 혁에게로 시집가서 그런 일을 죄다 혼자 해 나가겠니?

영순: (웃으며) 일이 없으면 심심풀이해서라도 혼자 하지만 바쁠 때는 어떻게 해요.

원봉: 동시에 혁에게다만 맡기지도 못할 게지?

영순: 더구나 그이는 바쁠텐데.

원봉: 그러니까 서로 일을 바꿔하게 되지 않니? 즉 분업이

로구나. 빨래는 누가 해야 올겠니?

영순: 내가 해도 좋고 힘이 있으니까 틈이 있으면 혁이가 해주어도 좋겠지요.

원봉: 그러면 밥짓는 것은?

영순: 날 시험하시는 모양애요. 밥짓는 것은 사내가 하면 태운대요.

원봉: 그러면 옷꿰매는 것은?

영순: 사내는 성질이 차분치를 못하니까 바늘구멍도 하나 너 너히 꿰지 못한다요.

원봉: 만일 차분한 사내가 되면 어떻게 하니?

영순: 그러면 그 사내가 해줘도 손해 될건 없겠지요. 싱거회사 사무원모양으로.

원봉: 즉 남편성질이 차분하면 남편이 하고 차분치 못하면 안해가 하고 그래야겠구나.

영순: 그건 저의들끼리 의론할테지요.

원봉: 그러면 결혼할 때에 바느질하기 싫은 여자는 바느질 잘하는 남편을 얻어야겠구나 너 혁이 바느질 잘하드니?

영순: 아이고 몰라요?

원봉: 그런데 첫째 결혼 조건은 너도 알다시피 사랑이 제일 조? 맞아서 제 그조 이하로 온갖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결혼을 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여자 너 모양으로 바느질하기 싫고 또 그 까닭으로 바느질할 줄 모르는 여자라고 하자. 그래서 결혼전 이상에는 바느질 잘 하는 이를 구구해야지. 결혼한 뒤에 말가 벗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니니? 그래서 혁이 같은 바느질 한줄기도 흉내내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겠니?

영순: 설마 말가벗을라구요. 돈주고 사입지도 못해요?

원봉: 돈은 누가 내고 즉 부자남편을 얻어야겠구나 그런데 혁이는 그리 부자니?

영순: 왜 이러세요. 공연히 봄이 되어 오니까 참 이시오그려.

원봉: 조것좀 봐, 불필요한 대목에 와서는 그만 뚜껑을 덮어 버리려하는구나.

영순: 오빠 말대로 하면 여자는 안해되기 위해서 바느질만 배우란 말이구려.

원봉: 여자가 안해 안될 수 있니? 예외는 빼놓고 말하자 여자는 누구든 남의 안해가 된다. 결혼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는 것이 즉 여자가 되려고 바느질 하는 것이 아니겠니?

영순: 걱정마세요. 나도 저고리 적삼쯤은 꿰맬 줄 아니까

원봉: 혁이 의사촌 숙모님한테 바느질시어머니 되어 주십사고 청할 만큼 알고 있단 말이지? 훌륭한 안해가 되겠구나. 이것 보라. 온갖 것이 천분이 있고 전업이 있고 본직이 있다. 천분과 재능에 맞는 본질이 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본질을 걸어야 한다. 이 본질에 들어서지 않으면 실패의 생활뿐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한가지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 정치가, 상업가, 농부, 공인, 어부, 웅변가대로(?로) 연설가, 음악가, 시인, 예술가, 비평가 좀 많으니?

영순: 그러면 오빠의 본질은 무엇이예요?

원봉: (웃으며) 무엇이 될가 네가 알아맞춰 보렴.
영순: 정치가?
원봉: 내게 타협이 있니?
영순: 예술가?
원봉: 기교없는 예술가는 없다. 내가 어느틈에 기교를 배워 놓았겠니?
영순: 상업가?
원봉: 내게 겸손이라곤 이욕이라곤 조금도 없다.
영순: 비평가?
원봉: 그것은 될듯 싶다. 현실의 가치와 새 의식을 찾으려고 애쓰는 점에서는.
영순: 의심중이오구려.
원봉: 의심중은 아냐도 내 본질의 전부는 아니지.
영순: 그러면?
원봉: 네 생각에 나같은 산돼지에게 무엇이 제일 능하겠니?
영순: 에그 또 그런 소리만.
원봉: 왜 너는 이따금 내말을 농담으로만 알아듣지.
영순: 왜 걸핏하면 산돼지래요. 나는 그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원봉: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이 현실 속에 떠러지면서 부터 이 탈을 쓰고 나왔다. 이것을 벗으려고 하는 것도 헛 애쓰는 거지만 동시에 그것을 안 볼려고 피하는 것도 거짓이다.
영순: 그만 두세요. 다른 이야기해요. 아이고 벌써 나비가 나왔네. (일어나서 잡으려고 따라간다)
원봉: (가슴을 벌여 심호흡한다) 아 봄!
영순: (흰나비를 잡아서 들고 들어오며) 이것 좀 보세요. 하얀 고은 나비!
원봉: (손뼉을 치면서) 큰일 났다 초봄에 흰나비 잡으면 상제된다드라 하하 놀지 마라. 누른 나비를 잡아야 상제된다는 것은 내가 몰랐다. 흰나비 잡으면 복있을 일이 온다는데.
영순: 정말이예요?
원봉: 정말이구말구 그것 봐라. 나비는 다같은 나비인데 하나는 복이오 하나는 상제가 되는구나. 첫첫 첫사랑이란 그렇게 위협스러운 것이다.
영순: 악이 오도! 이상스러운 소리만 내놓으시네. (풀이 죽어지며) 날려 보낼가? 불쌍해—
원봉: 저 꽃 위에다 올려 놓아봐라. (영순이 진달래 꽃 위에다 올려놓는다. 한참있다 활기차게 날라간다) 네 복도 저 모양으로 하늘 끝까지 가 닿겠구나. (유쾌히 웃는다. 정숙이가 들어와서 이 모양을 보고 섰다)
영순: (눈에 뜨이자) 에그 정숙이 언니!
정숙: (가까이 오며) 남매들이 재미스럽게 노는데 한축에 끼일려고 왔다.
영순: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원봉: (무심한 얼굴로) 누가 오래서!
정숙: 왜 내가 남이 가라 오라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요?
원봉: 축에 든다니까 말이야.

영순: 왜들 또 그래요. 이 봄 잔디밭 위에서 재미있게 놀다 가지. 봄빛이 아깝지 않아요.

정숙: 그러니까 지금 오지 않았니? (원봉에게 말하듯이)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봄은 봄 아니어요. 봄이 오면 누구에게든 와야지 참말 봄이라고 할 수 있지.

원봉: (앉으며) 정숙이 같은 이에게도 봄이 오나?

영순: (정숙이 손을 잡으며) 오빠가 좋아하는 시 보았지?

정숙: (책을 든대로 외운다)

내가 이 잔디 위에서 뛰노닐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보아주실 수 없을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가슴 속에 안겨 어릿광함과 같이
내가 이 잔디밭 위에 짓둥거릴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참으로 보아주실 수 없을까
미칠 듯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엄마! 엄마!」 소리를 내었더니
땅이 「우애!」 하고 하늘이 「우애!」 하오매

어느 것이 나의 어머니인지 알 수 없어라.

영순: 이 사람 시는 어떤 것은 좋아도 어떤 것은 징그럽더라.

정숙: 징그럽기는 해.

영순: 징그럽다는 것보다 기름기가 줄줄 흘러요. 그것도 가을철 살위에 흐르는 기름기라.

정숙: 너 같이 신선 꿈꾸고 있는 애가 그런 시를 좋아하겠니? 너는 이런 것이 좋지?

이밤의 저 달빛이 야릇이도
왜 그리 사람의 마음을 혼드는지
가없이 가없이 서러웁고나
아아 나는 이달의 울음을 쫓아 한없이 가련다.
가다가 지새는 달이 재를 넘거든
나도 그 재위에 홀로 쓰러지리다

영순: (췌치멘탈 해지는 정숙이를 보고) 시인이란 남의 속만 상하게 만드는 것이야. 이런 것 다 그만 뒤요.

정숙: 너 결혼하면 내게 뭘 선사해주려니?

영순: 무엇이든지 초대장 보낼테니 꼭 와야 해.

정숙: 너 육언어 먹고 날 원망 않겠니?

영순: 언니도! 육은 무슨 육을 얻어먹어.

정숙: 혁씨가 제일 육언어 먹을 걸 그렇지만 상관 있니? 너만 날 생각해주면 다른 이야 뭐라드래도.

영순: 아이구 고을이 좁아 놓으니까 그리 할말이 없어서 이만한 것만 가지고도 야단들이야.

정숙: 나 먼데로 가드라도 잊지 않고 편지해야한다. 그러겠지?

영순: (놀래며) 어딜 또 가우? 이번엔 나도 좀 따라잡시다. 혼자만 다니지 말고.

정숙: 별 소리를 다하는구나. 누가 간됐니, 만일 말이지 사람일 누가 알아서

영순: 나는 깜짝 놀랬구먼. 오늘이라도 어디로 달아 난다구.

정숙: 겁도 많다. 설령 내가 어디로 간다기로 그리 놀랄것이 무엇이야.

영순: 놀래지 않아? 그러면 언니도 참! 남의 속도 몰라주고

정숙: 그말 들으니 나도 마음놓고 어디든지 가겠다.

영순: 정말로 어디 가려우? 속이면 난 언니 원망할테야.

정숙: 가진 어디를 간다고 그러니 공연한 말을 했구나. 가면 또 편지까지 하라고 부탁하면서 네게 숨길것 같니?

영순: 아까 울고 있었지 어머니 옆에서.

정숙: 내가 작별이나 하러 간 줄 아니? 애야 넘겨줬었다가는 넘어진다.

영순: 그러면 참말이야? 아무데도 안가고 여기 있을테야? 언니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언니 같은 이가 있어야지. 회를 위해서도 일이 돼나가지. 참 여기 여성들을 위해서도 언니 같은이가 하나쯤은 나와야 해. 모두 입으로는 제가 저 인체 하지만 무월 한가지나 하는게 있드라구 말뿐이지 연애뿐이지.

정숙: 모두 너같은 이만 있으니까 그렇단다. 너는 결혼하고 들어앉을 물이되니까 남더러는 여성을 위해, 회를 위해 일하라고만 앉았지.

영순: 나같은 것이 어떻게 일을 해 아까도 오빠가 말했지만 세상에 제 재능과 천재에 맞는 빠른 길을 걸어야 한다.

정숙: 애야 세상일이란 이론 가지고만 안된다. 주관으로 놓아서 꼭꼭 들어맞듯이 세상이 되어가면 무슨 걱정이 있겠니?

영순: 정말 언니는 여기 있어야 해. 여러가지 일을 위해서. (원봉을 의미있는 듯이 옆눈질하며) 언니 한 몸이야 어디 가든지 살기는 마찬가지로지만 이런 곳에 있어서야지 생활하고 일해 나가기가 편하지 않우?

정숙: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멀리 갈마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일 수가 아니? (침묵)

영순: 오빠시계 몇시 ?어요. 난 먼저 가서 점심차려 놓을테야. 언지 점심 잡숴고 가. 이렇게 모였으니 그리고 난 편집 사람이 되기 전에 최후로 같이 먹어봐요.

정숙: 「최후의 오찬」인 셈이구나. 차선생님이 참여 없어서 섭섭하다마는.

영순: (원봉에게) 언니 꼭 데리고 와야해요. 그 찌프린 얼굴 그만 두시구 네 한시만 넘으면 진지 안들일테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 약속합시다. (달려들어 손가락을 맏고) 언니도 꼭! 응?! (달려들어 같은 동작) 들이 꼭와요. (뛰어나간다)

원봉: (한참 있다가) 어디로 갈테야? 확정했소?

정숙: (먼 산을 쳐다 보고) 누가 아우?

원봉: 이제 정숙이도 별천지로 가겠군. 축하 할일이요.

정숙: 없수이여기지 말아요. 지금 앉아서는 그런 소리도 어쭙잖게 밖에 안들려요.

원봉: 그 전에는.

정숙: 그만뒤요. 쭙쭙지 않게 들려요.

원봉: 그 전에는.

정숙: 그만뒤요. 쭙쭙지 않게.

원봉: 정숙이가 지금은 그렇게 쭙쭙아졌나 더욱 축하해야 할 일이로군.

정숙: (골내며) 당신축하나 싫것 해보슈. (벌떡 이리나 나가려한다.)

원봉: (블르며) 대답한마디만 하고가. 언제 어디로 갈테야. 그것만 가리켜 주고가.

정숙: (뜻있는 듯이) 그것이 그렇게 알고 싶우? (옆에 와 앉으며) 원봉씨! 원봉씨 가슴에 봄은 왔나보이다만 아직 초봄이구려. (손을 잡으려한다)

원봉: (피하며) 또 이 예전버릇!

정숙: (울다시피) 사람은 버릇때어 놓으면 남는 것은 백골뿐이야. 적어도 이자리에서는.

원봉: 그러니까 수도원으로나 가랬지.

정숙: 수도원아니라 절간을 간대도 백골만 가지고 어떻게 가나.

원봉: 방향전환을 해보란 말이야.

정숙: 흥. 그렇게도 업수이여기나!

원봉: 그것이 그렇게 섭섭하게 들린다. 해도 내탓이 아니야. 그 위탓이지. 정숙이는 여성운동에 몸을 바쳐보지. 영순이 말과 같이 정숙이같이 백골만 남은 몇백만의 조선여자를 위해서.

정숙: (코끝으로) 흥, 그리고 이곳에 남아 있으란 말이지. 이 낡은 곰팡이 나는 고을구석에! 모두 눈깔질만 하는 고을굴속에.

원봉: 어디를 갈테야? 난 모른척 할테니까 말해 줘.

정숙: 그것이 그렇게 알구 싶우? (다시 가까이 가며) 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대답못하겠오. 원봉씨 대답한번 해보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먼저 손잡기를 청했나? 대답좀 해 보오.

원봉: (외면을 하며) 그까짓 것 또 물어 뭣해! 모두 옛일을 가지고.

정숙: 옛일이니까 지금 이야기해보려는 것이 아니오? 내게는 소용이 단단히 있어요. 내게 대한 책임을 모르슈?

원봉: (독하게) 거짓 투성이! 누구에게다 밀려고.

정숙: (깔깔 웃으며) 과거라는 막으로 모두 가리워 버릴려는 수작이오 그러. 나는 못해요. 나는 사내와는 달라요. 당신 같은 사내와는!

원봉: (더 골내며) 너도 몇천만의 다른 여자와 똑같구나! 잊지 않고 있거든. 날 보고 묻지 말고 혼자 앉아서 좀 생각해봐. 흥 염치라는 것을 빼놓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정숙: (못들은 척) 내게와서 부인문제인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단이가 누구요. 그리고 나서는 썩거부인이니 엘엔케이니 원치도 않는 설교를 해가면서.

원봉: (분을 억제치 못하는 듯이) 이 암거미새끼! (주먹을 든다)

정숙: 흥 남녀동등을 가르치던이가 이제 주먹을 가르치려드오그러! 덕택으로 남녀동등을 알았으니까 난 조금도 무서울 것

없습니다.

원봉: 왜 너는 남을 불러다가 방안에다 가두어 놓고 안 내놓았니? 그리고 복선에다 불붙인 이가 어떤 년이야!

정숙: 아이고 저 말좀 들어 봐 방안에다가 가둬 놓았다구!

원봉: 그래 더운 방에다 처넣고 향수를 내 뿜어 가면서!

정숙: 향수바른 여자는 악인같은 남자의 ?가 되겠구려. 하나 가르쳐 주셔서 감사 무지 하외다.

원봉: 그리고 나서는 날더러 어찌어찌 했다고? (주저 앉으며) 흥 그따위 소리 지금 하면 무슨 이가 있겠니? 그만두자.

정숙: 나는 그만두지 못해요. 나는 당신에게서 영영 떠나기 전에 기어이 이 책임을 규탄해놓고 갈테야. 이것이 내 마지막 결심이요.

원봉: 맘대로 해보렴. 그러니 어찌란 말이야.

정숙: 책임을 지고 내게 죄를 자복하란 말이요. 당신 입에서 이말을 듣기 전에는 난 죽어도 가슴이 시원해지지 못해! 가슴이 시원해지지 못해!

원봉: 그것이 내게 대한 마지막 원수 갚자는 꼴인가? 기껏해야 그 수단밖에 못 끌어 냈구나 불쌍하게!

정숙: 날 보통 여자로만 만들었더라도 이처럼 괴로운 꼴을 안보겠오. 그렇잖아도 다른 여자와는 다른 성질과 품질에다가 그 산돼지 같은 목직한 힘을 끼쳐주었으니 난 그것이 원통해요. 보통 인생들의 도깨비 장난같은 짓으로만 끝내주었드래도 난 또 이처럼 원통치는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다른 남자의 유혹을 받게된 걸 눈앞에 뵈면서도 모른척하고 돌아서니 더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 흥 당신은 광은이가 날 피어 가는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는 한점도 책임이 없다고 돌아눕겠지. 그렇지만 철모르는 어린애에게다 화약을 주고 그것이 폭발했다고 하면 역시 당신은 그 애에게만 책임을 지우시려오? 당신은 당신대로 앉아서 봄이 왔느니 갔느니하고 속이 편하게 있지만 이 화약을 내 몸에다가 지니게 한것이 얼마나 큰 죄이었는데 아시오? 나는 왜 내가 이성(理性)이라든지 의력(意力)이라든지 모르겠오만 그따위 것을 눈 깜짝 사이에 둘러 엮을만한 큰 폭탄을 갖게 되었구려. 난들 이 운명의 길에 들어 선것이 끔직한 일인 줄을 알지만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걸 어떻게 해요. 내 눈에도 흰 흰한 밝은 세계가 비치는 것이 보이지만 그런 속에서는 일순간이라도 살지 못하도록 나를 건드려 놓았으니 어떻게 해요. 남편의복이나 잘 지어주고 밥이나 맛있게 차려주고 간지러운 웃음으로 살살거릴 수만 있으면 나도 행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지. 그렇지만 지금 나라는 여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흰한 대낮세계의 인생도 못되니 어떻게 해요. 저녁 황혼의 세계에 든 인생이야! 날 이런 이상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요? 누가 이모양으로 만들어 내 놓았오?

원봉: 나만 그렇게 몰아 내가지고 닿는 데까지 옥해봐라! 속 시원해져도 네 속시원해질 뿐이고 못 시원해져도 네 속 못 시원해질 뿐이지. 내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제 나는 그것이 여성본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숙: 그리고 광은이가 날 데리고 일본으로 데려가기 전에

나를 거짓과 참된 것도 몰라보게 만든 것도 당신이요. 당신은 회일로 바꿨지만 그것은 핑계야. 빨간 거짓말이야. 영순이에게다 의리 아닌 눈치를 보여가면서 「이것 봐라 네 까짓것 벌써 썩었다」 는듯이,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는 듯이 해 보인 것이 또 큰 실수였오. 내가 그때 광은이의 유혹을 받고 있던 한 참중에 만일 보통 여자만 되었어도 아무 탈이 없었을 거요. 그런데 그 이상야릇한 정신상의 영향으로 해서 나는 두발을 꼼짝할 수 없이 구렁 창으로만 자꾸 끌며들어 갔오. 사실로 ?기라든지가 의지 라든지가 간섭못할 구렁창 속에다가 당신이 일부러 집어넣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두발 등에다가 못질을 해놓았구려. 이런 결박된 몸으로 어찌 광은이의 그 손에 안 끌려가겠오. 만일 내가 당신말 모양으로 다만 여성본능만으로 지내는 저급한 동물만 되었어도 이렇게 당신 앞에 얼굴을 들고 다시 안 나타났겠소. 그때에도 당신은 영순이에게다 그꼴을 보여가면서도 내게만은 옅는 짓만 슬쩍슬쩍 아니했드면 또 당신이란 것을 완전히 잊을 수도 있었을거야. 그따위 짓으로 나는 아무 힘도 없이 당신 명령대로 구렁창에 슬슬 빠져 갔구려. 내 일상 생활이 어떻게 당신말 모양으로 방향전환을 해 갈지 모르지만 어떤 구석에 가 앉았드라도 이것만은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소! 저주하겠소! 규탄하겠소! (침묵)

원봉: 이제 다 짓거렸니? 그게 모두 여성 본능 이란것이 짓거리는 수작이야. 하지만 난 과거의 일로 알고 네 말 모양으로 막을 단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내게 지우려고 하면 나는 애써서 그리 피할 것도 없지만 동시에 나도 네게다 그 책임을 지우겠다. 사실대로 말하면 너와 나 둘 사이에 이 더러운 책임은 우리들 소이가 아니다. 저기 저 보이지 않는 늪은이! 알겠니? 그렇다고 그이에게다가도 책임을 지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허허허 책임을 지운대야. 무슨 이속이 나와야지. 이 속없는 것이면 처음부터 모두 그만둘 일이야. 그게 사람답지! 사람다워!

정숙: (수건을 쥐어뜯으며) 아! 그렇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앉았는 심장을 죽죽 쥐어 뜯어받길 가보다! 그따위도 선선한 얼굴만 해 가지고 앉았다는

원봉: 어떻게 할테니? 세상 보통여자 모양으로 끝판을 내겠다든 말이니? 아 참 보통 여자라고는 아니 했지? 보통 여자라고! 하하하 얼마나 아닐런지 의문이다.

정숙: 어찌 그리 자만이 많소? 산돼지가!

원봉: 흥 지금 너같은 것이야 몇십길 발밑에 선 조그만 벌레로밖에 안 보인다. 난 네 앞에 서서 너넉히 자만 할만한 자격이 있는 산돼지다! 자! 그 밑에서 날 훑쳐보렴. 얼마나 크고 높게 보이는 돼지인가. 하하하하. 하하하.

정숙: (못들은척 하는 얼굴로 일어나며 간다. 가다가 진달래꽃이 눈에 뜨이니까 그것을 한손 뜯어다가 원봉이 앞에 갖다가 뿌리며) 오늘이 삼월 삼짇 날이야. 모두들 잊었오그러. 자 이 꽃이나 갖다 상위에다 놓아주오.

원봉: 아까 그 말대답이나 해 주고 가!

정숙: 어디 간다는 것? (웃는 얼굴로 다시 가까이 오며) 당신머리가 안 굽혀지는 동안은 죽어도 대답 아니 할테야.

원봉: 자 이렇게 굽혔으니까 꼭 한마디만.

정숙: 그까짓 절은 난 싫어요. 여관집 뽀이도 다 그런 절은 할줄 아는것

원봉: 정말이니.

정숙: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당신 미련이 있우 그간에 미련이?

원봉: 그래도 있다 그러니 한마디만 어디로 간다고 해두고 가.

정숙: (돌아서며) 그만뒤요. 날 영순이로만 아는 게야. 하여 간 아직 확정을 못했으니까. 갈른지 어찌 될른지도 모르니까. 대답 못해요.

원봉: (꽃아가 붙잡고) 정숙씨! 공연히 그러지 말아요. 제 발.

정숙: 참 당신도 꼭 어린 애 같구려.

원봉: (돌아와 앉아서 꽃을 줍고 앉았다.) 영순이만 툭툭히 속았구나.

정숙: 왜 속아? 아까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래도 당신한테는 비밀이에요.

원봉: 거짓말 말아! 영순이 속떠볼려고 한 소리를 갖이고.

정숙: (다시와 옆에 앉으며)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 열심히 묻소? 남한테 미리 안 굽히는 이가 (원봉이 대답이 없다. 같이 꽃을 만지다가) 원봉씨는 어디로 가겠소? 그것만 가르쳐주면 그리로는 당초에 안 갈테니까.

원봉: 내가 간다기로 지구 위에서밖에 더 내왕할가.

정숙: 아하 그러면 난 화성으로나 가야겠네. (손을 붙잡고) 내게 아까 그 시 읽어주. 「최후의 오찬」 대신에 「최후의 애가(哀歌)」라고나 해 들가

원봉: (정숙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크게 숨쉬고 나서 서서히 외운다. 외우는 동안 정숙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다)

내가 이 잔디밭 위에 뛰노닐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보아 주실수 없을가

어린 아기가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어릿광 함과 같이

내가 이 잔디밭 위에 짓둥거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참으로 보아주실 수 없을가

미칠 듯한 마음을 견디다 못하여

「엄마! 엄마!」 소리를 내었더니

땅이 「우애」 하늘이 「우애」 하오매

어느 것이 나의 어머니인지 알 수 없어라

막 서서히

[수필 01]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신영복)

- 수능특강 27쪽 -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 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風霜)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였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한 켈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였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북공복원 공사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한 조선정궁의 기본 궁제(宮制)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북공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 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 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 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광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산관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

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 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술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무덤 속의 한을 달래 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솔향 등 어느 것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高節)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곧은 동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곧은 지조를 읽어 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짝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侵襲)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 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 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해제]

이 작품은 태백산맥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소나무들을 보며 경이를 느낌과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이루어 내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한다. 나아가 현대인들의 무차별적인 소비와 현대 사회에 만연한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를 비판하고,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한다.

[주제]

무차별적인 소비를 일삼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현대 사회의 비정한 세대 비판

[구성]

- 1문단: 풍상을 겪으며 버티어 온 소나무에 대한 경이와 자신에 대한 반성
- 2문단: 소나무를 비롯한 자연을 훼손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 3문단: 인간마저 소비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현대 사회의 폭력적인 소비 행태 비판
- 4문단: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 대조되는 소나무의 정신적 기상
- 5문단: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습 비판
- 6문단: 솔방울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예찬,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응하는 저력이 필요함을 제시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